

목 차

논문개요	1
I. 서론	4
1. 연구목적	4
2. 연구사 검토	8
3. 연구방법론	22
II. 모더니즘과 상상적 타자성의 발견	26
1. 모더니즘의 공간 욕망과 식민지적 타자화	26
2. 상상적 타자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31
III. 탈식민의 거리감각과 사변의 언어-김기림	36
1. 근대문학과 탈공간의 거리감각	36
(1) 근대문학과 주체성립의 의지	36
(2) ‘세계’의 출현과 ‘기상도’의 거리감각	57
(3) 역사에 대한 절망과 근대풍경의 죽음	67
2. ‘미래’의 시간성에 관한 염원	77
(1)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부정과 ‘미래’의 시간의식	77
(2) 자아의 회복과 황폐화된 세계의 회복	82
3.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	89
IV. ‘몸’의 지형도와 차이의 언어-이상	95
1. 식민지적 ‘몸’의 절망과 ‘거울’의 탄생	95
(1) ‘거울’의 탄생과 식민지적 몸	95
(2) ‘탈신(脫身)’ 욕망과 ‘외출중’인 분신	106
2. 쾌락의 소통방식과 ‘위조’된 타자의 얼굴	114
(1) ‘혈청’과 ‘문벌’의 교환과 가부장적 식민 질서	114
(2) ‘정조’와 ‘화폐’의 교환과 자본주의적 쾌락 욕망	118
(3) 위조된 ‘표정’과 공포의 ‘번신술(翻身術)’	127

3. 소외의 존재방식과 송고미	135
(1) ‘절름발이’와 ‘척각(隻脚)’의 존재방식	135
(2) ‘여왕봉’과 ‘웅봉(雄蜂)’의 존재방식	140
(3) ‘원숭이 흉내내기’와 ‘산호편(珊瑚鞭)’을 든 ‘조상’	145
V.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백석	150
1. 근대 풍경의 저항으로서 서사	150
(1) 자연 서사와 주체의 풍경	150
(2) 고독하지 않은 ‘외로움’과 어둡지 않은 ‘밤’의 서사	159
(3) 공포스럽지 않은 ‘무서움’과 슬프지 않은 ‘눈물’의 서사	165
2.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는 경험 공간의 발견	171
(1) 변방의 발견과 가난하지 않은 ‘가난’의 경험	171
(2)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는 근원적인 생의 행복	171
3. 타자성의 자아와 침묵의 언어	180
(1) 상상적 타자와 타자성의 자아 발견	180
(2) 제국 언어에 저항하는 ‘소리’의 발견	190
VI. 결론	201
참 고 문 헌	209
ABSTRACT	217

논문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타자성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모더니즘 시의 탈식민적 의의를 모색하려는 데 있다.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타자성을 살피는 것은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저항의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탈식민적 관점은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이 타자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신, 자연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타자의 범주에는 동양·비서구적 타자·외국인·동성애자·여성은 물론 죽음·무의식·광기를 비롯하여 서구 동일성 사유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인식이 포함된다. 그런데 식민담론에서는 지배의 정당성을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이분법을 통해 구축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를 초래한다. 즉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를 범주화한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상상적 타자성’은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타자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모더니즘 예술을 모더니티와의 연관성을 통해 이해하던 태도와는 달리 모더니즘 예술을 그 역사적 기원을 통해 해명하였다. 즉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낭만주의의 미학적 성격을 함의하는 동시에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기원으로서 근대적 공간 욕망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모더니즘의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근대적 공간 욕망은 식민지 영토 확장과 같은 제국주의의 공간 욕망에 편입될 수 밖에 없었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예술적 태도를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 나아가 전통적인 문학과는 전혀 다른 근대문학을 지향하는 근대에 관한 천착을 의미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타자성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한국문학사 연구에서 근대성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대성에 관한 천착이 식민지 경험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한국인의 무의식에 각인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1930년대라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현실도피와 내면화 경향으로 이해된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탈식민의 입장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은 제국주의 담론의 타자화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의 폭력 속에서 주체 욕망에 함몰되지 않는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30년대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를 상상적 타자성의 관점에서 해명하였다. 즉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나아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상상적 타자성을 구현한 시인들의 시를 연구함으로써 모더니즘 시를 탈식민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김기림은 시 뿐만 아니라, 시론과 수필, 문학비평 등 해박한 문학적 지식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 주체로서 주체성을 염원하였는데, 그의 시는 탈식민의 거리감각으로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관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모더니티의 공간성이 제국주의 공간욕망과 연관된 것임을 인식하고 제국주의적 근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염원하였다. 그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근대에 의해 훼손된 시간과 공간의 회복을 염원하였으며 나아가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였다. 이때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은 혈연 중심의 근대 민족주의와는 다

른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시적 탐색은 사변의 언어로서 관념적인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식민공간에서 주체란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 변증법에도 불구하고 주체 성립을 염원하는 그의 시적 탐색은 사변적인 한계, 즉 관념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상은 김기림과 달리 제국주의 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인식하고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구조적 인식을 통해 그것에 저항하였다. 즉 그는 제국주의를 경험체계와 연관된 현실독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학도로서 구조주의적 방식으로 제국주의를 인식하였다. 그는 주체의 위치를 점하는 제국주의 담론이 상상 구조이며 제국주의의 문화논리 역시 허위임을 폭로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와 같은 차별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별의 정당성으로서 내세운 제국주의 담론의 문명논리를 문화적 '차이'로서 인식함으로써 이상은 제국주의 담론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타자의 담론이 지배하는 식민공간에서 탈주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욕망은 그에게 타자의 정체성이 각인된 몸을 벗어나려는 '탈신(脫身)' 욕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에게 '탈신(脫身)'욕망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주체의 위치를 교란시키는 시적 저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시는 정형화된 식민담론의 인증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차이의 언어'로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죽음'이라는 자아부정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송고미를 보여주었다.

차이의 언술로서 제국주의 담론을 부정하는 이상 시와는 달리 백석은 제국주의 담론의 주체논리 자체를 부정하였다. 즉 제국주의 담론이 중심과 주변·근대와 반근대·문명과 비문명의 이분법을 강조하고 문화의 위치를 통해 근대 주체를 표상함으로써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면, 그는 중심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삶의 서사를 발견함으로써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서사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그는 언문일치를 중시하는 근대어와 일본어의 제국 언어에서 벗어나 방언과 같이 말소될 위기에 처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백석 시의 이러한 시적 탐색은 이분법적 차이를 해소하고 몸의 경험을 강조한 메를로퐁티의 침묵의 언어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탈식민의 서사와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발견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그의 시적 탐색은 침묵의 언어를 지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여 근원적인 삶의 정서를 회복하고 변방체험을 통하여 경험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그는 문학이라고 하는 상상적 공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편입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타자성의 자아를 통하여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저항하는 탈식민의 타자성, 즉 모더니즘 시의 상상적 타자성을 발견하고 탈식민의 의의를 모색하는 것은 오랜 시간 문명의 주인으로서 주체의 자리를 점유해왔던 서양의 동일성 사유를 비판하고, 주체의 위기 속에서 근대적 주체의 문제점을 반성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타자성의 구현을 통해 문학적 전망을 탐색하고, 주체의 동일성 욕망에 함몰되지 않는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문학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핵심어: 제국주의 담론, 식민지적 타자화, 자아의 타자화, 상상적 타자성, 사변의 언어, 차이의 언어, 침묵의 언어.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국주의 팽창과 관련하여 심각한 자아의 위기를 경험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상상적 타자성을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상상적 타자의 발견, 그리고 모더니즘의 언어관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적 의의를 모색하려는 데 있다.

연구에서 다루게 될 핵심개념인 타자성의 개념은 식민담론과 탈식민적 관점의 교차점¹⁾으로서 전자는 서양 문화사와 사상사 전반에 걸쳐 타자로 정의되는 특정한 사람과 개념, 인식들과 연관된다.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신·자연 등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타자의 범주에는 동양·비서구적 타자·외국인·동성애자·여성은 물론 죽음·무의식·광기를 비롯하여 서구 동일성 사유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인식이 포함된다.²⁾

그런데 제국주의 담론에서 이러한 타자의 문제는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 즉 근대 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식민담론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를 통해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관여하고 문화의 차이를 통해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의 범주를 제한한다. 일본의 식민담론에서 이러한 타자는 일본·이성·문화인·지배인, 근대의 주체에 반대되는 조선·비이성·야만인, 비근대를 지칭하는 피식민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타자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를 비판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탈식민의 관점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속되지 않는 타자성이란 상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민 공간 속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타자성이란 식민담론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식민담론의 현실논리와는 다른 상상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식민담론의 정체성 개념인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상상적 타자성³⁾을 해명하려는 것은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새롭게 연구하려

1)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p. 337.

2) 스티브 모튼, 이유경 역, 『스피박넘기』, 엘피, 2005, p. 76

3) 레비나스는 동일성 사유의 기원인 서양철학이 타자를 서구 주체의 견지에서 의식의 대상으로 정의해왔

는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전통적인 문학과는 전혀 다른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망 속에서 근대문학에 대한 천착을 의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 의해 수입된 모더니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모더니즘의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모더니즘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낭만주의의 미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성과 연관된 것이었다.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욕망 속에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모더니즘의 이러한 특성은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공간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서 내세우기 위해 문명의 논리를 통해 식민지 영토 확장과 같은 공간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더니즘은 제국주의의 근대적 공간 욕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상상적 타자성을 연구하려는 것은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 뿐 아니라 제국주의와 연관된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역사적 모더니즘과 미적 모더니즘이라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원적인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즉 현실 도피적이고 형식주의 미학이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의 기원을 통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와 제국주의적 공간성의 연관관계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이 서양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식민지라는 특수

으며 이러한 환원적인 정의가 사실상 타자의 독특한 타자성을 파괴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때 타자의 타자성이란 주체의 동일성 사유에 저항하는 타자의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체와 타자의 정체성을 통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축한 식민담론에서 이러한 타자의 존재방식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 속에서 탈식민의 가능성으로 타자의 존재방식을 주장한다는 것은 식민공간에서 상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탈식민적 타자성을 상상적 타자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Art Berman, 『Preface to Modernism』, University of Illinois and Press Urbana and Chicago, 1994, p. 5 참조.

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평가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인성의 위기 속에서 타자성의 발견을 통하여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한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적 의의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또 한국문학사 연구에서 근대성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식민지 경험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 주체 욕망의 토대가 된 서양 철학의 공리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대에 대한 욕망이 식민지 경험 이후에도 계속되는 포스트 식민주의와 문화 제국주의의 논리임을 인식함으로써 탈식민의 입장에서 근대성 중심의 문학사 연구방법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주체와 타자의 논리를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친일과 반일의 현실논리에서 벗어나 식민담론이 형성된 역사적·사회적 과정과 기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식민담론의 구조적 장 속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친일의 문제를 보다 깊이 해명하려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조선적인 것이 말소된 경험체계를 넘어서서 담론구조로서 이해하는 것은 담론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형성할 뿐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환상과 이미지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의 허위성을 폭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문학은 식민지라는 제국주의 현실과 근대 주체라고 하는 이중의 제국주의적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모순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순리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자연관은 더 이상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재현 대상이나 사물에 불과한 것이 되었으며 ‘고독’이나 ‘연애’와 같이 근대 주체를 표상하는 감각과 근대 풍경 속에서 주체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 가치들은 낡은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국주의적 주체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근대풍경과 감각의 주체화에 대한 횡포를 제국주의적 주체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였다.

나아가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속되지

5)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p. 220-221 참조.

않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상상적 타자성으로 해명함으로써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타자성의 범위를 표현층위와 내용층위 면에서 고루 살피고자 하였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 가운데 김기림, 이상, 백석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세 시인들이 제국주의 공간욕망과 연관된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타자성의 발견을 통하여 각각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탈식민의 가능성을 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백석의 시는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는 민속시인 내지는 민족적 원형심상을 발굴한 민족시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백석의 시를 연구함으로써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다양성을 새롭게 타진하고자 한다.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의 시각에서 접두사 'Post'를 '탈(脫)'이라고 번역하는 데에는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식민성의 문제를 의식화하려는 것이다. 즉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문화제국주의의 문제를 식민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함으로써, 주체의 동일성 사유를 넘어서서 탈식민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통하여 시적 자아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제국주의 담론의 주체의 위치를 비판하고 주체의 위치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횡포 속에서도 상상적 타자성의 발견을 통해 다양한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한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주체의 실패한 기획이라는 모더니즘에 관한 평가를 재고하고 한국모더니즘시사에 대한 평가를 재인식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전망을 통해 식민지 경험 후에도 계속되는 문화제국주의의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주체의 횡포에도 예속되지 않는 타자성의 발견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자아의 전망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탈식민의 전망으로서 타자성을 중심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1930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모더니즘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모더니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탈식민의 전망으로서 모더니즘 문학의 타자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의 모더니즘은 서구의 모더니즘과 달리 기법적·표피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당대의 역사현실과는 무관한 포즈로서의 모더니즘, 즉 주지주의의 방법론적 수용을 예로 들어 비실천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으로서 그것을 비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임화와 같이 당대의 사회주의 문학을 옹호하였던 작가들과 리얼리즘 문학을 옹호하였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⁶⁾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서 한층 더 기원적인 것에 접근하여,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유래된 영향관계론을 살핀 연구가 있다.⁷⁾ 이때 한국의 모더니즘은 근대에 대한 모방과 열망 속에서 유래된 서구 문학의 접목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모더니즘 문학의 사회적 생산 관계에 주력한 연구⁸⁾와 문학적 발현양식, 즉

-
- 6) 임화, 「曇天下의 詩壇一年」, 『신동아』, 1935년 12월,
조연현, 「手工藝術의 運命」, 『문학과 사상』, 세계문화사, 1949.
송옥, 「한국 모더니즘 비판」, 『시학평전』, 일조각, 1963.
박철휘, 「한국현대시와 그 서구적 잔상」,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최두석, 「1930년대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7) 백철, 「모더니즘 운동」, 『조선 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김춘수, 「한국현대시 형태론」, 해동문화사, 1958.
이창준, 「20세기 영·미시 비평이 한국현대시에 미친 영향」, 『단국대 논문집』 7집, 1973.
김용직, 「모더니즘의 시도와 실패」,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김윤식, 「모더니즘의 정신사적 기반」, 『한국근대문학사상사비판』, 일지사, 1978.
이창배, 「현대 영·미시가 한국의 현대시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74.
김은전, 「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에 관한 비교문학적 연구」, 『국어교육』 31호, 1977.
김종길, 「한국 현대시에 끼친 TS 엘리엇의 영향」,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83.
한계전, 「모더니즘 시론의 수용」,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83.
오세영,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와 그 특질」, 『예술원논문집』 25호, 1986.
- 8) 각주 7)에 소개된 논문 외에도 모더니즘 문학을 사회적 생산관계에 주력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인기, 「한국현대시의 모더니즘 수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7.
서준섭,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8.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표현양식으로서의 모더니즘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⁹⁾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모더니즘 문학사와 모더니즘 시론을 별도로 한국문학사에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⁰⁾

두 번째로 식민지의 특수성을 들어,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이는 상황적 특수성을 문제 삼으면서, 서구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성과를 자생성과는 거리가 먼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평가하였다.¹¹⁾

특히 이러한 논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의 연관 관계 속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파행적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낙후된 자본주의를 지적하고, 주변인으로서 근대도시인의 삶과 욕망을 해명한 연구는 주로 당대의 수도 ‘경성’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모더니즘과 ‘도시’라는 연관 관계를 추적하였다.¹²⁾

즉 서구 모더니즘을 배태시킨 유럽 도시들과는 달리 식민 세력에 의한 일방적이고, 타율적인 도시화의 양상을 겪은 한국의 모더니즘은 근대화의 현란한 외피만을 감각적으로 수용했을 뿐, 모더니즘의 미적 비판의 기능이 자생적으로 육화되기에는 미적 주체들의 인식이 빠른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¹³⁾라는 것이다. 또 1930년대 모더니즘 시는 영미 모더니즘 이론의 도입과 더불어 경성에서 작가들이 겪은 체험내용에 새

김유중, 「1930년대 후반기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조정래 외,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9) 한영옥 교수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외국문학의 무조건적 수용, 혹은 몰이해라는 기존의 평가를 비판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어떠한 가치기준을 내세워가지고 모더니즘을 평가하기보다는 현상 자체를 우선 고찰하는 ‘個別性’의 입장에서 모더니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한영옥, 「30年代 韓國 모더니즘의 位相」 『성신연구논문집』 제 25호, 1987, 2, p. 99 참조)

10) 문덕수, 「한국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이승훈, 「모더니즘 시론」, 문예출판사, 1995.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준오, 「한국모더니즘의 현단계」,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비평사, 1993.

오세영,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한국근대문학론과 근대시』, 민음사, 1996

11) 강은교, 「1930년대 김기림의 모더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박헌호, 「구인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허문화회, 『근대문학과 구인회』, 깊은샘, 1996.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 비평』, 1993년 여름호.

유성호, 「이미지즘 시학의 방법적 수용과 굴절-김광균론」,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연구』, 1999.

12) 신범순, 「김기림에 있어서 여행의 정열에 대하여」, 『관동문학』 제 5집, 1992.

신범순, 「도시거리의 작은 축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신범순, 「1930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 자아’의 군중, ‘기술’의 의미」, 위의 책.

유성호, 「이미지즘 시학의 방법적 수용과 굴절」, 앞의 책.

최혜실, 「모더니즘의 의미와 한계」, 『한국 현대시의 쟁점』, 시와 시학사, 1991.

13) 유성호, 「이미지즘 시학의 방법적 수용과 굴절」, 앞의 책, p. 11.

로운 감각을 결합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¹⁴⁾는 것이다. 현대 문명을 보는 신념의 결여, 사상과 감각이 통합된 형이상학적인 감수성에 대한 혼란의 결여¹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서구의 정신사적 내면성의 풍경과는 질적으로 다른 토양을 강조하고 도외문명의 공허와 타자부재, 역사의식의 미비 등을 모더니즘 문학의 성격으로 규정¹⁶⁾함으로써 대부분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모더니즘과 도시화 현상에 주목한 이러한 연구 시각은 산업사회의 여러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도시시에 대한 논의¹⁷⁾로 이어졌으며, 1980·90년대 이후 정치시의 투쟁성과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체로 나타난 문명비판시의 개념으로 이어졌다.¹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노선으로서, 현대시의 하위부류 개념인 ‘도시시’ 개념을 내세운 이러한 연구는 특히 한국문단에 1980·90년대 소위 ‘도시파 시인들’이라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버만의 도식에 의거한 것²⁰⁾으로서, 자본주의 발달 정도와 모더니즘의 연관성을 도시-‘경성’-이라는 기형적 소비 중심의 사회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와 연관된 제국주의적 공간 욕망을 해명하고 이를 비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 번째로 식민지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모더니즘을 이해하였던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1930년대 모더니즘을 근대성의 틀로 이해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²¹⁾ 이

14) 최혜실, 「모더니즘의 의미와 한계」, 앞의 책, p. 310.

15) 문덕수, 『한국모더니즘시연구』, 앞의 책, p. 333.

16) 유성호, 위의 책, p. 32.

17) 오세영, 「80년대 도시시의 위상」, 『문학정신』, 1989. 7월호.

정한용, 「도시적 삶과 소외」, 『시운동』, 1989년 6월호.

장석주, 「새로운 도시시를 위하여」, 『시운동』, 1989. 6월호.

하재봉, 「일상적 초월과 도시시」, 『시운동』, 1989. 6월호.

18) 김준오, 「도시시와 포스트모더니즘」, 앞의 책, p. 118.

19) 김준오, 「도시시와 포스트모더니즘」, 앞의 책, pp. 120-139 참조.

20) 마샬버만(「현대성의 경험」, 윤희병 역, 현대미학사, 1994)은 근대 이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맑스의 유명한 전언 “건조한 모든 것은 대기 중에 녹아내린다”에서 찾았다. 그는 전시대의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붕괴됨에 따라 파우스트적 열정과 변화에 대한 욕망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으며 이를 현대성의 경험 가운데 통찰하였다. 보들레르 문학에 나타난 ‘거리’와 근대화의 도시적 속성에 주목한 그의 연구는 도시와 연관된 근대의 기획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개발 모더니즘 논리의 토대로서 자주 언급된다.

21) 김윤식,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1」, 『한국학보』 50, 일지사, 1988.

김윤식, 「한국 모더니즘 문학연구 2」 『한국학보』 52, 일지사, 1988.

러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모더니즘을 근대 이후에 나타난 세계인식방법²²⁾으로서 수용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미학적 예술 방법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학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현실층위와 표현층위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져 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고 하는 합의되지 못한 시기에 대한 지나친 천착과 이를 통한 근대성의 특성에 편중됨으로써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양분된 근대성의 공리를 통해 한국문학을 재단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근대성과 관련하여 비근대와 반근대, 근대주의와 낙후된 근대 등의 무분별한 도식적 용어의 사용은 한국 문학사에 ‘근대’라는 기계주의적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문학내적인 차이를 소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1930년대 문학 뿐 아니라, 1920년대 문학을 근대성의 흐름에 쉽게 대처하지 못한 고독한 개인이라는 낭만적 개인주의²³⁾로 이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본 연구는 근대 이후 개인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문학사 연구에서 십년 단위로 검토되었던 시대별, 사조별 특성과 이에 따라 근대적 주체를 강조하였던 문학사 연구방법을 비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학사 고찰의 계기로 근대성을 기준화하는 이러한 연구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주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문학 내적인 이해와 노력을 간과하고 사회·역사적 층위를 문학 연구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문학의 내적인 자율성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근대성을 중심으로 1920년대 문학을 연구할 때 이 시기의 낭만주의 문학은 서구 퇴폐주의와 상징주의의 변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

강상희,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내면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8.

이복숙, 「이상 시의 모더니티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8.

김유중, 「1930년대 후반기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시의 근대성과 주체의 욕망체계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5.

조영복,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미적 근대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6.

이성혁, 「이상 시문학의 미적 근대성 연구」, 외국어대 석사논문, 1996.

진순애,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티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이광호, 「한국근대시론의 미적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강운석, 「한국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현대성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8.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자율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이광호, 「한국근대시론의 미적 근대성 연구-1930년대 시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99.

엄성원,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비유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2

고부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근대성 연구-이상과 김수영 문학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05.

22) 고명수,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세계인식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94.

23)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창작과 비평사, 1980.

으며, 서구적 근대와 비교할 때 시간적 후진성과 공간적 미숙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²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문학내적인 차이를 지워버리는 서구보편주의에 대한 경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현대문학사 연구에서 반성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근대성에 관한 최근연구로 주목되었던 김행숙의 논문²⁵⁾은 1920년대 문학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을 비판하고 개별 동인지 문학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인지에 수록된 근대의 표상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문학’과 ‘전근대적인 문학’이라는 근대의 기준은 결국 비근대적 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²⁶⁾ 구체적 텍스트를 통해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성의 기원을 비판하고 한국의 근대문학이 역사적 구성물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근대를 호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대 사회의 변화요인을 ‘계층’과 ‘사상’-주체와 지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전 시대에 대한 대타적 역사인식을 해석의 토대로 삼았다. 이는 1920년대 한국문학을 예술의 자율성을 위한 근대 기획의 구성물로 이해함으로써 근대에 대한 해체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를 비연속적인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사연구와 관련하여 근대성에 관한 이러한 천착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경험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목되어온 자본주의 근대화라는 굴절을 통하여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성과 관련된 내면화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문학사 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근대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한국 모더니즘이 자본주의의 미성숙 과정과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회·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학의 존재론적 근거인 자율성의 계기를 지워버린다. 나아가 근대성의 입장에서 모더니즘을 가치 평가내림으로써, 미완의 기획일 수밖에 없는 상황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네 번째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각각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를 들 수 있다.²⁷⁾ 13세기 말경 시계의 발명으로 균질화된 시간은 계몽주의와 결

2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1. pp. 331-332 참조.

25) 김행숙,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26) 김행숙, 앞의 책, p. 2 참조.

27) 박태일, 「한국근대시의 공간현상학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1.

명형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공간구조 연구」, 부산대학원, 1991.

엄성원,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6.

심재휘, 「1930년대 후반기 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7.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시간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02.

합하여 진보적 시간관을 형성한다. 이어 시간은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나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붕괴되면서, 근대 이후 시간에 대한 믿음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모더니즘의 시간성은 필연적인 역사논리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이해되어온 진보적 시간관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주관적이고 사적인 시간을 인식하고 근대의 대립적인 시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²⁸⁾ 그러나 모더니즘의 전망을 시간적인 사유로서 이해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와 제국주의의 연관관계를 해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역사현실을 도외시한 미적 개인주의의 문학으로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개인성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모더니즘 주체와 관련하여 자아인식²⁹⁾ 및 내면화 경향³⁰⁾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어 모더니즘의 주체 담론 비판³¹⁾ 및 근대적 주체 형성과정에 대한 욕망체계³²⁾ 나아가 이를 정신분석학적 방법³³⁾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의거한 모더니즘 문학 연구는 라깡과 들뢰즈, 크리스트바 등등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 모더니즘의 주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병리적 주체라는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주체를 이해하는 근거로서 정신분석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모더니즘 문학의 글쓰기, 즉 미학적 표현양식에 주목한 연구³⁴⁾와 해체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의 글쓰기 방법연구-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2.

28) 칼리네스쿠, 이영옥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1993. p.3

29) 유시욱, 「이상과 운동주 시에 나타난 자아실현의 문제」, 영남대 석사논문, 1978.

이상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8.

30) 강상희,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의 내면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한경희, 「한국현대시의 내면화 경향」, 역락, 2005.

류경동,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감각 지향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31) 문홍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분열양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32)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체계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4.

33) 정귀영, 「이상문학의 초의식심리학」, 『현대문학』, 1973. 7-9월호.

오규원, 『거울 속의 나는 외출중』, 문장사, 1981.

이규동,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 『월간조선』, 1981. 6

이성모, 「이상문학의 존재론적 연구-죽음의식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87.

김승희, 「이상시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1.

34) 김명인, 「1930년대 시의 구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5.

민병기,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심상체계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1.

이경수, 「한국 현대시의 반복 기법과 언술구조」, 고려대 박사논문, 2002.

김용희, 「정지용 시의 어법과 이미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양상에 주목³⁵⁾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비교·분석한 연구³⁶⁾가 있다. 최미숙³⁷⁾은 계몽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아도르노가 지적한 ‘주체의 객체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항하는 미적 저항으로서 모더니즘적 글쓰기를 연구하였다. 이상과 김수영의 모더니즘 글쓰기에 대한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근대 이후 경험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유기적인 내면세계를 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이 모더니즘 글쓰기의 전제라고 지적한다. 즉 모더니즘적 글쓰기는 현대 사회에서 충격적 체험에 직면한 주체가 자신없음의 상태에 처해졌을 때, 취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것이다.³⁸⁾ 현실과 탈현실 공간의 대립과 이러한 대립을 모더니즘의 중요한 글쓰기 방식인 ‘병치’를 통해 연구하였으며, 문화적 규범에 타협하지 않는 모더니즘 문학의 내면적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⁹⁾ 그러나 모더니즘의 글쓰기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의 세계인식방법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근대화 의존하였다.

일곱 번째로 탈식민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이해한 연구가 있다.⁴⁰⁾ 한국 문학 내에서 탈식민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페미니즘 연구를 꼽을 수 있다.⁴¹⁾ 이는 호주제와 같이 가부장적 권력을 승계한 근대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탈식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 탈식민적 글쓰기와 관련한 개별 작가연구가 있다. 시대 순서에 따라 이를 분류해 보면 「신채호의 탈식민성 연구」⁴²⁾와 「이광수 문학의 양가성 연구」⁴³⁾, 임화와 관련한

김동근, 「1930년대 시의 담론체계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6.

최미숙, 「한국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학박사논문, 1997.

김신정, 「정지용 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서지영, 「한국 현대시의 산문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8.

35) 김윤정, 「이상 시에 나타난 탈근대적 사유-동일성 해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 1999.

36) 김현호, 「이상시 연구-이상의 해체의식과 그의 시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2.

37) 최미숙, 『한국 모더니즘 시의 글쓰기 방식과 시 해석』, 소명출판, 2000.

38) 최미숙, 위의 책, pp. 29-39/ p. 169 참조.

39) 최미숙, 위의 책, pp. 173-203 참조.

40) 김예림, 「에로그로퀴향과 식민지 근대의 타자 상상」, 『1930년대 후반 근대의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이수라, 「채만식 소설 연구- 식민성과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2004.

41) 태혜숙 외 저, 「식민지 조선 여성을 경유한 탈식민 페미니즘의 자생 가능성」,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박종철 출판사, 2004

42) 최현주, 「신채호의 탈식민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 7권 3호 제 20집, 2003. 9.

43) 김경미, 「1910년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준비론과 양가성」, 『한국어문학』 제 86호, 2004, 12.

여 「1930년대 후반 비평에 관한 탈식민성 연구」⁴⁴⁾, 그리고 채만식⁴⁵⁾, 염상섭⁴⁶⁾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가 있다. 그 밖에도 60년대 김수영⁴⁷⁾과 70·80년대 독재에 저항한 시인으로 김남주⁴⁸⁾, 신동엽⁴⁹⁾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문구⁵⁰⁾, 이호철과 최인훈⁵¹⁾, 황석영⁵²⁾과 김지하⁵³⁾, 고정희⁵⁴⁾에 관한 탈식민 연구가 이어졌다.

탈식민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탈식민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체험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화 제국주의⁵⁵⁾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개가 현실비판을 담은 작가나 문학작품에 치중되었으며,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입장에서 보여지듯 문학적 사유의 비유연성을 드러내면서 친일과 저항, 식민과 탈식민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문학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여덟 번째로 계몽과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에서 소외된 타자의식을 살핀 연구를 들 수 있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제국주의 담론의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타자의 의미를 제한하였다. 즉 ‘일본, 이성, 문화인, 지배국, 근

44) 하정일,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과 이식논리」, 『한민족어문학』 제42호, 2003, 6.
 배개화, 「1930년대 후반 전통 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서준섭, 「한국 근대 시인과 탈식민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제 13호, 한국시학회, 2005, 8.

45) 이수라, 「채만식 소설 연구-식민성과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2004.

46)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한민족어문학』 제43호, 2003 12.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현대소설연구』 제 18호, 2003. 6.

47) 임경옥, 「김수영 시의 탈식민주의」,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48) 박종덕, 「김남주 시의 탈식민성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5.
 노철, 「김남주 시의 담론 고찰」, 『상허학보』 제 14집, 2005, 2.

49) 김석영, 「신동엽 시의 탈식민성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9.
 김석영, 「아나키즘의 시 정신과 탈식민성-신동엽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제81호, 2003, 9.

50) 고인환,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3.

51) 구재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한국 인문학연구』 제 13집, 2004, 12.
 장현, 「1960년대 한국 소설의 탈식민적 연구-이호철, 최인훈, 남정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카톨릭대 박사 논문, 2005.

52) 고하영,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53) 박명진, 「1970년대 화곡의 탈식민성-김지하와 황석영의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 12집 2000, 12.

54) 이명규, 「고정희 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55) 문화제국주의란 토착문화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제국의 문화가치나 관습을 고양시키고 또 확산시키려는 정치력과 경제력의 효용을 통칭한다. (쥘 톰린스, 강대인 역, 『문화제국주의』, 나남출판, 1994, p. 21 참조)

56)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숲, 1999.
 이명규, 「고정희 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천영숙, 「1930년대 오장환 시의 근대의식 연구」, 한남대 박사논문, 2005.

대'의 주체와 '조선, 비이성, 피지배국, 비근대인'의 타자라는 제국주의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⁵⁷⁾ 또 연구의 대부분이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리얼리즘 경향이 강한 소설과 시에 편중되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개별 시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기림에 대한 연구는 김기림 시론에 관한 연구⁵⁸⁾와 시 작품에 관한 연구⁵⁹⁾로 크게 양분된다. 이는 김기림의 시론과 관련하여 스티븐 스펜더의 수용에 관한 비교문학적 연구⁶⁰⁾와 '과학적 시학'과 관련하여 리차즈 이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⁶¹⁾로 나눌 수 있다. 또 구인회에 관한 연구⁶²⁾와 김기림 문학의 도시체험에 관한 연구⁶³⁾, 이미지 연구⁶⁴⁾, 근대성에 관한 연구⁶⁵⁾와 화자의 변화양상⁶⁶⁾ 및 모더니즘 화자

57) 천영숙, 위의 논문, p. 6.

58)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3.

김인환, 「김기림의 시론」,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0.

김인환, 「김기림의 批評」, 『김기림』, 정순진 편, 새미, 1999.

김윤식, 「모더니즘의 한계」,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김윤식, 「전체시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시태, 「기교주의 논쟁고」, 『논문집』 8집, 제주대, 1976.

김윤태, 「한국 모더니즘 시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정순진, 『김기림 비평 이론 고찰』, 위의 책.

문혜원, 「김기림 시론에 관한 고찰」,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서지라, 「김기림 시론 연구」, 대구 카톨릭대 석사논문, 2001

오세영, 「과학으로서의 시학과 새로운 시」, 『한국현대시인연구』, 월인, 2003.

59) 최재서, 「現代詩의 生理k 性格」, 『文學k 知性』, 인문사, 1974.

박상천, 「기상도 연구」, 『한국학논집』 6,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60) 김용직, 「한국시의 스티븐 스펜더 수용」, 『한국근대문학론고』, 서울대출판부, 1985.

문혜원, 「김기림과 스티븐 스펜더의 비교문학적 고찰」,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61) 송 옥, 「한국모더니즘 비판」, 『시학평전』, 일조각, 1963.

한계전, 「모더니즘 시론의 수용」,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83.

서준섭, 「한국 현대문예비평사에 있어서의 시비평 이론 체계화 작업의 한 양상」, 『비교문학 및 비교 문화』 제 5집, 한국비교문학회, 1980.

김유중, 「김기림의 과학적 시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57) 신범순, 「김기림에 있어서 여행의 정열에 대하여」, 『관동문학』 제 5집, 1992.

신범순, 「도시거리의 작은 축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신범순, 「1930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 자아'의 군중, '기술'의 의미」, 위의 책.

62)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김시태, 「구인회 연구」, 『논문집』 7집, 제주대, 1976.

서준섭, 「구인회와 모더니즘」,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63) 임영선, 「김기림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4.

64) 김창수,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김 이미지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1.

로서 시각체계에 관한 연구⁶⁷⁾, 그리고 표현층위와 내용층위를 담은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⁶⁸⁾가 있다.

그러나 김기림에 대한 이제까지의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새 것 콤플렉스와 현학주의, 대부분 근대 도시적인 풍속과 관련된 관념적이고 표층적인 현실 인식에 주목하고 있다.⁶⁹⁾ 또 대부분의 연구가 그의 시론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모더니즘 시론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작품에 반영된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상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1930년대 모더니즘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의 시를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의 성격으로 이해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⁷⁰⁾ 또 이상의 삶에 대한 전기적 이해와 함께 작품과의 연관성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⁷¹⁾ 그리고 근대성과 관련하여 이상 문학을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

-
- 전미향, 「김기림 시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정정해, 「김기림 시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3.
- 65) 엄성원,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비유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2.
지언호, 「김기림 시론 연구」, 성균관대 석사 논문, 2003.
- 66) 박순원, 「김기림 시 연구-화자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2
67) 정운선, 「한국 모더니즘 시 화자의 시각체계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4.
68) 김윤정, 「김기림 문학의 담론 연구-주체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4.
69) 고명수, 「김기림론」, 『한국모더니즘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0. p. 42.
70) 김중은, 「이상의 理想과 異常」, 『문학사상』, 1973, 7.
구연식, 「다다이즘과 이상문학」, 『동아논총』 4, 1968. 4.
추은희, 「쉬르레알리즘에 비쳐본 상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73, 7.
조두영, 「이상 초기 작품의 정신분석」, 『신경정신의학』, 1977, 2.
이규동,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 『월간조선』, 1981. 6.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이창배, 「모더니스트로서 이상」, 『심상』 18, 1985.
이승훈, 『이상 시연구』, 고려원, 1987.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이재복, 「이상 시에 나타난 다다이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 18, 2000, 12.
- 71) 임중국, 『이상전집』, 태성사, 1956.
고 은, 『이상평전』, 민음사, 1974.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윤식, 『이상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김윤식, 『이상문학전집』, 문학사상사, 20001.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 『문학사상』, 1986, 11.
권영민,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정규영, 「이상문학의 초의식심리학」, 『현대문학』, 1973. 7-9월호.
오규원, 『거울 속의 나는 외출중』, 문장사, 1981.
이규동,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 『월간조선』, 1981. 6

니즘의 해체적 접근을 통해 해명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⁷²⁾ 그 밖에도 이상 시의 구조를 해명한 연구⁷³⁾와 이상 시의 시적 언어에 주목한 연구⁷⁴⁾ 및 글쓰기와 수사학에 관련된 연구⁷⁵⁾가 있다. 또 시간과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⁷⁶⁾와 그로테스크한 성격에 주목

이성모, 「이상문학의 존재론적 연구-죽음의식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87.

김승희, 「이상시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1.

한경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내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2.

72) 김용직,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4.

문덕수, 『한국모더니즘시연구』, 시문학사, 198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오세영, 「한국모더니즘 시의 전개와 그 특질」,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0.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연구』, 일지사, 1988.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미적 자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최혜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문홍술, 「이상문학에 나타난 주체분열과 반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고명수,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세계인식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94.

엄성원,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비유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2.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0.

김현호, 「이상 시연구-이상의 해체의식과 그의 시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2.

우재학, 「이상 시 연구-탈근대성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1998.

김윤정, 「이상 시에 나타난 탈근대적 사유」, 서울대 석사논문, 1999.

73) 이승훈, 『이상 시 연구』, 고려원, 1987.

김정은, 「오감도의 시적 구조」, 서강대 석사논문, 1981.

권혁웅, 「이상 시의 비유적 구조」, 『시적 언어의 기호학』, 새미, 2001.

74) 김현, 「구체시로서의 이상시」, 『공간』, 1969, 1.

김열규, 「현대의 언어적 구제와 이상문학」, 『지성』, 1972, 2.

구인환, 「기법의 부정과 혁신-기법으로 본 이상론」, 『국어교육』 18-2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12.

김종길, 「무의미의 의미」, 『문학사상』, 1974, 4.

김상태, 「부정의 미학-이상의 문체론」, 『문학사상』, 1974, 4.

추은희, 「이상과 太宰治 문학의 비교연구-부정과 파괴의 미학」, 『한국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3, 9.

김춘수, 「이상의 시 형태」, 『김춘수 전집』2, 문장사, 1984.

이승훈, 「이상시의 기법분석」, 『한국학논집』 13, 한양대 한국학 연구소, 1988, 2.

75) 최미숙, 「한국 모더니즘 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이상과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7.

원명수, 「이상시의 형식에 대한 재검토」, 『한국학논집』 13호, 중앙대, 1978.

김승희, 「접촉과 부재의 시학-이상 시에 나타난 거울의 구조와 상징」, 서강대 석사논문, 1981.

구인환, 「기법의 부정과 혁신」, 『국문학논문선』, 민중서관, 1977.

한지현, 「반어법의 성격과 작가의 서선」, 『국어국문학』 64, 1974, 9.

김인환, 「반어의 개념」, 『세계의 문학』 22호, 1981, 겨울.

우정권, 「이상의 글쓰기 양상」, 서울대 석사논문, 1993.

서영채, 「이상 소설의 수사학과 한국문학의 근대성」,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김상욱, 「이상의 날개 연구-아이러니의 수사학」,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9.

이태동, 「자의식의 표백과 반어적 의미-날개를 중심으로」,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김주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유티즘의 수사학」, 『이상소설연구』, 소명출판, 1999.

고석규, 「반어에 대하여, 이상의 시와 반어적 의미-난해성 자체가 예술인 이상의 작품」, 『문학사상』, 1997, 10.

한 연구⁷⁷⁾가 있으며, 이상 시의 타자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⁷⁸⁾와 이상소설의 탈식민성에 주목한 연구⁷⁹⁾가 있다. 여기에서 이상의 타자적 자의식을 연구한 이원도의 논문은 다소 논리적 전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상 문학의 절망적 타자성과 소외의식에 에로티시즘의 양면성으로서 육체적 타자성과 연관하여 해명하였다. 이어 나병철은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상의 소설을 모던 도시의 건축 해체 욕망, 즉 탈주욕망으로 이해하고 첨단 모던과 19세기적인 것이 뒤섞인 식민지적 잡종성의 정체성에 기인하여 이상 문학의 혼종성을 연구하였다.⁸⁰⁾

이상 문학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이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은 이상 문학의 현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문학은 한일 근대문학의 연관관계 속에서 탈식민적 글쓰기와 연관하여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김기림과 이상과 같은 시인들의 언어를 제국언어였던 일본어의 인공어 개념⁸¹⁾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언어가 담고 있는 문학적 담론의 성격이 근대의 담론계와 연관된 것으로 평가하였다.⁸²⁾ 따라서 이상 문학에 나타난 이중 언어의 문제⁸³⁾와 기호에 관한 그의 시적

신주철, 「이상 시에 드러난 운명의 아이러니」, 『한국어문학연구』 16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2, 9.

신주철, 『이상 시와 김수영 시의 아이러니』, 박이정, 2003.

박의상, 「만해시와 이상시의 아이러니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85.

김창원,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아이러니 연구-이상 시와 김수영 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87, 2.

황도경, 「존재의 이중성과 문체의 이중성-이상소설의 문체」, 『현대소설연구』 1, 1994, 8.

이경훈,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박현수, 「이상 시학과 전원수첩의 수사학」, 『한국학보』 103, 2001, 6.

박현수, 「이상 시의 수사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장석원, 「이상 시의 과학과 多聲性-선에 관한 각서 연작을 중심으로」, 『이상리뷰』, 2003, 하반기.

김지녀, 「이상 시의 아이러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한세정, 「이상 시의 어법적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5.

76) 김준오, 「자아와 시간의식에 관한 소고」, 『어문학』, 33, 1975.

염 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김은자, 「한국 현대시의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김소월, 이상, 서정주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1986.

오동규, 「이상 시의 공간의식」, 중앙대 석사논문, 1994.

엄성원,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김기림, 이상, 정지용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1997.

77) 김승희, 『이상시연구』, 보고사, 1998.

이윤경, 「이상 시의 변형체계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3.

78) 이원도, 「이상 시의 타자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04.

79) 나병철, 「우리 근대문학의 창조와 혼성성」,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80) 나병철, 위의 책, pp. 136-137 참조.

81) 김윤식, 「인공어로서의 일본어」,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82) 김윤식, 『이중어 글쓰기와 역사성,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40-41 참조.

발상은 식민담론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더욱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백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생애와 관련하여 전기적 고찰에 관한 연구⁸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접근으로 식민지 시대 민족과 고향상실에 관한 연구⁸⁵⁾와 유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적·향토적 세계에 주목한 연구⁸⁶⁾, 식민지 하의 유랑의식에 주목한 연구⁸⁷⁾, 1930년대 시의 가족모티프 연구⁸⁸⁾, 1930년대 한국 시의 감각지향성 연구⁸⁹⁾ 및 공간에 주목한 연구⁹⁰⁾와 시간의식에 주목한 연구⁹¹⁾, 공동체 의식에 주목한 연구⁹²⁾가 있다. 이 밖에도 1930년대 서구 상징주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⁹³⁾와 백석 시의 리얼리즘 성격에 주목한 연구⁹⁴⁾, 1930년대 담론에 관한 연구⁹⁵⁾ 및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⁹⁶⁾와 이와 관련하여 자기동일성⁹⁷⁾ 및 주체의 욕망체계

83) 이 밖에도 식민지의 이중언어 문제에 주목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명인, 『근대화 과정과 시적 대응, 시어의 풍경』,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박태일, 「근대언어와 이중의 혼종경험」,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조영복, 「1930년대 시의 방언과 모국어의 정신 형성」, 『1920년대 초기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최정례, 「1930년대 시어, 한국어와 자연어의 구도」, 『한국시학연구』 제 13호, 한국시학회, 2005.

84) 정효구, 『백석』, 문학세계사, 1988.

송 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1, 지나, 1994.

박혜숙, 『백석』,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김자야 『내 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85) 유중호, 「한국의 폐시미즘」, 현대문학, 1961, 9월호.

김종철, 「30년대의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이동순,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 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7.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성과 운명애의 진실미」, 한국문학, 1989, 10.

나명순, 「백석 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86)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늘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김열규, 「신화와 소년이 만나서 일군 민속시의 세계」, 이선영 편,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고형진, 「백석 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3.

87) 김병호, 「한국근대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1.

88)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박은미,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모티프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89) 류경동, 「1930년대 현대시의 감각지향성 연구-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5.

90)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1.

장정렬, 「백석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1.

91) 심재휘, 「1930년대 후반기 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7.

92) 고형진, 「백석 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3.

93) 박노균, 「1930년대 한국시에 있어서 서구 상징주의 수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94) 최두석, 「한국 현대 리얼리즘 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95) 김란희 『백석 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96) 이은봉, 『한국현대시의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1993.

최정례, 「백석 시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를 분석한 연구98), 근대 윤리적 개인주의에 관한 연구99) 등이 있다.

창작방법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미지즘과 서사성의 결합으로 본 연구100), 이야기체의 시적 원리에 주목한 연구101), 전통시가에 나타난 율음의 기법에 주목한 연구102), 시의 구성원리로서 열거식 병렬기법에 주목한 연구103)와 반복기법에 주목한 연구104), 백석 시의 서술적 표현과 서사적 리듬에 주목한 연구105), 그리고 모더니즘의 언어 표현에 있어서 문체 특성에 주목한 연구106), 원전비평적 연구107), 식민지하 이중 언어의 문제를 통해 근대 지향의 인공어와 자연어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시적 언어에 주목한 연구108)를 들 수 있다.

백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1980년대 이후, 백석의 시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양분된 시각에서 모두 거론될 만큼 민족적 주체성의 입장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시인’이라는 평가처럼 작품의 내적 이해보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거대 담론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 모더니즘시사와는 무관한 시인으로 별도로 분류되기도 하였다.¹⁰⁹⁾

본 논문에서 모더니즘 시사에서 별도로 다루어졌던 백석 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의 시를 탈식민적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의 타자성을 통해 연구하려는 것은 그의 시가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편입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고, 어떠한 외부적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타자성의 자아를 통해 탈식민 공간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의

97) 박민영, 「1930년대 시의 상상력 연구-정지용, 백석, 운동주의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림대 박사논문, 2004.

98)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주체의 욕망체계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5.

99) 이황직,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헌에 관한 연구-정인보, 함석헌, 백석, 운동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1.

100) 최두석, 「1920년대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82.

101) 김윤식, 「허무의 늪 건너기」, 『한국현대시론 비판』, 일지사, 1993.

102) 김현선, 「한국 詩歌의 율음과 백석 시의 변용」, 『한국현대시인연구』, 신아, 1988.

103) 정효구, 「진솔한 삶의 공간」, 『현대시』, 1990, 5.

104) 이경수, 「한국 현대시의 반복 기법과 예술구조-백석, 이용악, 서정주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논문, 2002.

105) 고흥진, 「1920-30년대 서사지형성과 시적 구조」, 고려대 박사논문, 1991.

106) 고명수, 「모더니즘과 문체-백석론」, 『한국 모더니즘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0.

107) 김지나, 「백석 시의 원전비평적 연구」, 서울여대 박사논문, 2005.

108) 최정례, 「1930년대 시어, 인공어와 자연어의 구도」, 『한국시학연구』 제 13호, 한국시학회, 2005, 8.

109) 최정례는 이승훈의 『한국모더니즘 시사』를 비판하면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를 정지용, 김광균, 장만영, 이상, 오장환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고, 모더니즘 시사에서 백석이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최정례, 「백석시의 근대성 연구」, 위의 논문, p. 14)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더니즘 시사에서 백석의 시는 타자성의 발견이라는 견지에서 주체의 동일성 사유에 편입되지 않는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을 탈식민적 관점에서 타자성에 주목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연구사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제까지 한국현대문학사 연구에 있어서 모더니즘에 관한 전반적인 시각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작품 외적인 현실과 미학적 관계를 조망하면서도 작품분석을 통해 모더니즘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서양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실패한 모더니즘이라는 평가를 극복하고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의의를 재발견하려는 것이다.

3. 연구방법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타자성과 연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적 표상으로서 주체에 관한 철학적 전통을 재사유해야만 할 것이다.¹¹⁰⁾ 이에 본고는 주체의 동일성 사유를 비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즉 제국주의 담론이 주체의 동일성 사유를 통해 구축된 것임을 비판하고 제국주의 담론이 구축된 역사적 과정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체계와 연관된 현실독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제국주의 담론 구조로서 인식함으로써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하여 식민담론을 형성한 역사적 구축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또 연구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타자성을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탈식민적 저항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식민공간에서의 상상적 타자성의 용어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¹¹¹⁾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조선·야만·비근대라고 하는 도식적인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상상적 타자성을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해명함으로써 식민담론의 타자의 위치를 비판하려는 것이

110) 흔히 타자의 대표적 표상인 이방인들은 그 이질성과 낯설음으로 인하여 ‘괴물’과 ‘신’이라는 극단적인 표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 시대나 공간을 지탱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은 낯설음과 두려움의 양가성, 즉 그로테스크한 공포를 통해 소거되는 방식으로 사유되었다. 소거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사유는 주체 사유가 중심에 놓이게 된 근대 이후, 동일성의 철학적 전통 내에서 프로이트에 의한 무의식의 발견과 같이 동일성의 주체를 위협하는 비판적 사유를 통해 주체의 사유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탈식민의 관점에서 타자성을 통해 연구하는 것은 동일성 담론에 의해 소외된 이러한 타자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개인성의 위기 속에서 주체 욕망에 몰입되지 않는 모더니즘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근대 동일성 담론을 제국주의적 주체 사유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근대 주체를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연관하여 살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타자성 개념에 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원, 2004, pp. 15-18 참조)

111)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타자성을 밝히기 위해 본 논문은 타자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즉 타자를 근본적으로 주체의 동일성 사유에 편입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으로 이해하려는 레비나스 등의 철학적 사유와 주체의 동일성의 반영 혹은 이와 관련된 타자로 이해하는 ‘상대적 타자성’의 차이를 수용하고, 타자성의 문제를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타자성, 즉 식민지의 타자의 위치에 포섭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성’의 용어로서 저항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때 타자성의 문제에 ‘상상적’이라는 특성을 부여한 것은 식민공간 속에서 자아가 ‘절대적 타자성’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때문이다. 왜냐하면 식민공간 속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측되지 않는 타자성이란 문학에서 상상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타자성과 관련하여 레비나스와 낭시, 블랑쇼 등등 현대 철학자들의 대안이 희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유되기에 불편한 것은 주체의 동일성 사유에 의해 타자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즉 근대 주체의 성립 이후 타자성은 현실변혁의 의지로서 작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리스 블랑쇼·장 퉁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 지성사, 2005 참조)

다.

그리고 연구의 토대로서 모더니즘의 기원을 통해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가 제국주의의 공간욕망과 연관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즉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에 관한 천착이 제국주의 영토확장과 같은 공간욕망과 연관된 것임을 밝히고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의 천착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제국주의 담론이 식민지적 타자화의 과정을 통하여 식민담론을 구축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대한 천착을 드러내는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려 한다. 즉 모더니즘의 공간욕망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1930년대 김기림, 이상, 백석 시인의 상상적 타자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 가운데 김기림, 이상, 백석의 세 시인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시인들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연관된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에 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 세계를 상상적 타자성의 입장에서 연구하기 위해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그리고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측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그 형식적 기법에 있어 각각의 언어관과 연관된 것¹¹²⁾이라고 판단하고 언어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저항한 김기림, 이상, 백석의 모더니즘의 언어관을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상상적 타자성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기림의 시적 언어를 ‘사변의 언어’로 명명하고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대문학이라는 문학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주체로 성립시키고자 했던 김기림 시의 상상적 타자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탈식민의 거리감과 사변의 언어,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한 김기림의 시를 식민공간에서의 벗어나기 위한 탈식민의 과정으로

112) 미적 자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모더니즘은 매체의 자율적 기능을 중요시하며, 기술의 독자적인 활동을 우선시한다. 이때 기술이란 언어 사용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더니즘 문학에 있어서 언어의 작위적 구성과 작가의 주관적인 제작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모더니즘 문학의 문체적 측면은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작가의 세계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고명수, 『한국 모더니즘 시인론』, 위의 책, p. 260 참조)

이해하고 이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또 제국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한 이상의 언어를 ‘차이의 언어’로서 명명하고, 이상의 시를 탈식민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즉 식민 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하고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의 구조적 장을 해체하고자 했던 이상의 언어를 ‘차이의 언어’로 명명하고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탈식민의 타자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모더니즘시사와는 별도로 민족 시인으로 분류되었던 백석의 시를 모더니즘 문학의 전통 속에서 연구함으로써, 근대 풍경과 근대의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여 식민 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고자 했던 백석의 시를 메를로퐁티의 ‘침묵의 언어’로서 명명하고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탈식민의 서사로서 백석의 시를 상상적 타자성의 발견을 통해 해명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이분법적인 풍경과 언문일치의 근대어, 그리고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편입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성의 자아를 구현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때 본 논문은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를 연구하기 위해 각각 기본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참고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김기림, 『김기림전집』, 심설당, 1988/ 이승훈 편, 『이상시전집』, 문학사상사, 1993/ 송준 편, 『백석시전집』, 학영사, 1995.

그리고 해방 후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을 발견한 김기림 시의 변모과정을 193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상상적 타자로서 그가 발견한 민족의 의의를 해명하기 위해 부득이 해방 후 납북되기까지의 창작과정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또 월북 후에도 계속 꾸준한 시를 창작한 백석의 시를 북한 정권 내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순문학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해명하고 시적 자아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를 비판하고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을 새롭게 연구하려는 것이다. 즉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상적 타자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더니즘의 다양한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한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모더니즘시사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려는 것이다.

II. 모더니즘과 상상적 타자성의 발견

1. 모더니즘의 공간욕망과 식민지적 타자화

모더니즘이란 용어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광범위한 내용을 함의한 것이다. 특히 근대적 예술양식인 모더니즘을 모더니티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할 때, 모더니즘은 다양한 현대성의 특성들을 반영, 혹은 역반영하면서 통일된 전망이나 단일한 실체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모더니즘에 관해 어떠한 일치된 미학적 실체도 드러내지 않는 것¹¹³⁾이라거나 혹은 모더니스트의 수만큼 다양한 모더니즘이 존재한다¹¹⁴⁾라는 이해와 같이 모더니즘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모더니티를 사회과학적 용법과 미학적 용법으로 분리하여 사회·역사적 모더니즘과 미적 모더니즘으로 양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토대를 예술의 핵심적 원리로서 강조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⁵⁾ 본 연구에서 모더니즘의 기원을 통해 모더니즘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모더니즘의 역사적 기원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역사적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 예술의 미학적 욕망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함의하는 것이었다.¹¹⁶⁾ 이기심의 출현과 상업주의의 발달, 인간의 영혼과 실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정신과 마음을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심리학의 경험적 요소 등이 중시되면서, 모더니즘 예술은 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낭만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전망을 지향하는 모더니티의 경험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13) 유진 런,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 지성사, 2000, p. 45.

114) M. 칼리네스쿠, 이영옥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1998. P. 92.

115) 왜냐하면 모더니티라는 용어가 사회과학적인 용법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역사적·사회적 모더니티가 항상 부르조와적인 가치관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학적 모더니티의 경우도 일관되게 반부르조와적인 노선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유중, 『1930년대 후반기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 연구』, 위의 책, p. 27 참조) 따라서 사회·역사적 모더니즘과 미적 모더니즘으로 양분하여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회·역사적 토대를 강조함으로써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양식의 출현이 반드시 시대성의 요구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층위의 결합 속에서 중층적으로 파생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현실논리와 연관된 것이지만, 동시에 현실 논리와 위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6) Art Berman, 위의 책, p. 5 참조.

이러한 특성은 모더니즘 예술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이러한 이질성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은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미학적 성격을 지향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모더니티의 합리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학사에서 모더니즘은 리얼리즘의 전통에 반하는 주관적이고 형식미학적인 예술로서 평가되어 왔다. 모더니즘의 기원으로서 모더니티의 물질적 욕망과 연관된 이러한 이해 없이 단순히 그것을 리얼리즘에 반하는 미학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근대에 대한 미적 비판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에 대한 가치를 다소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결과를 파생시켰다.

모더니즘을 제국주의 팽창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즉 미적 가치의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현실 재현을 거부하고 예술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공간미학을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모더니즘의 공간성은 미학적 공간을 지향하는 특성 외에도 물질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근대적 공간 욕망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세계는 연속적이며 통일적인 절대공간의 원리였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에서 벗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같은 새로운 공간 원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진리로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공간 원리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간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국주의 공간욕망을 증동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과학에 있어서 지정학의 등장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공간 팽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행동반경과 시야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문화의 발전단계가 낮은 민족은 공간적으로도 작다'라고 하는 민족의 운명과 공간확장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나아가 이는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의 진전'이라는 제국주의의 불문율이 되었다. 이때 제국주의의 공간욕망에 이론적 토대가 된 라첼의 <국가의 공간적 성장법칙>과 <정치지리학>은 당시 만연해있던 진화론에 영향을 입어 국가의 성장을 '유기체'의 유비적 관계를 통해 해석하였다. 이어 성장을 위해 국가는 해안선, 천연 자원 같은 값진 부분들을 취하기 위해 고등한 문명에서 하등한 국가 쪽으로 외부로 통한 영토 확장의 길을 강화하였다.¹¹⁷⁾

인간 실존의 전제조건으로 필연적인 역사적 구축과정¹¹⁸⁾을 내세운 하이데거의 실존

117) 스티븐 켄, 위의 책, p. 542-543 참조.

사상과 정치 행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동기로서 절대적 적의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히틀러의 나치즘에 사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부여했던 칼 슈미트의 법철학¹¹⁹⁾ 등 일련의 철학적 사유와의 공모를 통해 파시즘은 구축되었다.

제국주의는 공공연하게 실존 철학적 배경 속에서 공간욕망을 정당화하는 사유와 공모하였는데, 이때 모더니즘은 물질적인 전망을 지향하는 모더니티의 경험주의적인 특성, 즉 근대적 공간성에 관한 천착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적 공간성과 연관된 모더니즘의 공간욕망과 제국주의 담론은 둘 다 근대적 공간성에 관한 천착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국주의 파시즘은 근대 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근대적 공간성에 관한 문명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즉 선진된 문명의 주체로서 제국주의는 미개한 문명을 개화시킨다는 문명의 사명을 통하여 타민족의 영토를 침략하고 공간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아가 데카르트적 주체 사유와 함께 세계는 점점 더 공간성이 지배하는 양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기계화와 분업화가 촉진되면서 점점 더 인간은 공동체적인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¹²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사정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예술적 태도를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제국주의 담론은 공공연하게 근대적 공간성을 표방하면서 모더니즘 문학을 제국주의 담론과 담론 언어를 통해 식민지에 번역·소개하였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체험과 제국의 언어를 통해 모더니즘은 근대문학, 즉 이전까지의 문학적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학적 표상으로서 식민지 조선에 수입되었다.

모더니즘을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모더니즘의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요소, 즉 모더니티의 욕망을 내면화함으로써 근대적 공간성에 관한 천착과 근대인에 편입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은 서양의 제국주의 담론인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여, 일본의 아시아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식민담론을 형성하였다. 즉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동일화 과정을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식민담론은 서구와 비서구를 주체와

118) 마크 필라, 위의 책, p. 25.

119) 마크 필라, 위의 책, p. 75 참조.

120)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p.32

타자로 설정하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여, 낙후된 아시아에 대한 문명의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를 아시아적 주체로 삼았다. 즉 선진된 근대 체험과 제국의 언어적 서열화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담론은 문명의 논리를 통해 피식민지 조선의 언어와 전통을 낙후된 것으로 비하해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근대 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식민지인들을 타자화하였는데 식민지 조선은 식민지적 타자화 속에서 낙후된 타자의 정체성으로 지시되었다. 이때 ‘식민지적 타자화’란 자아의 타자화라고 하는 계몽의 주체 공리¹²¹⁾를 제국주의 논리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즉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로 표상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간 자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특정한 사람과 개념, 인식들을 야만인과 괴물과 같은 것으로 표상함으로써 그것들을 타자화시켰던 것이다.¹²²⁾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를 통하여 조선은 비이성·비근대·야만인과 같은 타자의 위치에서 지시되었으며, 식민담론은 문명의 사명을 이러한 타자화의 논리에 세움으로써 문화의 차이를 통해 식민지 영토확장과 같은 공간지배를 넘어 피식민지인의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담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였다. 김기림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도시와 소비생활면에서 「쇼윈도」처럼 단편적으로 진열되었을 뿐’¹²³⁾이라고 말한 모더니즘의 수용은 이와 같이 가시적인 근대 풍경을 지향하면서 근대감각을 추종하였다.

그런데 전통과 단절하고 모던한 신감각을 내세운 모더니티의 공간성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상적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즉 피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망각하고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근대라는 상상을 통해 유사합리성의 세계를 욕망함으로써 근대 세계에 대한 모방과 천착을 낳았던 것이다.¹²⁴⁾

121) 아도르노는 ‘계몽의 신화화’를 비판하면서 계몽이 스스로를 주체로 표상하기 위해 자연을 타자화시키는 계몽적 관계맺음을 비판한다. 그런데 계몽이 확대됨에 따라 타자화는 신과 자연을 소외시키던 단계에서 나아가 점차 인간관계에서도 성립된다. 즉 주체의 동일성 사유에 예속되지 않는 인간을 이방인이나 괴물, 야만인과 같이 타자화시킴으로써 주체로서 계몽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타자성을 ‘자아의 타자화’라고 하는 계몽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이러한 서양의 주체 사유와 공모해 식민지 영토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위의 책, pp. 121-122참조)

122) 스티븐 모튼 저, 위의 책, p. 76 참조.

123)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p. 54.

124) C. Castoridis, 『The Imaginary I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pp. 157-158.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구인회> 회원들이 모더니즘 문학이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근대적 세계에서 멀어져 가는 문학적 편력을 밟았던 것과 연관된다. 예를 들면 이효석은 도시의 타락한 풍속에 등을 돌리고 원시적 자연과 본능의 세계에 몰두했으며, 박팔양은 도시인의 멜랑콜리에서 자연의 건강한 생명력으로 시적 관심을 바꾸게 된다. 또 예술적 세련성에 대한 집념을 제외하면 애초부터 모더니즘에 공감할 소지가 적었던 이태준은 고서 애독자, 골동 애호가로 자처했고, 근대 문명의 인상에 매료되었던 정지용은 산수시의 전통에 침잠했으며 『천변풍경』 이후의 박태원은 그 스스로 ‘고현학’이라 불렀던 미학적 자의식을 견지하지 못하고 평면적인 세태관찰에 안주했다. 즉 1930년대 말엽 <구인회> 회원들의 이러한 변모는 그 각자의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모더니즘이 문학 활동을 하나의 통일된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구심점이기를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⁵⁾

그러나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이 장벽에 부딪친 것은 단지 모더니즘이라는 미학적 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물질적인 욕망과 연관된 모더니티의 공간성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모더니티의 공간성을 지향하던 종래의 태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⁶⁾

그런데 이러한 <구인회> 회원들과는 달리, 김기림, 이상, 백석의 모더니즘 시인들은 일찍이 모더니티의 공간성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러한 공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모더니즘 문학을 구현해나갔다. 즉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은 모더니티의 공간성을 제국주의 담론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식민담론의 공간 욕망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타자성을 통하여 모더니즘¹²⁷⁾을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더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미적 모더니즘과 사회·역사적 모더니즘

125) 황중연, 「한국 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1, pp. 5-6.

126) 이때 모더니스트들의 이러한 태도를 근대의 파국을 경험한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파행적인 근대를 경험하면서 모더니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의 이러한 태도를 세계사적 흐름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화의 논리를 추수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의 이러한 전향은 모더니즘의 물질적인 욕망으로서 모더니티의 공간성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임을 자각하고 이를 반성하게 된 지점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7)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은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모더니티와 공모한 제국주의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각각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으로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제국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으로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음을 의미한다.

이라는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본주의 표상으로서 도시성과 모더니즘의 연관관계를 해명한 버만식의 모더니즘¹²⁸⁾에서 한층 더 나아가, 근대적 공간성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을 탈식민의 입장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2. 상상적 타자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모더니즘 문학을 해명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공모한 모더니티의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타자성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탈식민의 입장에서 타자성이 중요한 것은 타자성이야말로 식민담론과 탈식민의 가장 확실한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즉 탈식민적 관점에서 타자성이란 식민담론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이 식민지적 타자화의 과정을 통해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⁹⁾

그런데 이때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타자성이란 상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민 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화’하는 것은 라캉의 상징계의 법¹³⁰⁾처럼 주체 용인의 기체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식민의 가능성으로서 '상상적 타자성'을 연구하는 것은 식민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타자성 개념에 저항하는 새로운 타자성을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 근대 문학의 흐름은 일본의 제국주의 담론을 파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진된 세계와 근대에 대한 경험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당대 문화적 풍토로서는 제국주의 담론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양에 의한 제국주의 침탈을 경험하면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해 그것을 역사적으로 구축한다. 근대국민국가를 성립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서양 제국주

128) 고명철은 버만식의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버만식의 모더니즘 해석은 자본주의 발달 정도와 관련하여 근대세계의 안쪽에서만 유의미성을 갖는 것이지, 근대세계를 넘어서는 즉, 근대세계의 바깥을 전망하려는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를 비판한다. (고명철, 『비평의 잉겔볼』, 새미, 2002, p. 17 참조)

129) 호미 바바, 위의 책, p. 337-340 참조.

130) 라캉은 상징계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사회에서 주체로 용인되는 과정을 이해하였는데, 식민 공간 속에서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주체 논리를 수용하는 일인 것이다. (베르트랑 오질비, 김석 역, 『라캉, 주체 개념의 형성』, 동문선, 2002 참조)

의를 내면화하면서 타자화의 과정을 통해 식민담론을 구성하였다.¹³¹⁾ 일본은 민족적 차이를 소거하고 계몽의 기획이 담지하고 있었던 사해동포주의와 인류애, 자유애를 신화화함으로써 보편성으로서 아시아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들어 공동운명체로서의 아시아를 발명해내고, 아시아적인 인류애로서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다. 그리고 조선인도 일본인도 동일한 인류의 일원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즉 내셔널리즘을 통하여 조선을 식민화하였다. 이때 ‘국민’이라는 표어¹³²⁾와 근대에 대한 욕망은 피식민지인 조선인에게 근대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도태되고 낙후된 개인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일본 제국주의 국민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파생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 담론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일본을 통해 근대를 경험한 조선인에게 근대에 대한 환상은 주체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당대의 조선인들은 전대의 가치를 부정하고 제국주의 담론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식민 공간 속에서 자아는 제국주의 담론이 역사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³⁾

주체의 욕망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환상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라캉은 사회적인 환상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한다. 즉 사회에는 항상 사회적 질서로 통합될 수 없는 어떤 적대적인 갈등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의 목적은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¹³⁴⁾ 이때 근대와 국민이라는 표상은 제국주의 침탈 야욕을 은폐하고, 피식민지 조선인에게 주체에 대한 환상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131)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하여 근대를 역사적 사명으로서 이해하였다. 다 이쇼기에는 ‘주객합일’의 표상을 통해 서양의 제국주의를 내면화하였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목격하고 일본은 ‘근대의 초극’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대동아’라고 하는 아시아 침략의 욕망을 재생산해낸다. 일본의 쇼와시기 문예부흥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문학으로 대변되는 절대 타자의 문학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외부적 초월성을 축출하고 주객합일의 다이쇼적인 휴머니즘으로 회귀함으로써, 초월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차이를 소거하여 제국주의 문화담론을 형성하였다.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근대일본의 비평1』, 소명출판, 2002. pp. 37-42 참조)

13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과 개화』를 살펴보면, 그는 ‘문명’, ‘반개’, ‘미개’의 논리에 따라 대일본국의 아시아적 사명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 일본만이 국민의 정신에 있어서 아시아의 고루함을 벗어났다”며 일본국민의 정신을 특권화하고, 국민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제국주의 문명의 논리로 이용하였다. (고모라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3. pp. 58-63 참조)

133) 식민공간에서 자아는 제국주의의 주체담론의 상상과 이미지에 의해 자신이 지배되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C. 카스트리아디스, 양운덕 역, 『사회의 상상적 제도』, 문예출판사, 1994. p. 181 참조)

134)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p. 216-221 참조.

제국주의 담론에서 타자의 담론이 중요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타자의 담론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식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이념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제국주의의 이원구조론을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 대체시킨 것이다.¹³⁵⁾ 즉 지배와 피지배의 차별을 근대 주체에 대한 환상을 통해 은폐함으로써 제국주의는 식민지적 공간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사정도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즉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모더니즘의 기원으로서 낭만주의 예술을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을 지향하는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모더니티의 공간 욕망과 연관된 것이었다. 나아가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문학에 대한 천착으로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타자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관점에서 상상적 타자성을 해명하는 일이다. 즉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근대 언문일치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에 저항하는 모더니즘의 언어관, 나아가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속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해명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언어의 문제는 동일한 생물학적 근원을 표상하는 정체성을 지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정치적·사회적 결속의 표상으로서 권위를 상징한다.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의 언어관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¹³⁶⁾ 탈식민의 관점에서 김기림, 이상, 백석의 모더니즘 시인들에게 각각의 언어관은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과 제국의 언어에 저항하는 저항의 언어인 것이다.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를 사변의 언어, 차이의 언어, 침묵의 언어로서 연구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언어관이 제국주의 담론 질서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변의 언어는 근대 주체를 표방하는 서양철학의 공리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는 이러한 근대 주체 철학의 공리를 이용하여 식민지적 공간성의 문제를 근대적 공간에 대한 환상으로 은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변적 언어는

135) 타자의 담론이 식민 주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를 합법화하는 제국의 인식적 지도를 통해 식민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탈식민의 태도는 친일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식민체험의 역사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식민담론을 형성한 제국주의의 기원과 연관된다.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p. 276 참조)

136) 피터 차일즈 페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pp. 388-389 참조.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근대 주체의 공리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저항의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식민담론은 민족이나 문화적 차이와 같은 차이를 은폐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은폐한다. 즉 선진된 문명으로서 자국의 문화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제국주의는 식민지적 공간성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때 차이의 언어는 제국주의 담론이 강조하는 문명의 논리가 차이를 은폐하여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허황된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근대 주체를 표방하는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하였다. 또 식민담론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식민담론을 형성한 구조적 지형도를 통해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저항의 언어였던 것이다.

제국주의 담론은 근대와 반근대, 중심과 주변, 새로운 것과 낙후된 것,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이분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를 주체화하였다. 그런데 근대 풍경 속에서 근대적 감각의 주체화는 자본주의적 쾌락과 공모하여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소외시킨다. 이때 침묵의 언어는 근대 풍경 속에서 소외된 전통적인 삶의 서사를 통해 소외된 삶의 근원성을 회복하고, 언문일치의 근대어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 말소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하였다. 즉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이분법적 체계를 부정하고 오랜 시간 몸의 경험 속에 용해된 삶의 근원성을 지향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근대 감각적 풍경과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탈식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더니즘의 언어관은 저항의 언어로서 식민지라는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에 예속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성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은 ‘상상적 타자’라고 하는 새로운 타자성의 발견을 통해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편입되지 않는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탈식민적 자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인간형에 예속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시인들의 식민 공간 속에서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더니즘이 언어적 형식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타자성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구현해나가고자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질서가 혼재하는 가운데 식민지의 왜곡된 근대적 질서에 의한 문제점과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문제점¹³⁷⁾을 인식하고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의 추수에서 벗어나 상상적 타자성-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탈식민의 저항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137) 엄성원,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비유 연구」, 위의 논문, p. 14 참조.

Ⅲ. 탈식민의 거리감과 사변의 언어-김기림

김기림은 모더니티의 공간성이 제국주의와 연관된 것임을 이해하고 제국주의 공간성에서 벗어나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명의 논리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파시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 공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대문학과 거리감을 통하여 탈식민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 제국주의 공간성과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라는 시간성을 염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근대에 의해 훼손된 자아와 세계를 회복하여, 나아가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한다. 그런데 식민공간에서 제국주의 담론에 저항하는 그의 시적 탐색은 사변적, 즉 관념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왜냐하면 식민공간에서 자아란 식민지적 타자성의 질서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 변증법에도 불구하고 주체 성립의 염원을 지향하는 그의 시적 탐색은 사변적, 즉 관념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김기림의 시는 탈식민의 거리감과 사변의 언어, 그리고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을 통해 상상적 타자성을 구현해나갔으며 이는 탈식민의 가능성으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1. 근대문학과 탈식민의 거리감

(1) 근대문학과 주체성립의 의지

① 근대문학의 주체로서 과학적 시학

김기림 문학에 있어서 시적 자아는 정신적인 성숙 과정을 이루어가면서도 결코 노쇠해지지 않는다. 그는 시집 『태양의 풍속』을 집필하면서 <어떤 親한 「詩의 벗」에게>라는 글에서 시집의 집필의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를 '1930년 가을로부터 1934년 가을까지의 宿泊簿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來日은 벌써 거기를 떠나고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¹³⁸⁾ 과거와 현재와의 '결별'¹³⁹⁾을 통해 김기림의 시적

138) 김기림, 『김기림 전집』 1, 심설당, 1988. p. 16.

139) 김기림의 시에는 유독 '결별'의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정은 여행을 소재로 쓰인 시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김기림 시적 사유의 특징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해를 위해 다음의 글을 예로 든다. "辱스런 過去와 現在에 대한 끊임없는 訣別-그것은 藝術의 成長을 위한 倫理인 듯도 하다/(중략) 약간의 生理와 未練이라면 우리들의 경쾌한 航海를 위하여 그만 斷念하면 어떨까? 到

자아는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주체로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갱신해나가기 때문이다.

그의 시(문학)는 ‘양식의 혁명인 동시에 「이데」의 혁명’¹⁴⁰⁾이라는 말처럼 과거와의 결별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로서 성립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또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이라는 범주를 교환 가능한 범주로 인식¹⁴¹⁾해 식민지적 타자성의 현실에서 주체 성립의 의지를 지속시킴으로써 타자화된 현실 속에서 피식민지인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현실충위와 미학적 충위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처럼 각각의 범주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지 않았던 당대의 상황 속에서, 김기림은 근대 문학을 통하여 주체 성립이 의지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시 뿐만 아니라, 시론과 수필, 문학비평 등 해박한 문학적 지식의 장을 구현해나감으로써 그는 근대 문학을 통하여 주체성립의 의지를 구현해나갔다. 김기림이 전대의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문학과 사실주의 문학을 부정한 것은 스스로를 근대 문학의 주체로서 성립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그는 낙후된 문학적 타자로서 전대의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문학과 편내용주의 문학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시학의 갱신’을 운운하면서, ‘과학적 시학’을 강조한 것¹⁴²⁾은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문학과 편내용주의 문학을 과학적 시학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때 김기림이 강조한 과학은 물리적 기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인 동시에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³⁾

그런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은 전통적인 가치들과 식민담론의 문화가 혼재하는 양

處에 訣別이 있어야 하겠다. 藝術에 있어서도 人生에 있어서도-이윅고 새로운 來日을 마지하기 위하여 -” <새노래에 대하여> (김기림, 『김기림전집』 1, 위의 책, pp 264-265)

140) 김기림, 「감상에의 반역-시와 인식」, 『김기림 전집』 2, 심철당. p. 73

141) 김기림은 시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로서 경험의 교환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시인은 무엇보다 이 경험의 혼돈 상태를 조화를 이루어가는 질서로 바꾸어주는 재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시의 성립요건을 경험의 교환에서 찾으려는 그의 이러한 사고는 스펀더 스펀서의 시를 옹호하는 김기림의 <전체시>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학적 충위와 현실 충위를 교환 가능한 범주로서 인식한 그에게 근대 문학은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식민지의 소외된 현실 속에서 주체 성립의 의지를 반영한다. (김기림, 「시의 경험의 성립」, 『김기림전집』 2, 위의 책. pp. 222-224 참조)

142) 김기림, 「詩學은 어떻게 갱신될까」,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p. 17-18 참조.

143) 김기림은 과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해한다. 즉 그는 물리적인 기술로서 과학을 추종하기 보다는 새로운 생활태도로서 그것을 이해하였다. “과학은 과학적 방법 위에 선다. 과학-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태도는 일련의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생활태도와 조응한다”(김기림, 「과학과 비평과 시」,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p. 28-29)

상을 보여주었는데, 김기림에게 모더니즘은 현실에 대한 문명감수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⁴⁾ 즉, 과학적 시학으로서 김기림의 시는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현실 인식¹⁴⁵⁾을 위한 문명의 감수와 연관된 것이었다.

그는 무턱대고 눈에 보이는 근대의 화려한 외피만을 추종하여 따라가기 보다는 문명의 감수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였다. 일방적으로 주입된 근대 감각과 근대풍경을 추종하기보다 문명의 감수라는 과학적 시학을 통해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과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김기림의 시적 주체가 센터멘탈 로맨티시즘과 편내용주의 문학을 부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문학이 표상한 폐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현실감각을 부정하고,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이데의 혁명으로서 새로운 문명의 감수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⁴⁶⁾

이를 위해 그는 모더니즘을 통해 스스로를 근대 문학의 주체로서 내세웠던 것인데, 이때 모더니즘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주체성립의 의지로서 그에게 수용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은 낭만주의의 미학적 기원으로서 예술적 태도를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의 물질적 기원으로서 제국주의 담론과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관한 천착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가 “영구한 모더니즘이란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말이다. 다만 그것은 어떠한 역사의 계기에 피치 못할 필연으로서 등장했다”¹⁴⁷⁾면서 모더니즘의 영구성을 부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학적 시학과 결합한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문학을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를 체계화한다. 문학적 특성을 시대성에 주목해 ‘과거의 시’와 ‘새로운 시’로 구분한 것¹⁴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

144)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55)

145) 김기림에게 현실은 고정되고 불변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현실인식을 의미한다. ‘현실이라 함은 주관까지를 포함한 객관의 어떠한 공간적, 시간적 일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회적 一集點이며 교차점이기에 시간적으로 그것은 부단히 어떠한 일점에서 다른 일점으로 동요하는 것’으로서 김기림의 현실인식은 현실변혁의 의지를 의미한다. (김기림, 「시와 인식」,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76 참조)

146) 그는 근대라는 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근대를 모방하고 추종해야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교차점으로서 변화와 역동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 김기림에게 역동성과 건강함, 명랑성의 표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이러한 현실인식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7)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54

148) 「과거의 시」 「새로운 시」

기술의 문제점은 모더니즘 뿐 아니라, 이후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그가 행했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점을 우리문학사에 남긴다. 본 논문에서 한국문학사 연구와 관련하여 근대성에 관한 지나친 천착을 비판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대문학은 근대문학과 대립되는 문학적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근대문학이란 동시대성을 지닌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식민지 경험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유포된 근대성에 관한 천착은 한국문학사에서 근대문학에 관한 천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새것 콤플렉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근대성’의 문제점을 김기림의 문학이 해석하게도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도시와 소비생활면에서 [쇼윈도]처럼 단편적으로 진열되었을 뿐’¹⁴⁹⁾이라는 인식 속에서 김기림은 당대의 모더니즘이 예술적 태도라기보다는 제국주의 담론과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관한 천착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근대문학과 거리감각을 통하여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기림이 근대문학을 통해 주체 성립의 의지를 지향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문명감수의 책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체의 위치를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행했던 식민지 백성인 김기림에게 근대 문학에 관한 천착은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부재하는 민족과 국가를 대신하는 주체 성립의 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을 통한 이러한 주체 성립의 의지는 전근대적인 문학적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는 문학사 기술의 문제점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근대성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은 해방 후에도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많은 논자들에 의해 거듭해서 문학사 기술의 정전(Canon)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문학사 연구에서 근대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

독단적	비판적
형이상학적	즉물적
국부적	전체적
순간적	경과적
감정의 편중	정의와 지성의 종합
유심적	유물적
상상적	구성적
자기중심적	객관적

(김기림, 「시의 모더니티」, 『김기림전집』 2, 위의 책, p. 84)

149) 김기림, 「우리 신문학과 근대의식-30년대의 소묘」,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48.

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근대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타자를 주체의 의지에 의해 점유하는 동일성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식민의 관점에서 김기림의 시를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근대문학에 관한 김기림의 시적 행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탈식민의 입장에서 근대성에 관한 문제점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태양'의 탄생

시집 『태양의 풍속』은 시집 『기상도』(1936, 7)에 이어 1939년 9월 학문사에서 간행된 두 번째 시집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살펴보면 시집 『태양의 풍속』에 실린 시편들은 작품의 제작 발표순을 고려할 때 시집 『기상도』에 실린 시편들보다 제작시기에 있어 대부분 초기시에 해당한다.

시집 『기상도』를 먼저 간행하고, 이어 시집 『태양의 풍속』을 두 번째로 간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시집 『태양의 풍속』은 시집 『기상도』에서의 시적 자아가 세계의 기후 변동을 가늠하는 인식의 풍경을 담은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집 『태양의 풍속』은 「오후의 예의」와 「길에서」, 그리고 「오전의 생리」로 나누어 지는데, 「기차」의 「레일」로 상징되는 「여행」의 과정을 찬양하면서, 「오후의 꿈」에서 떠나 생동감 있는 「오전의 생리」를 지향한다.

이 시집에서 그는 「길」의 여정을 통해 문명의 감수로서 「여행」의 정당성을 밝히고 「오전」과 「오후」라는 대조적 풍경을 통해 낙후된 「오후」의 생리를 부정한다. 즉 「오전」 풍속의 생명력을 「오후」의 생리와 대조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시 <태양의 풍속>에서 「태양」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太陽아

다만 한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비려오마. 나의 마음의 문혀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殿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어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故郷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

나운 風俗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太陽아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宇宙의 湖水와 山과 푸른 잔디밭과 흰 防川에
서 不潔한 간밤의 서리를 훑어버려라. 나의 시내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搖籃을 흔들어 주어라. 너는 나의 病室을 魚族들의 아침
을 다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太陽보다도 이쁘지못한 詩. 太陽일 수가 없는 설어운 나의 詩를 어두
운 病室에 켜놓고 太陽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여가며 기다린
다.

-시 <太陽의 風俗>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의 위치를 지시하는 것은 ‘病室’이라는 시어이다. 그런데 피로하고 고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적 자아에게 ‘太陽’은 ‘어머니’이고, ‘고향’이며 ‘사랑’이고 ‘희망’이다. 이때 ‘태양’이 ‘사랑’이고, 나아가 ‘희망’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미래적인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시에서 ‘태양’은 ‘어머니’와 ‘고향’을 대신하는 동시에 미래의 ‘사랑’과 ‘희망’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태양’은 ‘不潔한 간밤의 서리’를 걷어내고, ‘아침’을 ‘유쾌한 손님’처럼 이끌어오는 건강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과거와 미래를 함의하는 ‘태양’은 시적 자아를 반영한다. 즉 김기림은 ‘태양’의 탄생을 통해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자신을 구현해나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태양’의 탄생은 김기림 시의 기술주의와 연관된다. 즉 김기림은 시의 기술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의 혁명을 시대정신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양식의 변화’¹⁵⁰⁾로서 이해하였다. 이때 ‘태양’은 타자화된 식민지 현실에서 주체 성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체 성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태양’을 지향하면서 김기림은 오전의 시론을 낡후된 오후의 시론과 대비시킴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김기림의 시적 언어가 사변적, 즉 관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150) “시의 혁명은 양식의 혁명인 동시에 「이데」의 혁명이어야 한다. 한 개인의 「이데」가 필연적으로 발전 형성한 특수한 양식을 획득하였을 때 비로소 시의 혁명은 완성되는 것이다.” (김기림, 「감상에의 반역」,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73)

인식하고 탈식민의 가능성을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주체 성립의 의지를 끊임없이 구현해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식민공간에서 주체의 성립은 식민지적 타자성의 질서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식민지적 주체를 부정하려는 부정의 변증법에도 불구하고 주체 욕망을 지향하는 김기림의 시적 탐색은 사변적, 즉 관념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주체 성립을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김기림은 전근대적인 문학으로서 로망티시즘 문학과 봉건주의를 ‘粉 바른 할머니인 十九世紀的 「비너스」’이며, ‘까닭모르는 우름소리, 過去에의 구원할 수 없는 愛着’으로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였다. 즉 이러한 19세기적 ‘疲勞’에 대한 ‘歎息’을 ‘午後의 禮儀’로 인식하였던 것이다.¹⁵¹⁾ ‘오전’과 ‘오후’의 이분법을 통하여 그의 시는 전근대문학적인 타자를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시집 『태양의 풍속』 가운데 「오후의 예의」에 수록된 시 <憂鬱한 天使>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푸른 하늘에 向하여
날지않는 나의 비답이. 나의 절름바리.

아침해가
金빛 기름을 부어놓는
象牙의 海岸에서
비답이의 傷한 날개를 싸매는
나는 오늘도
憂鬱한 어린 天使다.
-시 <憂鬱한 天使> 전문

이 시에서 ‘비답이’가 ‘날지않는’ 까닭에 대해 시적 자아는 그것이 ‘절름발이’이고, ‘傷한 날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나아가 ‘天使’가 ‘憂鬱’한 것 역시 이러한 절망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이때 ‘비답이’의 성격은 시 <태양의 풍속>의 ‘태양’의 성격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비답이’가 불행한 운명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태양’은 이러한 절망적인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시적 자아에게 기다림의 대상이며 주체 성립의 구현물인 까

151) 김기림, 「어떤 親한 詩의 벗에게」, 『김기림 시전집1』, 위의 책. p. 15.

답이다. 그리고 <태양의 풍속>에 등장하는 ‘태양’은 그의 다른 시들 속에서 ‘등불’과 ‘람푸’로 변형된다. 즉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태양의 변형물들은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시 <람푸>와 <祈願>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런데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의 의지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주체의 의미를 ‘자유’의 의미로서 해석한다. 시 <感傷風景>와 <가거라 새로운 生活로>, <離別>은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동경하는 새로운 의미의 사랑을 통해 주체 성립의 의지를 드러낸다.

汽車 소리가 죽어버린 뒤의 검은 들 우에서
오늘
나는 빠죽한 광이 끝으로 두터운 안개빨을 함부로 찢어준다.
이윽고 흰 배암이처럼 寂寞하게 나는 돌아갈게다.
-시 <感傷風景> 부분

너의 날어가는 自由의 날개를 나는 막지 않는다
호올로 쌓아놓은 좁은 城壁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나의 외로움은 돌아봄 없이 너는 가거라.(중략)

가거라. 새로운 生活로 가거라.
너는 來日을 가져라.
밝어가는 새벽을 가져라.
-시 <가거라 새로운 生活로> 중에서

때늦은 「투-립」의 花盆이
시드론 窓머리에서
女子의 얼굴이 돌아서 느껴운다.

이윽고 내가 巴里 에 도착하면
네 눈물이 남긴 그 따듯한 斑點은
나의 外套 자락에서 응당 말려버릴테지?
-시 <離別> 중에서

‘애정’을 소재로 한 이러한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남녀의 애정과 다르다는 것이다. 변화를 동경하는 여자의 마음과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화자의 모습만이 애정의 관계를 보여줄 뿐, 실제적으로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 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자유’와 연대된 새로운 의미의 사랑¹⁵²⁾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 화자는 탄식하는 ‘순이’를 위해 ‘검은 들’의 ‘안개’를 찢는다-시 <感傷風景>. 또 시적 화자는 ‘병든 아내’에게 ‘自由’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來日’의 ‘새벽’으로 갈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시 <가거라 새로운 生活로>. 즉 이러한 시들을 통하여 김기림은 봉건적 질서와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자아의 타자화된 위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염원한다.

그런데 이때 시 속에 등장하는 남성화자는 선구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시 <離別>에서 ‘나의 마음의 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巴里’라는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하는 원동력은 식민지의 소외된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에서 벗어나 그의 시는 ‘태양’이라고 하는 주체의 성립을 염원하였다. 식민지적 주체를 부정하고 타자의 위치에서 피식민지인이라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그의 시는 ‘태양’과 같은 초월적인 주체를 염원하였으며, 김기림 시의 이러한 주체 부정의 변증법은 사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③ 문명 감수의 의지로서 ‘길’의 여정

김기림의 시적 자아가 ‘결별’의 과정을 통해 봉건질서와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면 이후 그는 ‘여행’이라는 ‘길’의 여정을 통하여 문명 감수로서 주체성립의 의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威鏡線 五百킬로 旅行 風景」에 수록된 <序詩>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152) 근대소설의 아버지라 불린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의 여러 소설에서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떠가는 신여성은 이전까지 남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목을 매던 구여성의 애정관과는 다른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때 이러한 사랑은 아무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려는 자유와 연대된 새로운 의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世界는
나의 學校.
旅行이라는 課程에서
나는 수없는 신기로운 일을 배우는
유쾌한 小學生이다.
-시 <序詩> 전문

김기림은 식민지적 타자화와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자신을 구현해나가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世界’는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시적 자아를 주체로서 성립시켜줄 주체 승인의 계기로 작동한다. 시에서 ‘世界’가 ‘나의 學校’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世界’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 승인의 계기를 통하여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와 봉건적 질서라고 하는 타자화된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小學生’처럼 열의를 가지고 세계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몰두한다. 즉 그는 더 이상 타자화된 식민지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계를 해석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에서 벗어나 ‘世界’라고 하는 주체 승인의 계기를 통해 자신을 구현해나가고자 하였다.

‘여행’의 과정을 통해 주체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길’의 여정을 통해 제국주의의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그는 주체로서 자신을 구현해나가고자 하였다. 그의 시에서 ‘여행’은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탈 식민의 공간으로서 ‘세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의 시에서 ‘기차’를 통해 드러난다. ‘祭物浦風景’에 수록된 시 <汽車>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모닥불의 붉음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금벌레처럼
汽車는
노을이 타는 서쪽 하늘 밑으로 빨려갑니다.
-시 <汽車> 전문

이 시에서 ‘기차’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초월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죽음이라는 어둠의 배경 속에서 ‘금벌레’가 보여주는 금속성과 붉음의 색채는 ‘빨려갑니다’라는 시어의 속도감과 더불어 살아있는 풍경을 보는 듯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때 ‘모닥불’과 ‘노을’

은 서로 조용하며 붉음의 색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때 ‘기차’의 모습은 역동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기차’가 세계의 문명을 조망하기 때문이다. 즉 ‘기차’를 통해 그는 식민지의 공간성에서 벗어나 세계 문명의 주체로서 자신을 구현해나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명감수의 의지로서 선택한 길의 여정은 과학적 시학에서 보여지듯 과학적 사고를 지향한다. 시 <食堂車>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흰 테-불 보작이.

健康치 못한 花盆 곁에 나란히 선

주둥아리 빼여든 「알미늬」 주전자

고개를 꺼덕꺼덕 흔들적마다

廢馬와 같이 월각절각 소리를 낸다

나는 鐵道の 「마-크」를 부친 茶盞의 두터운 입술가에서

威鏡線 五百킬로의 살진 風景을 마신다.

-시 <食堂車> 전문

이 시에서 자연물을 상징하는 ‘花盆’에 대하여 시적 자아는 ‘健康치 못한’, 즉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알미늬 주전자’를 ‘廢馬’로 인식하는 것과 연관된다. 즉 증기기관을 연상케 하는 ‘주전자’를 ‘廢馬’로 인식하는 것은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과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은 단순히 ‘기차’를 통해 여행의 과정을 서술하는 데에서 나아가, ‘威鏡線 五百 킬로’라는 길의 여정을 통해 세계 문명을 내면화함으로써 주체성립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때 과학적 사고는 과학적 시학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토대로서 작용한다. 시집 『태양의 풍속』에 수록된 시 <풍속>과 <異邦人>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海邊에서는 女子들은 될 수 있는대로

故鄉의 냄새를 잊어버리려 한다.

먼-外國에서 온 것처럼 모다

동판 몸짓을 꾸며보인다.

-시 <風俗> 전문

낮익은 강아지처럼
 발등을 핥는 바다 바람의 허빠닥이
 말할 수 없이 사롭건만
 나는 이 港口에 한 벗도 한 親戚도 불룩한 지갑도 戶籍도 없는
 거북이와 같이 징글한 한 異邦人이다
 -시 <異邦人> 전문

시 <風俗>에서 ‘고향’의 냄새를 잊어버린 ‘女子들’의 모습은 ‘먼-外國’의 ‘몸짓’처럼 낯설다. 그런데 이 낯설음을 시인은 ‘風俗’이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풍속’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태양의 풍속’, 즉 세계 문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시 <異邦人>에서 ‘먼 外國에서 온 것처럼’ 시적 자아가 자신을 ‘異邦人’으로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시적 자아가 ‘戶籍’도 없는 ‘異邦人’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주체가 되려는 주체 성립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기림은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고, 세계주의, 즉 문명의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였다. 즉 그에게 전통이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변화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전통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영구한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것도 종종 발명된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통에 대한 회의¹⁵³⁾, 즉 과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이 ‘동양’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유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동양적인 것의 본질은 靜的인데 있다는 자기도취부터 의식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예술을 시들어버리게 하는 견해가 있다. 나는 이러한 퇴영적인 패배주의적 호소 속에서는 믿을만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¹⁵⁴⁾면서 동양적인 것을 비판한다.

동양적인 것 나아가 전통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봉건적 질서를 부정하는 과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적 타자화와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세계문명을 통하여 주체성립의 의지를 구현해나가고자 했

153) ‘항상 낡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낡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들(tradition)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개념 역시 근대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p. 19 참조)

154) 김기림, 「동양인」, 위의 책, p. 161.

던 김기림에게 이러한 인식은 전통 뿐 아니라, 나아가 ‘근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문화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그에게 ‘근대’라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가 아니라 문명 감수로서 세계 문명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문명감수의 사명을 강조하며 문명의 ‘풍속’을 시의 소재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부재하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전통’ 역시 말소될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식민담론에 의해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날조되는 상황에서 ‘전통’ 역시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기림은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를 비판하고 ‘비인간화한 근대문명’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내부의 센터멘탈한 東洋人을 깨우쳐서 지성과 인간성이 종합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¹⁵⁵⁾라고 하였다. 즉 그는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적 공간성으로부터 벗어나 근대를 세계 문명의 논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시집 『태양의 풍속』에서 ‘길’의 여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는 ‘길’의 여정을 통하여 봉건적 질서와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 그리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주의를 내면화하였다. 문명감수로서 세계주의를 내면화하는 ‘길’의 여정을 통해 그는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 주체성립의 의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시 <첫사랑>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오늘
어두운 나의 마음의 바다에
흰 燈臺를 남기고간
-불을 켜 손아
-불을 끈 입김아

갑자기 窓살을 흔드는 버리페의 汽笛.
배를 태여 바다로 흘려보낸 꿈이 돌아오나보다.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속삭임이 발려있는 時計 딱지

155) 김기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김기림 시론』 2, 위의 책. p. 165 참조.

多辯에 지치인 萬年筆
때문은 地圖들을
나는 나의 記憶의 鱗 「테볼크로스」우에 펴놓는다.
흥
인제는 도망해야지.

란아-
내가 돌아올때까지
房을 좀 치어놓아라.
-시 <첫사랑> 중에서

이 시는 ‘汽笛’소리를 듣고 이를 맞이하는 시적 자아의 희망을 노래한다. ‘때문은 地圖들을나는 나의 記憶의 鱗 「테볼크로스」우에 펴놓는다’고 하면서 시적 자아는 이러한 ‘記憶’으로부터 ‘도망’해 집을 떠난다. 그런데 이 시에서 그는 집을 떠나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때 ‘첫사랑’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술 회되지 않고 다만 ‘바다’라고 하는 항해의 기록이 전개된다. 즉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의 ‘汽笛’ 소리, ‘時計’와 ‘地圖’ 등을 통해 첫사랑의 대상이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 바다로 나아가는 여정과 관계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때 ‘집’을 떠나는 행위는 봉건적 질서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바다’라고 하는 세계의 흐름을 통하여 문명을 감각을 익히려는 시적 자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에 대한 이러한 동경은 ‘불을 켜 손아/불을 끈 입김아’라는 표현처럼 처음부터 식민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절망을 담지한 것이지만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침잠하지 않고 ‘세계’를 통해 주체성립을 염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 성립을 염원하는 그의 시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즉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의 변증법을 통하여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을 염원하였으나 식민지라고 하는 타자의 위치에서 주체 성립을 염원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성격, 즉 식민지라고 하는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없었다.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 성립을 염원했던 김기림의 시적언어가 사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체 성립에 관한 이러한 염원은 그의 시가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성립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적 공간성과 피식민지인이라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주체 성립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관념적인 성격, 즉 식민지 현실을 망각한 현실착오적인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④ 세계 문화의 흐름으로서 ‘바다’의 탄생

‘길’의 여정을 통해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전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세계를 내면화한다. 그런데 ‘기차’로 표상된 ‘길’의 여정은 제국주의의 공간성에서 벗어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기차’로 표상되는 이러한 ‘길’의 여정은 공간성의 양식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영토 확장과 연관된 제국주의의 공간성은 대륙침략과 같은 파시즘 전쟁을 초래하였는데, 이때 문명의 논리로서 제국주의는 근대 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제국주의적 공간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즉 문명의 사명감을 통해 제국주의는 비문명화된 민족을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식민지 영토 확장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길’의 여정에서 시적 자아의 여정이 ‘바다’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의 문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문명논리와는 문화의 흐름을 통해 그는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시 <出發>에서 ‘바다’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五月の 바다와 같이 빛나는 窓 이
아침해에게 웃음을 보내며
無限히 깊은 會話를 두 사람은 바꾸고 있다.
하늘은 얼굴에서 어둠을 씻고
地中海를 굽어본다. 푸른 밑 없는 거울…….

窓을 열렘으나 누나
푸른 하늘, 싸늘한 大氣

어린 새들은 너희의 三月을 잊어버렸니?
너희들의 훌륭한 「파라슈-트」 沐浴한 날개를 타고

날래게 푸른 하늘로 떨어지렵으나.

그래서 세계에 아침을 일러주어라.

빛인……

푸름인……

生成인……

太平洋橫斷의 汽船 「엠프레쓰·어브·에이사」號가
금방 커다란 希望과 같은 旗幟를 흔들며 埠頭를 떠났다.

바로 午前 八時 三十分……

-시 <出發> 전문

‘세계의 아침’ 풍경을 소개하면서, 이 시는 ‘地中海’에서 ‘太平洋’으로 이어지는 문명의 흐름을 ‘旗幟를 흔들며’ ‘埠頭’를 떠나 출발하는 ‘汽船’을 통해 드러낸다. 즉 ‘地中海’에서 ‘太平洋’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흐름을 통해 문명의 흐름을 인식함으로써, ‘바다’를 ‘세계의 아침’을 가져오는 ‘生成’의 기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다’를 문명의 기원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태도는 ‘강’ 중심의 문명발달사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옥한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의 발생지를 추적하는 ‘강’ 중심의 문명발달사는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제국주의의 문명의 논리와 연관된 것¹⁵⁶⁾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문명의 기원으로서 ‘바다’로 나아간 것은 조선의 문화적 통치를 합법화하는 제국주의의 문명논리와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의 흐름을 조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시 <강>과 <十五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江은 그의 모-든 種族과 함께 大地의 永遠한 下水道입니다. 아마존,
파뉴브, 세-느, 라인, 漢江, 豆滿江, 미시시피…… 최후로 저 偉대한

156) 문명의 기원을 지리적인 차이와 인종적 차이를 통해 이해하는 ‘강’ 중심의 문명발달사는 민족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제국주의 문화담론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를 인종적 우열의 논리로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과시즘은 다른 민족의 영토를 점유하고 선진된 주체로서 문화적 사명감을 강조하였다. 문명의 기원에 대하여 제국주의 담론은 선진된 문명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문명의 혜택을 미끼로 다른 민족의 영토를 점유하였는데 생물학적인 차이를 통해 문명의 기원과 발달을 설명하는 이러한 인식은 자본주의 발달로 오늘날 더욱 만연된 문화제국주의의 기원으로서 문화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땅을 흐르는 陽子江

그렇지만 市民들은 한번도 水道料를 낸 일이라곤 없습니다. 그렇다고 使用을 거절당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그는 아침의 들을 따리며 물레방아를 굴리며 느껴올며 노래하며 깊은 안개속을 굴러 떨어집니다.

-시 <江> 전문

江들은 두터운 유리창을 굳게 잠그고
오늘밤은 一切 面會謝絶이다.
詩人과 아가씨의 눈물이 성가신가봐.

새벽을 꾸짖는 死刑囚인 늙은 세계는
밤이 붓는 침묵의 술잔을 기우리며
찢어진 하누님의 心臟에서 새는 히푸른 液體를 마시며 비칭거린다.

-시 <十五夜> 중에서

시 <강>에서 시적 자아는 ‘江’을 ‘모든 種族과 함께 大地의 永遠한 下水道’로 인식한다. ‘따뉴브, 쉐-느, 라인, 漢江, 豆滿江, 미시시피……’ 최후로 저 偉大한 땅을 흐르는 陽子江’을 차례로 들면서, 시적 자아는 그 강의 ‘市民’들이 ‘水道料’를 낸 일이 없다고 진술한다. ‘강’을 중심으로 ‘種族’이라고 하는 민족의 운명과 문명의 발달을 인식하면서 시적 자아는 이러한 문명의 논리가 ‘下水道’, 몰락의 운명임을 인식한다. 문명의 발생지로서 주목된 ‘강’ 중심의 문명이 몰락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제국주의 문명논리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문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시 <十五夜>에서 ‘두터운 유리창을 잠그고/一切 面會謝絶’인 ‘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死刑囚인 늙은 세계’를 통해 그는 ‘강’ 중심의 문명이 몰락할 것을 암시함으로써 제국주의 문명논리를 비판하였다.

제국주의 담론은 문명의 차이를 인종적 차이를 통해 강조하고 선진된 문화적 주체, 나아가 근대 주체로서 스스로를 표상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식민지 영토확장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제국주의는 문명의 논리를 이용해 선진된 문명의 주체로서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움으로써 문화의 위치에서 자신을 주체로 내세우고, 파시즘과 같은 전쟁 이데올로기에 합리성을 부여했던 것이다.¹⁵⁷⁾ 김기림이 민족을 초월하여 세

157) 독일의 나치즘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에도 힘든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데에는 게르만 민족의 문화

계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것은 파시즘 전쟁과 연관된 제국주의 문명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⁵⁸⁾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강’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이와 지엽적인 공간성을 넘어 파시즘의 문명논리와는 다른 문화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 ‘世界’로 나아갔던 것이다. 시 <旅行>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우리는 世界の 市民
세계는 우리들의 「올림피아-드」
시킴인 鐵橋의 잉크린 嫉妬 를 비웃으며 달리는 障害物競走選手들
汽車가 달린다. 國際列車가 달린다. 展望車가 달린다……

海洋橫斷의 定期船들은 港口마다
푸른 旗幟를 물고 「마라톤」을 떠난다……

(중략)

런던. 뉴욕. 파리. 푸라-그. 뿌다페스트.
東方의 거리 콘스탄티노-폴
回教徒
亞米利加領事館
聖 페이트로의 뾰죽집은 구름을 찌른다.
(마리아는 높은 데 계시란다 아-멘)

(중략)

에이 시온은 멀지 않다.
예루살렘은 讚美를 타는 커-다란 손風琴.

시온으로 가자.
그리고 시온으로 떠나자
우리에게는 永久한 시온은 없다.
-시 <旅行> 중에서

적 우수성이라는 문화적 자긍심과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이러한 문명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58) 일본은 ‘서양’과 다른 ‘동양’의 정신을 내세워 ‘대동아 정신’을 낙후된 아시아의 문화적 사명으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문명의 논리를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하였다.

올림픽 제전이라도 열린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시적 자아는 ‘우리는 世界の 市民/ 세계는 우리들의 「올림픽아-드」’라며, 한껏 열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런던. 뉴욕. 파리. 푸라-그. 뿌다페스트/ 東方의 거리 콘스탄티노-폴/ 回教徒/ 亞米利加領事館’이라는 세계의 지명들을 열거함으로써, 세계는 ‘競走’나 ‘올림픽아-드’처럼 경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온’으로의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적 자아는 ‘시온’이 영구한 목적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서 서양사에 ‘시온’이 있었다고 할 때, 조선이 세계의 흐름 속에 동참하여 ‘競走’하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서 요청되는 것이지만, 끝내 그것이 영구한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은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김기림의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김기림은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식민지적 공간성과 제국주의의 문명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의 흐름을 통하여 문화의 기원을 탐색함으로써 주체 성립의 의지를 염원하였다. 이때 ‘바다’는 제국주의 문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아를 강화해나가고자 했던 주체 성립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象牙의 海岸>과 <航海>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海灣은 水平線의 아침에 향하여 분주하게 窓을 연다.
주름 잡히는 銀빛 휘장에서 부스러 떨어지는 金箔은
바다의 검은 장판에 비오는 별들의 失望

어둠이 갑자기 버리고 간 까닭에 눈을 부비는 늙은 香水장사인 太陽은
잡깨지 않은 물결의 딸들이 머리칼 우에 白金빛의 香수를 뿌려준다.
멀구나무 잎사귀들은 총총히 떠난 天使들을 일저버리고 간 眞主 목도
리를 안고 산다.

붉은 치마짜락을 나팔거리는 가시나무꽃들은 防水布처럼 추근한 海岸
에 향하여 누른 香내를 키질한다.
푸른 空氣의 堆積 속에 가로서서 팔락거리는 女子의 바둑판 「케-프」는
大西洋을 건너는 無敵艦隊의 돛발처럼 無敵하다. (생략)

-시 <象牙의 海岸> 중에서

傲慢한 海洋의 가슴을 갈르는 뱃머리는

바다를 嫉妬하는 나의 칼날이다.
제껴지는 물결의 흰 살덩이. 쏟아지는 흰 피의 奔流

내 눈초리보다도 높지못한 먼 돛
그 돛보다도 더 높지못한 水平線
검은 섬이 달려온다. 누른 섬이 달려간다.
함뿍 바람을 드리켄 붉은 돛이 미끄러진다.

나의 가슴에 감졌다 풀리는 바람의 「테-프」.
低氣壓은 벌서 北漢山 의 저편에-
熱帶의 심술쟁이 颶風은 赤道에서 코고나보다. (중략)

키를 돌리지 말어라.
海圖는 웅색한 休暇證明書.
뱃머리는 언제든지 西南의 中間에 들어라.
-시 <航海> 중에서

시 <象牙의 海岸>에서 ‘바다’의 모습은 ‘별들의 失望’에도 아랑곳 않고, 곳곳하게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바다가 ‘大西洋을 건너는 無敵艦隊의 돛발처럼 無敵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절망과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의 성격을 드러낸다. ‘바다’의 이러한 성격은 시 <航海>에서 ‘低氣壓’과 ‘颶風’에도 불구하고 ‘키를 돌리지 말어라’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강화된다. 이때 ‘바다’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을 염원하는 시적 자아의 의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한다. 시 <移動建築>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바람에 휘날려
下水道의 물 우에 떠나려가는 「갈렌더」 한장 잘가거라
말괄량이 一九三〇年

(중략)
어느새 밤이 가고

먼 灰色의 地平線을
붉은 웃음으로써 채우며 오는 것은 누구냐?

오- 새벽이다. 새해다.
그는 비답이와 장미와 푸른 날개와
그러한 선물을 한수레 가득히 실은 馬車를 끌고
山마루터를 넘어온다.

보기싫은 失望과 悲觀 아름다운 고양이들
너희들은 내품에서 떠나거라. 미지근한 잠자리에나 박혀있어라.

기름과 먼지와 피투성인
아름답다는 지나간 날은
붙잡어 목을 비틀어
차라리 「페치카」에 집어넣자.
(생략)

-시 <移動建築>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下水道의 물 위에 떠나려가는 「갈렌더」 한장 잘가거라’라고 하며 ‘一九三〇年’¹⁵⁹⁾과 작별한다. 이때 과거는 ‘失望’과 ‘悲觀’을 시적 자아에게 안겨 주는 식민지적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벽’과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과거의 ‘지나간 날’을 「페치카」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엄한 ‘그랜드오르간’을 통해 연주되는 ‘바다’를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하면서 ‘一九三〇年’이란 시간과의 결별을 ‘移動建築’이라고 명명한 것은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간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기림에게 시간에 관한 인식은 ‘移動建築’이란 말처럼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는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를 조망함으로써 주체

159) 김기림은 우리 신문학이 한마디로 근대의 추구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란 ‘쇼윈도’처럼 소비적인 모습과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1930년대는 봉건적인 모습과 근대추수적인 모습, 그리고 근대의 파산이라는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란의 시대였으며 이때 조선에 수입된 근대란 인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의 천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김기림, 「30년대의 소묘」, 위의 책, pp. 43-51 참조)

성립의 의지를 구현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세계의 흐름으로서 ‘바다’가 그의 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風俗>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바다에게 쫓겨가는 거리.
바람이 빨고간 거즈른 風景 속에 느러서는
아무 일도 생각지 않는 겨으른 힌 壁
(중략)
바다는 끝없는 푸른 별판
멀리 그저 멀리 떠나려는 煩惱 때문에
진정치 못하는 汽船들을 붙잡고 있는
埠頭의 倫理를 슬퍼하는 듯이
우뚝 솟은 힌 稅關의 建物이
바다의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 <風俗> 전문

이 시에서 ‘거리’가 ‘바다’에 의해 ‘쫓겨’가는 것은 바다의 경계가 ‘끝없는’ 까닭이다. 이때 ‘建物이 바다의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建物’이 상징하는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바다’라고 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세계를 조망함으로써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바다’를 통하여 김기림은 식민지적 근대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성에서 벗어나 시간을 유동적인 변화의 흐름으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김기림은 ‘바다’로 표상되는 유동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식민지적 근대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과 식민담론의 문명논리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시에서 식민지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탈식민의 ‘거리감각’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2) ‘세계’의 출현과 ‘기상도’의 거리감각

김기림은 제국주의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와 연대한 근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현재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 양식의 근대를 유동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식하였다. 나아가 제국주의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는 식

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거리감각¹⁶⁰)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시 <세계의 아침>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비늘
돛인
海峽은
배암의 잔등
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衣裳을 들른 젊은, 山脈들

바람은 바다가에 「사라센」의 비단幅처럼 미끄러웁고
放漫한 風景은 바로 午前 七時의 絶頂에 가로누었다. (중략)
傳書鳩들은
船室의 지붕에서
首都로 향하야 떠났다
……「스마트라」의 東쪽…… 5킬로의 海上…… 一行 感氣도 없다
赤道 가까웁다…… 20日 午前 열時……
-시 <세계의 아침> 중에서

이 시에서 ‘비늘/ 돛인/ 海峽’을 통해 ‘바다’의 모습은 ‘배암의 잔등’이나 ‘산맥’이란 표현처럼 생동감 있고 희망에 차 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작별을 고하며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바다를 향해 출항한 배는 ‘赤道’라고 하는 위치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 시에서 ‘20日 午前 열時’라고 하는 것은 20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사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다’라고 하는 흐름을 통하여 그는 제국주의의 공간화된 시간인 근대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160) 시집 <기상도>에서 과시즘의 상황을 기후측량을 빌어 소개하고 과시즘의 태풍을 경고하는 김기림의 태도는 근대 예술의 개념인 ‘거리’ 개념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델과 화가, 캔버스와 화가 사이에는 적당한 공간적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문학에 있어서도 대상과 작자와의 사이에는 충분한 관찰을, 작품과 작가 사이에는 충분한 구상화를 할 만한 거리를 필요로 한다.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은 물론이요 시간적인 것까지도 의미한다. 단순히 감성의 감수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통일된 사과의 세계가 구성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까닭이다.”(김기림, 「文藝時評-작품과 作者의 距離」, 『조선일보』, 1934, 4)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을 조망하려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뜻밖에도 제국주의 파시즘과 같은 ‘颱風’의 위협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한다. 시 <颱風의 起寢時間>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바기오」의 東쪽
北緯 15度

푸른 바다의 寢床에서
흰 물결의 이불을 차 던지고
내리쬐는 太陽의 金빛 화살에 얼굴을 어더맞으며
南海의 늦잠재기 赤道의 심술쟁이
颱風이 눈을 떴다
鰐魚의 싸흠동무
돌아올 줄 모르는 長距離選手
和蘭船長의 붉은 수염이 아무래도 싫다는
따갑쟁이
휘둘르는 검은 모락에
찢기어 흐터지는 구름빨
거즈른 숨소리에 소름치는
魚族들
海灣을 찾아 숨어드는 물결의 때

황망히 바다의 장판을 구르며 달른
빗발의 굵은 다리
「바시」의 어구에서 그는 문득
바위에 걸터앉아 머리수그린
헐벗고 늙은 한 沙工과 마주쳤다
흥 「옛날에 옛날에 破船한 沙工」인가봐
結婚式 손님이 없어서 저런게지
「오 파우스트」
「어디를 덤비고 가나」
「응 北으로」
「또 성이 났나?」

「난 잠잠고 있을 수가 없어 자넨 또 무엇땀에 예까지 왔나?」

「괴테를 찾아 다니네」

「괴테는 자네를 내버리지 않았나」

「하지만 그는 내게 생각하라고만 가르쳐 주었지

어떻게 行動하라곤 가르쳐 주지 않았다네

나는 지금 그게 가지고 싶으네」

흠 막난이 파우스트

흠 막난이 파우스트

中央氣象臺의 技師의 手은

世界의 1500餘 구석의 支所에서 오는

電波를 번역하기에 분주하다

(第一報)

低氣壓의 中心은

「발칸」의 東北

또는

南米의 高原에 있어

690밀리

때때로

적은 비 뒤에

큰 비

바람은

西北의 方向으로

35미터

(第二報 · 暴風警報)

猛烈한 颶風이

南太平洋上에서

일어나

바야흐로

北進中이다

風雨 強할 것이다

亞細亞의 治岸을 警戒한다

한 使命에로 編成된 短波· 短波· 長波· 短波· 長波· 超短波·
모-든· 電波의· 動員·

(市의 揭示板)

「紳士들은 雨備와 現金을 携帶함이 좋을 것이다」

-시 <颱風의 起寢時間> 전문

이 시의 내용은 ‘태풍’의 발생 경로, ‘태풍’에 관한 상황묘사, ‘바시’의 어구에서 만난 ‘沙工’과의 대화, 그리고 ‘태풍’의 이동경로와 경보를 울리는 ‘기상대’의 전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바시오’는 필리핀의 도시 이름인데, 필리핀을 점유하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모습을 태풍의 발생 경로로 이해함으로써 그는 이러한 분쟁이 단순한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공간 점유를 위한 열강들의 제국주의 욕망을 간파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욕망이 ‘푸른 바다의 寢床’에서 일어나 ‘赤道’를 비롯해 세계에 확산될 것을 인식한다. 독일 ‘바시’ 정권을 상징하는 ‘바시 沙工’의 입을 빌어 위대한 독일 문호 괴테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파시즘 전쟁을 일으킨 독일 나치즘의 경우를 통해 이러한 제국주의 욕망이 파시즘 전쟁을 일으킬 것임을 조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颱風’이라고 하는 기후변동으로 인식함으로써 파시즘의 전쟁이 ‘발칸’ 반도를 지나 ‘亞細亞’로 진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이러한 세계사의 기후에 대비하여 파시즘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김기림은 제국주의의 공간화된 시간인 근대 풍경에서 벗어나 ‘거리감각’을 통하여 세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즉 제국주의적 근대에서 벗어나 그는 거리감각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에 편입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였다.¹⁶¹⁾

‘거리감각’을 통하여 그는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근대적 공간성과 현란한 근대감각에 매몰되지 않고 근대와 공모한 파시즘의 문명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기림이 친일문학인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 <市民行列>은 근대 풍경에 침잠하지 않고 거리감각을 통하여

161) 근대 예술에서 이러한 거리 개념은 대상과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1, 휴머니스트, pp. 216-217 참조)

근대인의 모습을 조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대시민’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는 근대시민에의 욕망을 충동하는 제국주의 담론을 조소하였던 것이다.

넥타이를 한 흰 食人種은
니그로의 料理가 七面鳥보다도 좋답니다
살갈을 회계 하는 검은 고기의 偉力
醫師 「콜베르」 氏의 處方입니다
‘헬매투’를 쓴 避暑客들은
亂雜한 戰爭競技에 熱中했습니다
늪은 獨唱家인 審判의 號角소리
너무 興奮하였으므로
內服만 입은 과씨스트
그러나 伊太利에서는
泄瀉劑는 일체 禁物이랍니다
필경 洋服 입는 법을 배워낸 宋美齡 女史
아메리카에서는
女子들은 모두 海水浴을 갔으므로
빈 집에서는 望鄉歌를 불르는 니그로와
생쥐가 돌도 없는 동무가 되었습니다
(중략)
公園은 首相 「막도날드」 氏가 世界에 자랑하는
如前히 失業者를 위한 國家的 施設이 되었습니다
敎徒들은 언제든지 치일 수 있도록
가장 簡便한 곳에 聖經을 언저 두었습니다
祈禱는 罪를 지울 수 있는 口實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님 한푼만 적선하세요
내 얼굴이 요로케 이즈러진 것도
내 팔이 이렇게 부러진 것도
마님과니 말이지 내 어머니의 죄는 아니랍니다“
“쉴! 無名戰士의 記念祭行列이다”
뚜걱 뚜걱 뚜걱.....
-시 <市民行列> 중에서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넥타이를 맨 흰 食人種은/ 니그로의 料理가 七面鳥보다도 좋답니다’라고 근대시민의 모습을 풍자함으로써 백인 우월주의에도 불구하고 ‘니그로의 料理’를 선호하는 근대시민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살갓을 희게 하는 검은 고기의 偉力’은 이러한 식인 행위를 통하여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인종우월주의의 태도가 제국주의 파시즘임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內服만 입은 파시스트’의 ‘戰爭競技’를 통하여 그는 파시즘 ‘전쟁’이 오락물처럼 흥행성을 띤 것임을 인식하고 자본주의적 물질 욕망과 결합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한다. 이때 ‘필경 양복 입는 법을 배워낸 宋美齡女士’를 통하여 그는 근대 주체를 모방하려 하지만, 오히려 제국에 의해 점유당하는 중국의 현실을 통해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파시즘의 풍경을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선과 악과 같은 기독교의 종교 윤리를 차용하여 피식민지인을 성적인 문란함과 야만인과 같은 악인으로 표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도덕적인 주체로 내세우려는 파시즘의 논리를 비판한다. 이때 ‘聖經’과 ‘祈禱’가 오히려 ‘罪를 지을 수 있는 口實’이라는 것은 종교적 가치를 통해 제국주의가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의 위치에 세우고 피식민지인을 ‘야만인’과 죄인과 같은 타자의 위치에 세움으로써 공간 지배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을 조소한 것이다. ‘無名戰士’의 ‘行列’을 ‘市民行列’로 인식하는 것은 근대 시민의 모습을 파시즘의 전쟁 풍경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자¹⁶²⁾를 통하여 그는 제국주의 담론에 편입되지 않고 ‘거리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와 결합한 ‘근대시민’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근대의 주체욕망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근대시민’의 모습을 ‘넥타이를 맨 食人種’, ‘전쟁경기’를 관람하는 ‘避暑客’, ‘內服만 입은 파시스트’, 언젠든 ‘罪를 지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야만적인 모습으로 인식한 것은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의 위치에서 김기림이 제국주의적 주체의 정체성을 간파하고 주체의 위치를 풍자를 통해 전복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근대시민’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는 ‘근대시민’에의 주체 욕망이 파시즘 전쟁과 같은 제국주의

162) 풍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술 주체가 상황과 행위에 대한 거리감각을 지니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김기림은 풍자를 통하여 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판단의 주체를 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관적 인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조롱과 분노, 슬픔과 증오 같은 양가적 감정을 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독자를 참여 주체로 끌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욕망임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근대 주체와 공모한 파시즘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당대의 조선인들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추종함으로써 정체성에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 <자취>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大中華民國의 繁榮을 위하여-」
슌으게 떨리는 유리컵의 쇠소리
거룩한 「테-불」 보재기 우에
퍼놓은 歡談의 물굽이 속에서
늙은 王國의 運命은 흔들리운다
「솔로몬」의 使者처럼
빨간 술을 빠는 자못 점잔은 입술들
색감한 옷깃에서
쌩그시 웃는 흰 薔薇
「大中華民國의 分裂을 위하여-」
찢어지는 휘장 저편에서
갑자기 유리窓이 투덜거린다……

「자려므나 자려므나」
「꽃 속에 누어서 별에게 안겨서-」
萬國公園의 「라운드-스피-커」는
「쁘람-쓰」처럼 매우 슌읍니다
꽃은 커녕 별도 없는 벤취에서는
꿈들이 바람에 흔들려 소스라쳐 깨었습니다
하이칼라한 샌드윗취의 꿈
貪慾한 「삐-프스테익」의 꿈
비겁한 강낭죽의 꿈
「나리사 나게는 꿈꾼 죄밖에는 없읍니다
食堂의 門前에는
천만에 천만에 간 일리라곤 없읍니다」
「……………」
「나리 저건 默示錄의 騎士버니까」

(중략)

圖書館에서는
사람들은 거꾸로 서는 「소크라테스」를拍手합니다
生徒들은 「혜-겔」의 서투른 算術에 아주 歎服합니다
어저께의 同志를 江邊으로 보내기 위하여
자못 變化自在한 刑法上的 條件이 調査됩니다
教授는 紙錢 위에 印刷된 博士論文을 朗讀합니다 (중략)

지붕을 베끼운 골목어구에서
쫓겨난 孔子님이 잉잉 울고 섰다

(중략)

날마다 黃昏이 채여주는
電燈의 勳章을 번적이며
世紀의 밤중에 버티고 일어섰던
放漫한 都市를 함부로 뒤져놓고
颱風은 휘파람을 높이 불며
黃河江邊으로 비껴여 간다……
-시 <자취> 중에서

이 시에서 ‘大中華民國의 繁榮’을 위한 목적으로 지향한 중국의 근대화는 결과적으로 ‘大中華民國의 分裂’을 초래한다. ‘꽃도 별도 없는 벤취’처럼 황량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양화된 메뉴-‘샌드위치’와 ‘뼈-프스테익’-처럼 서양의 기호를 욕망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현실은 ‘食堂의 門前’에도 가본 적도 없는 노숙자의 독백을 통해 근대 주체를 욕망함으로써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된 피식민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圖書館’과 ‘소크라테스’가 상징하는 학문과 법의 세계는 제국주의와 결탁한 학문과 법의 폐단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선언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은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의 논리를 이용해 피식민지의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제국주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³⁾ 또 ‘紙錢’

163) 일본 제국주의는 서양의 만국공법의 원리를 수용하여, 식민지배에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일본국의 법의 논리로 차용한다. 데리다가 서양의 동일성 사유와 공모한 이러한 법의 힘이 더 이상 윤리적 기능

위에 인쇄된 ‘박사논문’은 자본에 의해 매수당해 ‘진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식인이 모습을 조소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식의 위치를 비판한다.

‘亞細亞’로 확산되는 ‘颱風’의 기후가 제국주의 욕망에 의해 세계 곳곳에 퍼진 파시즘 전쟁을 지시한다고 할 때, ‘모가지’가 없는 ‘마르코·폴로의 銅像’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훼손된 의 모습을 드러낸다. ‘날마다 갈리는 公使의 行列’은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문화와 외교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침탈해 들어오는 열강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 ‘벽돌쪼각’과 ‘부서진 유리쪼각’이 널린 ‘海岸의 街道’는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의해 파편화된 피식민지인의 삶을 드러낸다. 이때 피식민지인의 삶이 흔적-‘자취’-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 피식민지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世紀의 밤중’이라는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과 ‘黃河江邊’을 따라 이동하는 ‘颱風’은 아시아로 확산되는 파시즘의 경로를 보여주면서 불길한 운명을 암시한다.

김기림은 제국주의적 근대, 즉 공간화된 시간에서 벗어나 근대를 변화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전염병처럼 파시즘 전쟁이 확산되어 나갔다. 제국주의는 학문과 법, 문화적 사명감, 종교적 윤리를 동원하여 식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피식민지인을 타자화하였다. 피식민지인의 삶은 결국 ‘자취’만 남은 모습처럼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적 공간성과 자아의 타자화라고 하는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를 구현해나가고자 했던 김기림에게 세계 곳곳에 전염병처럼 확산된 파시즘 전쟁은 ‘태풍’이란 표현처럼 그 폭력성이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김기림은 이러한 상황을 거리감각을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는데 근대 주체 욕망을 제국주의 욕망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파시즘의 전쟁 이데올로기로 인식함으로써 그는 식민지적 주체에 편입되지 않고 친일의 행적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의 거리감각을 통하여 그의 시는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의 천착에서 벗어나 탈식민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모더니즘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윤리적 힘을 상실한 법의 개념을 비판한 것은 정의 구현의 가치를 상실한 채 권력과 결합한 법의 위치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모리 요이치, 위의 책, pp. 28-29/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참조)

(3) 역사에 대한 절망과 근대 풍경의 죽음

김기림은 제국주의의 근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주체를 구현해나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영토확장을 위한 과열된 욕망 속에서 제국주의에 의해 세계는 ‘파시즘’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기림의 후기 시에서 ‘바다’의 풍경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병든 風景>과 <울배미의 呪文>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지치인 바람은 지금
漂白된 風景속을
씩은 歎息처럼
埠頭를 넘어서
찢어진 바다의 치맛자락을 걷우면서
化石된 벼래의 뺨을 어루만지며
주린 강아지처럼 비틀거리며 지나간다
바위틈에 었디어
죽지를 들이운 물새 한 마리
물결을 베고 자는
꺼질 줄 모르는 鄉愁
깃뺨혀 느리진 白沙場 우에
매맞어 검푸른 빠나나 꺾질 하나
부프러울은 구두 한짝을
물결이 차던지고 돌아갔다
海灣은 또 하나
슬픈 傳說을 삼켰나 보다
黃昏이 입혀주는
灰色의 襪衣를 감고
물결은 바다가 타는 葬送曲에 맞추어
病든 하루의 臨終을 춘다……

-시 <병든 風景> 중에서

나는 갑자기 신발을 찾아 신고
도망할 자세를 가춘다 길이 없다
돌아서 등불을 비틀어 죽인다
그는 비둘기처럼 거짓말쟁이었다
황홀한 불빛의 榮華의 그늘에는
몸을 조려없애는 기름의 十字架가 있음을
등불도 비둘기도 말한 일이 없다

(중략)

밤이 간 뒤엔 새벽이 온다는 宇宙의 法則은
누구의 실없는 작난이나
東方의 傳說처럼 믿을 수 없는
아마도 失敗한 實驗이나(중략)
來日이 없는 칼렌다를 쳐다보는
너의 눈동자는 어쩐지 별보다 이뿌지 못하고나
도시 十九世紀처럼 興奮할 수 없는 너
어둠이 잠긴 地平線 너머는
다른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중략)

어머니 어머니의 무덤에 마이크를 갖어갈까요
사랑스러운 骸骨 옛날의 자장가를 기억해내서
병신 된 나의 귀에 불러주려우

자장가도 불을 줄 모르는 바보인 바다
바다는 다만
어둠에 叛亂하는
永遠한 不平家다

바다는 자꾸만
헌 이빨로 밤을 깨문다
-시 <올배미의 呪文> 중에서

시 <병든 풍경>에서 ‘바다’의 모습은 초기시의 모습과는 다르다. ‘漂白된 風景’이란 표현처럼 바다의 풍경은 초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灰色의 수의’를 입고 ‘葬送曲’에 맞추어 춤을 추는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시인은 근대의 종말을 본다. ‘등불도 별들’도 피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는 풍경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바다’가 ‘슬픈 傳說’을 삼킨 ‘海灣’처럼 황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 <울빼미의 呪文>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근대에 대한 절망 속에서 ‘도망할 자세’를 취해보지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인식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내일이 없는 칼렌다’를 들여다보며 그는 ‘옛말의 자장가’조차 기억할 수 없는 ‘병신 된 귀’처럼 무능한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때 ‘바다’가 ‘자장가도 불을 줄 모르는 바보’인 것은 역사적 전망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절망에서 기인한다. 즉 제국주의 욕망에 의해 파시즘 전쟁이 세계 곳곳에 확산된 상황 속에서 그는 제국주의와 결탁한 근대의 종말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헤겔이 <법철학>에서 소개한 ‘미네르바의 부엉이’¹⁶⁴⁾처럼 ‘울빼미’를 통하여 근대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김기림이 파행적인 근대의 종언을 목도하고 ‘근대초극론’을 내세워 동아시아 일대의 지배를 획책한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고 친일과 내선일체의 강요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⁶⁵⁾

그러나 식민지적 공간성과 공간화된 시간성인 근대를 통해 피식민지인의 삶은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의 시·공간 속에서 파편화된 삶을 경험한다. 시 <바다와 나비>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164)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짙어지자 날기 시작한다’는 헤겔의 경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 철학적 통찰을 통해 절대 이성의 힘은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165) 주체 성립의 의지로서 김기림의 시는 제국주의적 근대에 대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시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주체 성립에 대한 이러한 염원에서 비롯된다. 즉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식민지적 타자라고 하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역사적 성찰을 통하여 주체 성립을 염원하였다. 그의 시를 사회·역사적 모더니즘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그의 시의 이러한 성격을 탈식민의 모더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변적으로나마 주체 성립에 대한 의지를 지속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친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역사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내적 동기라 할 수 있다.

아모도 그에게 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모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靑무우발인가 해서 내려 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公主처럼 지쳐서 도라온다.

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시 <바다와 나비> 전문

이 시에서 ‘水深’을 모르기에 ‘바다’가 무서운지 모르는 ‘흰 나비’는 근대 풍경에 매혹되어 제국주의와 공모한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근대를 추종했던 조선인이 운명을 지시한다. 이때 ‘靑무우발인가 해서 내려 갔다’라고 하는 오인의 구조는 바다를 ‘靑무우발’으로 오인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조선인의 상황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상황을 보여준다. 즉 모더니즘의 물질적인 욕망인 근대적 공간성이 제국주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모더니스트들에게 모더니즘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에 관한 천착으로 나타났다. ‘公主’처럼 나약한 존재가 되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고 하는 감각적 표현은 바다의 수심, 즉 제국주의적 근대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근대적인 감각에 천착했던 모더니스트들의 심적 상황을 드러낸다.

김기림이 전체시를 통해 모더니즘에 사회성을 종합하려 한 것¹⁶⁶⁾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천착한 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체시는 모더니즘 시론을 수정함으로써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⁷⁾ 파시즘의 대두와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서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비

166) 1939년에 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김기림은 ‘전체시’에 대해 ‘모더니즘과 사회성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경향파와 모더니즘의 결합’을 통해 시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술적 형식과 사상(내용)의 결합을 통해 이해한 그의 전체시론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의 천착에 대한 모더니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성을 결합해 탈식민의 모더니즘으로서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위의 책, pp. 57-58 참조)

167) 김병택, 『한국현대시인의 현실인식』, 새미, 2003, p. 340.

평가들에 의해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더니즘의 비역사성과 비정치성, 형식주의와 엘리트주의의 문제를 들어 모더니즘을 비판하였다.¹⁶⁸⁾ 그런데 모더니즘의 이러한 문제점은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의 이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낭만주의 예술을 지향하는 미학적 특성과 모더니티와 연관된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파시즘의 위기에 봉착하여 미적 저항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다.¹⁶⁹⁾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욕망 속에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예술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했다기보다는 파시즘과 관련한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모더니즘 예술의 문제점과 연관된 것이었다.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주체 성립에 대한 의지를 염원하던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것은 파시즘의 상황 속에서 모더니즘 예술이 제국주의적 주체의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모더니즘 예술에 사회성을 결합한 전체시론을 통하여 모더니즘의 현실도피적인 결함을 보충하고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개인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국주의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김기림이 추구했던 주체성립에 관한 염원은 제국주의적 주체와 같은 파시즘의 상황 속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시 <療養院>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저마다 가슴 속에 癌腫을 기르면서
지리한 歷史의 臨終을 苦待한다.

그날 그날의 動物의 習性에도 아주 익어버렸다.
標本室의 착한 倫理에도 아담하게 固定한다.

人生아 나는 용맹한 포수인 채 숨차도록
너를 좇아 댕겼다

너는 오늘 간사한 매초라기처럼

168) 김옥동, 「모더니즘」, 이선영 편, 『문예사조사』, 민음사, 1986. p. 196 참조.

169) Art Berman, 위의 책, p. 5 참조.

내 발앞에서 포도독 날리가버리는구나.

-시 <療養院> 전문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人生’을 잃어버리고 ‘療養院’에서 무의미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때 시적 자아는 자신을 ‘標本室’의 실험동물처럼 인식한다. ‘그날 그날의 動物의 習性’처럼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뿐, ‘용맹한 포수’처럼 그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시적 자아의 ‘人生’이 ‘간사한 매초라기’처럼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 속에서 피식민지인은 ‘療養院’의 환자거나 ‘標本室’의 실험동물처럼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지시된다. 즉 제국주의는 ‘動物의 習性’을 통해 피식민지인을 인간주체와는 상반된 ‘동물’의 표상으로 지시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삶을 타자화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動物의 習性’이란 식민자의 위치에서 피식민지인의 타자의 위치를 지시하는 동시에 피식민지인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야만성¹⁷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담론은 계몽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서 내세우지만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를 소외시켜나감으로써 ‘標本室의 倫理’처럼 야만의 실험이었던 것이다. 김기림의 시에서 죽음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시즘의 위기에 봉착해 주체 성립을 구현해나갈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시 <共同墓地>와 <파랑 港口>에서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침잠하지 않고, 식민지적 공간성과 공간화된 시간인 근대의 종언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해 고심한다. 시 <東方紀行>과 <쥬피타 追放>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언제고 이게 내 고향이거니 하고 맘 놓은 적은 없다.

山 넘어 들 건너 구름 속에도

永久한 時間의 未來 속에도 내 찾아갈 「約束」은 없다.

170) 아도르노는 근대의 야만성을 목격하고 근대 계몽이 스스로를 주체화하기 위해서 타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를 비판한다. 즉 계몽은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계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몽은 점점 더 그가 부정하고자 했던 신화체계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야만은 계몽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화체계로의 변질함을 의미한다. (아도르노·호르크 하이머, 노명우 편, 『계몽의 변증법-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위의 책, p. 116-117 참조) 이때 근대적 주체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제국주의는 피식민지인을 야만인이나 동물과 같이 타자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 너는 벌써 나를 誘惑할 수도 激勵할 수도 없이 병신된 꿈이
고나.

不幸도 破門도 追放도 인제는 나를 威脅하지는 못한다.

戀愛조차도 고칠 수 없는

이 茂盛한 憂鬱을 차라리 웃어버릴까.

絶望을 차고 넘어 부질없이 虛無를 꾸짖어 본다.

나를 얽매인 이 現在로부터

나는 언제고 脫走를 계획한다

마음이 추기는 진정하지 못하는 소리는 오직

「가자 그리고 도라오지 마자」

-시 <東方紀行-序詩> 전문

쥬피타는 록펠라 氏의 庭園에 만발한

곰팡이 낀 節操들을 도모지 칭찬하지 않는다.

벌처럼 무성한 온갖 思想의 花草들.

기름진 장미를 빨아 먹고 오만하게 머리추어든 恥辱들.

쥬피타는 구름을 믿지 않는다. 장미도 별도……

쥬피타의 품안에 자빠진 비둘기 같은 天使들의 屍體.

거문 피 엉크린 날개가 輕氣球처럼 쓰러졌다

딱한 愛人은 오늘도 쥬피타다려 정열을 말하라고 졸르나

쥬피타의 얼굴에 장미 같은 우습이 눈보다 차다.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고 흙이 묻었다. (중략)

쥬피타 너는 世紀의 아픈 상처였다.

惡한 氣流가 스칠적마다 오슬거렸다.

쥬피타는 병상을 차면서 소리쳤다

「누척이불로라도 신문지로라도 좋으니

저 太陽을 가려다오.」

눈 먼 팔레스타인의 殺戮을 키질하는 이 건장한

大英帝國의 태양을 보지 말게해라고」(중략)

- 시 <주피타 추방> 중에서

시 <東方紀行>에서 시적 자아는 ‘고향’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永久한 時間의 未來’에 대한 ‘約束’이 부재하는 것은 그에게 ‘現在’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란 공간화된 시간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 인간은 시계의 발명을 경험하면서, 균질화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태초의 진리와 같이 기원으로서의 과거의 시간은 균질화된 시간 경험에 의해 현재성을 중심화하면서 세계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이해된다.¹⁷¹⁾ 즉 이러한 현재성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근원적인 ‘고향’ 상실의 위기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화하면서 신과 자연을 타자화시켰는데 이러한 사정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향’ 상실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근대라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 경험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식민지 영토확장과 마찬가지로 공간 뿐 아니라 시간의 인식에 있어서도 공간화의 욕망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 <東方紀行>에서 시적 자아에게 ‘고향’이 부재하는 상황은 이러한 공간화된 시간, 즉 현재화된 근대 경험에서 비롯된다. 시적 자아가 ‘병신된 꿈’처럼 절망을 토로하는 것은 파시즘의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식민지적 근대라고 하는 현재화된 시간 속에서 주체 성립을 염원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¹⁷²⁾ 시적 자아가 ‘現在’로부터의 ‘脫走’를 계획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자아의 심적 상황은 제국주의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탈주하고자 했던 시인 ‘李箱’의 죽음을 통하여 강화된다.

<주피타 追放>이라는 시에서 김기림은 시인 이상의 죽음을 ‘追放’이란 시어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와 결탁한 근대적 시·공간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아가 이상의 탈주 욕망을 염원한다. 이상에 대해 ‘世紀의 아픈 상처’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민지의 근대인으로서 이상은 과거의 고향으로도 회귀할 수 없었고, 절망적인 근대의 시·공간에서도 탈출할 수 없었다.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 속에서 이상은 ‘병상’이라고 하는 ‘병’을 근거로 ‘大英帝國의 태양’과 같은 제

171) 스티븐 킨 저,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위의 책, pp. 223-225 참조

172) 제국주의 파시즘은 식민지 영토확장을 위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죽음이 압박해 오는 극도의 전쟁 공포를 체험하면서 인간은 더욱 더 영원한 현재성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인간 실존의 위기 속에서 전쟁과 같은 죽음을 통해 현재성의 시간 체험은 삶에 대한 절망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스티븐 킨, 위의 책, p. 684 참조)

국주의 과시즘을 부정하였으며 ‘누덕이불’과 ‘신문지’같은 무능함과 삶의 피폐함을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하였다.

이때 ‘추방’이란 시어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 이상을 통하여 식민지적 타자의 부조리한 운명과 상황을 암시한다. 김기림은 시인 이상이 모더니즘의 초극이라는 운명을 한 몸에 구현한 비극의 담당자요, 최후의 모더니스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⁷³⁾ 즉 김기림은 이상의 죽음을 통하여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脫走’하는 길 이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시 <세계에 웨치노라>는 공간화된 시간인 근대의 종말을 목도하고 역사에 대한 비판인식을 통해 식민지적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김기림의 염원을 반영한다.

부스러진 거리거리 이즈러진 陸地에
火樂연기 걷히는 날
오래인 病席에서 이러나는 것처럼
한 새로운 世界의 얼굴은 떠오르리라-
어지럽던 地獄의 地理가 끝난 곳에
어린 天國의 寶石대문은 열리리라 했더니-
문노니 歷史여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배부를 줄이 없이
수없는 靑春과 또 꿈
博物館과 圖書館과 大學
가장 비싼 世界의 재산을 삼켰더니,
「自由와 그리고 새로운 世界」
그 밖에도 이 커다란 殺戮을 용서할
五色倫理로 단장한 아모리한 口實도 거짓이리라 (중략)

착한 늙은 나라나라에 황홀한 夜市일랑 별리지 말아라.
知慧와 일과 우습만이 있으면 그만이다.
粉과 비단은 「사탄」의 얼굴을 감추는 데만 소용이 되리라.

173)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58.

오- 오래인 神殿 거룩한 大陸에서
장치와 「마카-벨리」의 후예를 쓸어버릴
성년 「헤부라이」 젊은 사나이는 어디 없느냐.(중략)

어두운 주검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論理.
骸骨의 들에도 봄바람이 불면
젖은 재때미 우에도 벌거벗은 山脈에도
씩은 트리니 푸른 썩은 트리니
이윽고 거기 보랏빛 당홍빛 노랑이
무지개같이 가지가지 꽃 우거져 나무겨
인체 어린 「아담」들 눈을 부비며 일어나리라.
世界에 웨치노니 어서 길을 비끼라
저기 새로운 날은 녹쓰른 사슬을 끄은 채
거만한 「푸로메티우스」처럼 그러나 늠늠히 오지않느냐.

-시 <세계에 웨치노라> 전문

이 시에서 폐허가 된 세계 속에서도 시적 자아가 ‘새로운 世界の 얼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과시즘의 주체 위기 속에서도 주체 성립에 관한 염원을 지향하는 김기림의 의지 때문이다. 이때 ‘어지럽던 地獄의 地理’와 ‘五色論倫’는 학문과 법, 나아가 종교적 윤리를 통하여 식민지 영토확장과 식민지적 타자화에 정당성을 부여한 제국주의 과시즘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폐허가 된 세계의 풍경 속에서 김기림의 시적 자아는 ‘帝國’도 ‘強國’도 ‘歷史의 가슴에 달린 부질없는 사치한 장식’이라는 인식 속에서 제국주의 과시즘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어두운 주검’ 속에서 새로운 ‘倫理’를 염원하는 것은 과시즘의 원흉인 ‘마카-벨리의 후예’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담’의 탄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날’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를 고대하는 시간인식을 통하여 그는 ‘푸로메티우스’처럼 세계 곳곳에 퍼진 과시즘 전쟁 속에서 식민지적 근대의 풍경에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시간성을 염원하였다. 식민지적 근대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과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미래’의 시간을 염원함으로써 그는 식민지적 주체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2. '미래'의 시간성에 관한 염원

(1)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부정과 '미래'의 시간의식

탈식민적 관점은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이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구축되는 것을 비판하고 식민지적 타자성과는 다른 새로운 타자성의 가능성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김기림은 식민지적 공간성과 균질화된 근대의 시간성에서 벗어나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¹⁷⁴⁾의 가능성은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기림이 지향한 시간은 파행적인 근대를 목도한 서구의 모더니스트들이 민족의 특유한 신화 속에서 유토피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시·공간으로 회귀한 것¹⁷⁵⁾과는 달리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을 부정하고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성을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엘리어트의 종교적 신화를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¹⁷⁶⁾ 이때

174) 호미 바바는 「탈식민주의와 탈근대성」(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위의 책, pp. 340-344 참조)이라는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린 종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가능성이 탈식민의 관점에서 진정한 타자성의 시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탈근대적인 것에서 나아가 대항근대성(contramodernity)의 가능성을 통해 탈식민을 호명하려는 바바의 관점에서 김기림의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염원을 진정한 탈식민의 타자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적 관점에서 김기림의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염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김기림이 비록 보편적인 근대를 구현해나가려고 했던 근대주의자의 면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간에 대한 염원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려는 그의 노력은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염원함으로써 그는 과거를 신화화한 식민담론 뿐 아니라, 민족의 신화로 회귀한 서구 모더니스트들이 파시즘적인 세계와는 달리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담론이 서양 제국주의를 모방한 식민지적 모방이라고 할 때,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 성립을 염원하였던 것인데 새로운 시간을 염원하고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함으로써 주체 성립에 대한 이러한 염원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에 대한 가능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김기림이 '민족'이라는 세계주의와 공동체성을 결합한 상상적 타자성을 발견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타자성을 통해 식민 주체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를 염원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본 논문에서 식민지적 타자성에 대한 저항 개념으로 상상적 타자성을 통해 탈식민의 저항을 해명하는 것은 식민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성에 저항하는 타자성이란 문학이라는 장 속에서 상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회의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에 대한 모방으로서 그의 시는 식민지적 근대를 추종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관념적이지만 새로운 근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5) 이때 모더니즘의 신화로의 회귀는 지역, 국가, 공동체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이것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정체성과 유대의식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모더니즘은 신화적인 것으로 회귀하여 정치적인 영역에 미학적인 힘을 부과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반동현상을 초래하였다. (D. Harvey, 구동회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5. p. 344 참조)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은 민족의 신화를 통해 영원성의 회복을 지향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특정 지역, 국가, 민족을 중시하는 파시즘의 특성과 연관된 것이었다.¹⁷⁷⁾

김기림이 파시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구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염원한 것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성을 부정함으로써 식민지적 공간성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시집 『새노래』의 서문에 실린 ‘칼 샌드백’의 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새 都市와 새 백성들을 노래하는걸세
참말이지 過去는 한줌 재일 따름
참말이지 어저께는 지나간 바람결
西天에 진 落日이네
참말이지 세상엔 아모 것도 없느니
오직 수없는 來日의 바다뿐
수없는 來日의 蒼空뿐
-칼·샌드백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시간을 ‘한줌 재’처럼 지나간 ‘過去’로서 인식한다. 시적 자아에겐 ‘來日의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시집 서문에서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식민지적 ‘근대’가 과거를 신화화한 식민담론을 부정하고 근대 주체와 공모한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미래의 시간성을 통해 이러한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시 <波濤>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좁 먹는 王宮의 기둥 뿌리를 흔들며
「월」街 한울 닷는 집들을 휘돌아
배미는 문장을 찌기며 窓살을 비틀며
향기와 같이
潮水와 같이

176) "우리는 일찍이 20세기의 신화를 쓰려고 한 『荒蕪地』의 시인이 겨우 정신적 火田民의 신화를 써 놓고는 그만 구주의 초토 위에 무모하게도 중세기의 신화를 재건하려고 한 전철은 똑바로 보아 두었을 것이다" (김기림, 「과학과 비평의 시」,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33)

177) 아도르노 호르크 하이머, 노명우 편, 『계몽의 변증법』, 위의 책, pp. 144- 146 참조.

音樂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
구름과 같이
모-든 그런 것들의 波濤인 것처럼
아- 새 世界는 다닥쳐 오는구나(중략)

어둠침침한 山峽을 지나 낭떨어진 벼래를 스쳐 들을 건너
개나리
벗지
진달래
나리 창포꽃 일일이 삼켜 가며 여러 밤과 밤
쏟아지는 별빛을 녹여 담아 가지고
江 은 지금 동그렇게 구비치며 파도쳐 온다
여러 陸地와 바다 뒤덮으며 휘몰려 온다

벌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너나 나나
출렁이는 波濤의 지나가는 波紋일 뿐
얼키고 설킨 波動의 이구비 저구비일 뿐

아- 지금
波濤는 굴러 온다
푹어진다
썰어진다
떼민다
박찬다
딩구나보다

이 호탕한 汎濫 속에
모-든 우리들의 어저께를 파묻자
찢어진 기억을 쓸어 보내자

지금 波濤를 막을 이 없다
그는 아모의 앞에서도 서슴지 않는다
波濤는
먼
來日의 地平線을
주름 잡으며
抗拒할 수 없이
점점
닥아올 뿐이다.

- 시 <波濤> 중에서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波濤’가 범람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염원한다. ‘좁먹는 王宮의 기둥 뿌리를 흔들며/ 「월」 街 한울 닳는 집들을 휘돌아’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자아는 제국주의적 시·공간에서 벗어난 미래의 시간성을 염원한다. 이때 미래의 시간성은 ‘향기, 湖水, 音樂, 바람, 구름’이 오는 것 같이 근대 주체에 의해 소외되었던 자연의 질서를 회복한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너나 나나/출렁이는 波濤의 지나가는 波紋’이라는 인식은 ‘波濤’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근대 주체에 의해 호명된 주체와 타자의 분리를 부정하고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방식을 지향한다. ‘호탕한 汎濫’ 속에서 시적 화자는 ‘찢어진 기억’같은 근대의 파편성으로부터 벗어나 ‘來日의 地平線’을 기약한다. 즉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타자화된 위치에 예속되어 있던 자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김기림이 염원한 미래의 시간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기림이 염원한 미래의 시간성은 서구 모더니스트들의 유토피아적 전망이나 민족주의가 염원하는 현실 논리의 정치적 시간과는 다른 상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보려는 모더니스트들의 유토피아적 전망은 신화체계라는 반동적인 회귀 현상을 지향함으로써 민족의 신화적 유토피아를 강조하는 파시즘적인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더니스트들의 유토피아적 전망은 신화적 계기를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의 성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일본은 식민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신화체계를 이용해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皇道思想’을 구축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를 왜곡·날조하였던 것이다.¹⁷⁸⁾ 김기림은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즉 상상적 시간을 통해 식민지적 근

대의 시간에서 벗어나 식민공간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미래라고 하는 상상적 시간을 통해 그는 자아를 회복하고 식민지적 근대의 황폐화된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시 <우리들 모두의 꿈이 아니냐>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順이 준 꽃병과 팔뚝의 크롬時計사 내 것이지만
아- 저 푸른 넓은 하늘이야
蘭의 것도 莢의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하늘이 아니냐

들을 보아라 그리고 바다를
海棠花 수놓은 白沙場
넘실거리는 보리이삭 벼초리
아침 바다에 연이은 초록빛 별판은
아- 莢의 것도 蘭의 것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것이 아니냐

하루스밤 무엔가 한없이 아름다운
꿈을 꾸다가 눈을 떴더니
무슨 眞珠나 잃은 것처럼 몹시도 서거품은
모두 즐겁고 살지고 노래하고 나물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
아- 그것은 蘭의 것도 莢의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꿈이었구나

바다도 山도 꿈도
아- 저 넓은 하늘이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아니냐
모두 즐겁고 살지고 노래하며
莢이도 蘭이도 順이도 나도 함께 살 나라의
하늘과 들과 바다와 꿈이 아니냐
-시 <우리들 모두의 꿈이 아니냐> 전문

178)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p. 186 참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英이도 蘭이도 順이도 나도’ 모두 구별되지 않는 ‘우리들 모두의 꿈’을 노래한다. ‘바다의 꿈’이 부활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미래에 대한 시간성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때 ‘바다’는 국가와 민족, 주체와 타자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의미한다. 미래의 시간 속에서 세계가 ‘英의 것도 蘭의 것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것’이라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 시간의 유토피아에 의해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식민지적 공간성 속에서 타자화된 자아와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때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전망은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에서 벗어나 주체 성립을 염원하던 태도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그의 시는 미래라고 하는 상상적 시간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고 황폐화된 세계를 함께 회복함으로써 주체 성립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자아의 회복과 황폐화된 세계의 회복

김기림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염원 속에서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에서 벗어나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되었던 자아를 회복한다. 이때 김기림은 이러한 시간의 회복을 통하여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주체 성립을 염원하던 태도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비판함으로써 자아를 회복한다. 김기림의 시가 사변적인 성격을 띤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비판하고 그가 식민지적 타자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를 변증법적으로 구성해나갔기 때문이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전망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과시즘의 위기 속에서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는 다른 주체 성립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 <벽을 헐자>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벽을 헐자

그대들과 우리들 사이의

그대들 속의 작은 그대들과 또 다른 그대들 사이의

우리들 속의 작은 우리들과 또 다른 우리들 사이의

아마도 그것은
金과 銀과 象牙로 쌓은 恥辱의 城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욱 험자

남은 장벽을 뚫어버린 우에 거기
새날의 大路를 뺏자
그대들과 우리 다
함께 갈 大路를 뺏자
-시 <벽을 험자> 전문

이 시에서 ‘그대들과 우리들 사이/ 그대들 속의 작은 그대들과 또 다른 그대들 사이 / 우리들 속의 작은 우리들과 또 다른 우리들 사이’에 ‘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벽’을 그는 ‘金과 銀과 象牙로 쌓은 恥辱의 城’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벽’이 존재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은 주체와 타자와 같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논리를 ‘벽’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새날의 大路를 뺏자’라며 새로운 시간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즉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을 통하여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성을 부정하고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훼손된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때 그의 시가 유년기의 시간을 노래하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에서 벗어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전망을 통해 자아와 시간성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즉 이때 유년기의 시간은 회복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 <오늘도 故郷은>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오늘도 故郷은 千里요 또 五百里
뜻하지 않은 緯도가 銀河로구나

사랑스런 살부치들
쟁쟁한 목소리 아물거리는 얼굴
도시 허위잡을 수 없이
구름만 北 으로 밀려가는구나

여러 十年 하로같이 모다들 고대던 것
눈앞에 얼른거리면서도 종내 나사서지 않아
동무와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며
목이 말라 가슴이 타 냉수를 켜며
이달도 손때 뱀 字典을 팔아 즐거히 살아가리
-시 <오늘도 故郷은> 전문

이 시에서 '고향'에 관한 인식은 김기림이 초기시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때 고향의 성격은 식민지의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스런 살부치들/쟁쟁한 목소리 아물거리는 얼굴'이란 시어를 통해 그리움을 나타낸다. 시적 자아는 이러한 그리움을 통해 '千里요 또 五百里'나 떨어진 고향과의 거리감을 넘어 자아와의 일체감을 느낀다. 고향의 현실적·실존적 상황은 '十年 하로같이'라는 구절처럼 십년 전과 나아진 것이 없지만,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손때 반 字典을 팔아 즐거히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간성에서 벗어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 전망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유년기의 고향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고향과 연대한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향의 모습은 파시즘의 전쟁이 확산되는 실존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 속에서 회복된 세계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의 회복과 함께 이러한 시간성의 회복은 초기시에서 그가 낭만적 로맨티시즘이라고 비판한 '情'적인 세계에 대한 회복으로 나타난다. 시 <닥아 앉아 가장 그윽한 얘기……>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닥아 앉아
가장 그윽한 얘기 낮에 듣지 못하던 가장 깊은 데를 스치는 얘기를 들려주게
오늘밤 내가 아마 몹시 약해서 그런가보이

파도치는 바다를 잠재우는 바람처럼
내 가장 숨은 곳과 앞은 고장을
情이 배인 눈초리로 쓰다듬어 주렴

내 본시 한없이 약하고 허물 많은 俗된 人間일 따름
호걸도 영웅도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구지 후회지 않으나

다만 착하게 人情의 그늘에 서로 의지해 삶이 소원이네

不義와 싸울적엔 표범처럼 強하라 채찍을 치라
혹은 사특한 利害로하여 밭길이 주춤거림은 아닌가
아침과 위협 때문에 허리가 주춤거림은 아닌가
자빠지기 쉬울적에야 말로 그대 한마리(디?)가 무쇠기둥이었네

그러나 오늘밤만은 그 거센 얘기일랑 그만두고
저 가슴속 제일 깊은 구석구석까지 숨이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人間以上인 것처럼 성을 내면 도모지 무서우이
저 가장 약하고 늙은 짐승처럼
눈물이 고여 그대 눈방울이 더욱 영롱하이
-시 <닥아 앉아 가장 그윽한 얘기……>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을 병든 감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부정하던 초기시의 태도와는 달리 인간의 ‘情’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와 ‘그대’와의 거리는 ‘닥아 앉아’라는 시어처럼 가깝다. 이것은 세계를 거리감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던 초기시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 ‘닥아 앉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이분법을 넘어서, 상호 소통적인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가 ‘그대’를 향해 ‘오늘밤만은 그 거센 얘기일랑 그만두고/ 저 가슴속 제일 깊은 구석구석까지 숨이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때문이다. 이때 그는 주체에 대한 욕망이 ‘人間以上인 것’으로 군림하던 태도임을 깨닫고, ‘가장 약하고 늙은 짐승’처럼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자아가 ‘그대’에게서 ‘눈물’을 발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눈물’은 근원적인 정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김기림은 미래라고 하는 상상적 시간을 통해 주체의 동일시 욕망에 의해 타자를 대상으로 삼던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하였다. 그의 시에서 ‘고향’과 ‘유년’과 같은 시간성의 회복은 자아의 회복을 통해 근원적인 정서의 회복을 가져온다. 시 <童話>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흰 모래둔과 구름으로 선을 친
바다까에는
한낮이면 少年과 海棠花가
일제히 피었다

「코발트」 층계를 기어 올라가다가 말고
숨이 가빠 멈춰 서면은
비둘기 같은 발꼬락 아래서 바다가
風琴처럼 갑작기 소리나기 시작한다

꿈과 대낮의 지경이 분명치 않은
이 마을에서는
조약돌과 조개껍질과 흰 海圖가
제일 큰 財産이었다

이슬 어린 눈동자는 간밤
珊瑚 수풀에서 주어진 眞珠
소라이냥 오무린 귀는 먼 바람소리에도
金屬처럼 울었다

자조 겨드랭이가 얹어옴은
보이지 않는 죽찌가 자라는 까닭

끓는 血管은 필시
바다 파도에 연이었나 보드라
-시 <童話> 전문

이 시는 ‘少年’과 ‘海棠花’ 흰 바다의 정경을 통해 유년의 풍경을 보여준다. ‘꿈과 대낮의 지경이 분명치 않은 마을’은 ‘童話’라는 시의 제목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나타나있다. 즉 이 시는 시간의 회복을 통하여 ‘童話’와 같이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유년의 고향을 회복하고 있다. 이 시에서 ‘조약돌과 조개껍질과 흰 海圖’가 전 ‘財産’이라고 하는 진술은 자본주의와 결탁한 근대풍경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

의 시적 자아는 자본주의의 근대 풍경과는 다른 소박한 삶의 '財産'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회복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겨드랑이'에서 '죽찌'가 다시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날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상의 소설 <날개>처럼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을 통해 김기림은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자아의 회복을 통해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고향'과 '유년', '情'과 같이 근원적인 삶의 정서를 회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초월하여 그의 시에서 '우리'라고 상호 소통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오늘은 惡魔의 것이나>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門이 아니라 壁인 것 같다
바위가 아니면 벼래
또 밑없는 골자구니

길이 너무 험하야
두고가는 무덤이 자저
진달래와 두견새 우름소리 숲을 날 아직도 많을까부다
그러나 地球는 부질없이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못 사라지는 것들의 亡靈인 것처럼
이즈러진 電車와 강아지와 거지가
악을 쓰며 쫓겨댁기는 거리
모두가 헐벗고 춥고 배가 고파
악이 오른 찌푸린 거리
쓰레기 쌓인 골목을 돌아
열 스무번 다시 이러한 가야할 길

이 길을 돌아가야만
바다가 트인 平野로 나간다 한다

地球는 부질없이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아모리 그뭍밤일지라도 저기 별이 있어 좋지않으나
 薔薇와 무지개 가득차 우리 가슴이 부풀어 좋지 않으나
 오늘은 惡魔의 것이나
 來日은 우리의 것이다
 -시 <오늘은 惡魔의 것이나> 전문

이 시에서 ‘오늘’을 ‘惡魔’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적 자아에게 현실은 ‘門이 아니라 壁인 것 같다’라는 표현처럼 실존적 상황에서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위가 아니면 벼래/또 밑없는 골자구니’라는 표현은 식민지 현실에서 식민지적 공간성을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길을 돌아가야만 바다가 트인 平野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 공간 속에서 ‘來日’이라고 하는 미래의 상상적 시간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함으로써 식민지라는 현실을 타개해나가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상호소통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惡魔’와 같은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아모리 그뭍밤일지라도 저기 별이 있어 좋지않으나’는 것은 루카치의 전언(179)처럼 어두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희망을 예견하려는 시적 자아의 의지를 반영한다.

김기림은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근대 이후 현재화된 시간 인식은 과거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현재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비극적 전망(180)을 초래하였다. 김기림은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

179) 자연 질서와 연대한 근원적인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이러한 태도는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루카치의 이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G.H.R 파킨스, 김대웅 역, 『루카치 美學思想』, 문예출판사, 1994 참조)

180)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과 현재화된 시간 인식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결정론이 유행하면서 미래는 디스토피아적 전망 속에서 인간의 능동성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미래파의 인공미학은 자연미학을 대체하면서 외형적인 양식에 중독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상 속에서 미래 시간에 대한 전망은 엔트로피 법칙과 같은 종말론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스티븐 킨, 「생생한 현실이 된 미래」, 위의 책, pp. 239-273 참조)

나 근대에 의해 황폐해진 시간성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성의 회복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 황폐해진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과시즘의 실존적 위기 상황 속에서 김기림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과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개인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3.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

민족주의는 인간의 육체에 고결함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민족주의가 과시즘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는 더욱 더 고결함의 가치에 의해 종속되었으며 이때 과시즘은 인간의 육체와 그 감각적 특질 및 성적 기능들에 대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의 활동 패턴을 지배하였다.¹⁸¹⁾

1945년 해방 후 탈식민의 거리감각과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김기림의 노력은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김기림이 발견한 ‘민족’은 앤더슨의 ‘상상공동체’¹⁸²⁾ 혹은 해방 후 민족주의 진영에서 내세운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개념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일민족이라는 혈연중심의 민족 개념을 지양하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통해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민족의 침략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를 ‘반동적 민족주의’라며 비판하였다.¹⁸³⁾ 「將來할 조선문학」이라는 글에는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어떤 나라의 문학에 대한 문학자의 태도는 '내셔널리즘'과 세계주의자와의 두 가지로 대립한다. 愛蘭 에 있어서는 '에즈'일파는 전자에 속하고 '조이스'같은 사람은 고립한 세계주의자이다. '나치스'의 호령 아래 있는 독일 문학은 극단의 '내셔널리즘'이라고 듣는다.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의 문학상의 '내셔널리즘'은 朝鮮主義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

181)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p. 14.

182) 앤더슨은 상상공동체로서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국주의의 성립과정 속에서 민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근대민족주의 기원으로 이해하였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참조)

183) 김기림, 「시와 민족」,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 151.

것이 조선적 특성을 가지고 세계문화에 참여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한다. 그것은 구경에 가서 세계주의와 일치하는 건설적인 까닭이다.¹⁸⁴⁾

이 글에서 김기림은 ‘내셔널리즘’과 연대한 ‘민족’이란 결국 ‘나치스’와 같은 극단의 제국주의임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한다. 조이스와 같은 ‘고립한 세계주의자’의 예를 들면서 조선적 특성, 즉 민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되 ‘민족’과 ‘세계주의’를 결합하여 인식하였다.

이는 ‘내셔널리즘’, 즉 국민을 주체로서 내세운 국민국가가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영토화하려는 파시즘의 세계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기림이 주장한 민족의 성격은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상상적인 타자성을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열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경험 속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앤더슨의 상상공동체처럼 근대 주체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해방 후 ‘민족’의 개념은 민족주의 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에 의해 정치적인 분열을 초래했던 것이다.¹⁸⁵⁾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김기림의 ‘민족’이 해방 후 정국에서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의 개념이 민족주의의 경우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수용될 때 이것 역시 내셔널리즘, 즉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개념과는 달리 ‘세계적인 원리’ 속에서 ‘민족’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지향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민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해방 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1930년대 식민지적 근대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글 「30년대의 소묘」에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184) 김기림, 「將來할 조선문학」, 『김기림 전집』 3, pp. 131-132.

185) 미셸 페쇠는 제국주의 담론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피식민지인의 주체 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동일화’, ‘역동일화’, ‘비동일화’의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김기림이 발견한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한 ‘민족’의 성격(역동일화)는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기림이 인식한 ‘민족’의 개념은 19세기 말, 제국주의에 저항해 싸든 엘리트 계층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지향한 것으로 상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터 차일즈, 페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pp. 391-393 참조/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p. 280-281 참조)

오늘에 와서는 한 민족만을 구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은 벌써 있을 수 없다. 한 민족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세계의 원리이어야 한다. 그것은 한 민족의 창조적 의욕을 諸民族의 支持 위에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이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런데 구주에 있어서 혹은 결산기 뒤에 앞으로 기대하는 신질서의 건설에는 제 민족이 민족의 자격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족을 內包하면서도 민족을 초월해야 할 신질서에 있어서 민족 상호간의 정신적 이해와 융합을 達할 수 있는 형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의 저편에 다시 깊이 뻗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서로의 문화의 접촉과 포용과 존경이라는 노력이다. 186)

그는 이 글에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원리’로서 ‘한 민족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세계적인 원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때 김기림이 지향한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김기림에게서 ‘민족’은 ‘諸民族의 支持 위에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 ‘창조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족을 內包하면서도 민족을 초월해야 할 신질서’ 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의 ‘민족’을 식민지적 타자성의 저항으로서 세계주의와 공동체성을 결합한 상상적 타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김기림의 ‘민족’은 근대 민족주의의 기원이 된 앤더슨의 상상공동체와는 다른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상상적 타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대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¹⁸⁷⁾의 발견을 통하여 김기림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파시즘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시론에 해당하는 「시와 민족」이라는 글에서 그는 ‘민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다.

8·15 직후에 조선시인이 찾아 얻은 커다란 수확은 공동체 의식의 자각이라는 의미의 말을 나는 어디서 쓴 일이 있다. 일제 아래서 영기고 영긴 反帝意識의 개방의 한 결과였다.(중략) 그러나 8·15 이후 민족내부에 반민족적 요소의 분해작용이 일어나자 이에

186) 김기림, 「30년대의 소묘」, 『김기림전집』 2, 위의 책, pp. 50-51.

187) 식민지적 공간성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기림은 주체 성립에 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체의 욕망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연결된 것임을 인식하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 전망을 통해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으로서 해방 후 김기림의 민족 개념을 상상적 타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그가 주체 욕망과는 다른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때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의 는 식민지적 타자화와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으로서 탈식민의 관점에서 타자성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 치열한 투쟁 사이에 헛갈려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느새 행방불명이 되어버릴 염려가 있는 것은 한 기우에만 돌릴 일일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른 민족의 침략의 도구로 쓰여질 때와 또 민족 내부의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비착취 관계를 糊塗하기 위하여 이용될 때 그것은 물론 반동성을 띠어 오는 것으로 준열한 비판과 폭로 앞에 내세워져야 할 것이다.¹⁸⁸⁾

1947년에 「新文化」에 발표된 이 글에서 김기림은 시와 민족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민족’의 개념을 ‘공동체의식’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해방 후 정국에서 민족 내부에 ‘반민족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행방불명’된 상황, 즉 분열된 상황에 처해져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정은 ‘민족’의 개념이 민족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켜 그것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한 채, 이데올로기로 변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로 변모된 민족의 개념은 해방 후 서로 다른 민족주의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져왔는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은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헤게모니적 성격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해방 정국은 ‘민족’이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변모되는 가운데 한반도에 민족 내부의 전쟁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에 관한 이러한 오해는 혈연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 속에서 오늘날에도 불식되지 않고 제 3세계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헤게모니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김기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를 ‘식민성 근대주의자’¹⁸⁹⁾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민족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경험 속에서 친일에 반대되는 현실 정치의 개념 속에서 민족을 이해함으로써 ‘민족’을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서 이용하기 때문이다.¹⁹⁰⁾ 그러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른 민족의 침략의 도구로 쓰여질 때와 또 민족 내부의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비착취 관계를 糊塗하기 위하여 이용될 때 그것은 물론 반동성을 띠어 오는 것으로 준열한 비판과 폭로 앞에 내세워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김기림의 글은 그를 근대의 과학적 인식에 경도된 나머지 식민지 현실을 망각했던 근대주의자로 평가하는

188) 김기림, 「시와 민족」, 『김기림 전집』 2, 위의 책, pp. 150-151.

189) “일본이라는 필터에 걸러진 유럽주의를 견지함으로써 김기림의 시선이 놓인 주체 위치는 식민지 조선이기보다 일본에 가깝다”(구모룡, 「식민성 근대주의의 한 양상」, 『문학수첩』, 2005년 여름호)

190) 김기림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역사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친일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모더니즘 주체의 허위성을 폭로하려는 리얼리즘 문학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의들¹⁹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민족과 문화에 관한 김기림의 인식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보자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세계주의와 결합한 ‘민족’의 개념이 인류 공영의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식민지적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 김기림은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탈식민적 관점에서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¹⁹²⁾ 이때 김기림은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성과 ‘새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성 속에서 ‘민족’이라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시인의 사명을 확인한다. 시 <詩와 文化에 부치는 노래>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손을 벌이면 山 넘어서 바다 건너서
四方에서 부잡하는 뜨거운 體溫
初面이면서두 만나자마자 가슴이 열려
하는 얘기가 眞理와 美의 근방만 싸고똥이 자랑일세

그대 帽子 구멍이 뚫려 襤褸가 더욱 좋구려
거죽과 義롭지 못한 것 우에 서리는 눈초리
怒염 속에 감추인 人情의 불독아니
나라나라마다 우리들 소리 외롭지 않아 미뿌이

나기前부터도 詩의 脈으로 이긴 어리석은 種族
피아닌 系譜가 寶石처럼 빛나서 더욱 玲瓏타
陶淵明과 韓龍雲과 魯迅과 「타골」
「단테」와 「뵘들레르」와 「고리키」와 「오닐」

191) 고봉준, 「모더니즘의 초극과 동양정신」, 『한국시학연구13호』, 2005, 8/ 배호남, 「김기림의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16호』, 2006, 8. (이러한 논의들은 ‘시론’을 ‘시’와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창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생산해내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2) 1930년대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에 관한 천착에서 벗어나 김기림은 탈식민의 거리 감각을 통해 식민담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했으며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의 시 공간에서 벗어나 자아와 세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을 발견하였다. 즉 탈식민의 관점에서 그는 탈식민의 거리감각과 미래라고 하는 상상적 시간, 나아가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모더니즘을 새롭게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砲臺와 國境을 비웃으며 마음마음의 고집은 뚜껑을 녹이며
江처럼 계절처럼 퍼져오는 拒否할 수 없는 物理
메마른 沙漠을 추기는 샘 어둠 속에 차오는 빛
世界와 古今에 넘쳐흐르는 것 아- 詩여 文化여
-시 <詩와 文化에 부치는 노래>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砲臺와 國境을 비웃으며’라며 국경을 초월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아닌 系譜’라는 구절처럼 혈연을 초월한 ‘種族’, 즉 국가와 혈연을 초월한 민족에게 ‘陶淵明과 韓龍雲과 魯迅과 「타골」, 「단테」와 「뵘들레르」와 「고리키」와 「오닐」’같은 세계문학의 유산을 통해 조선적인 것에 세계적인 것을 결합한다.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그는 ‘메마른 沙漠을 추기는 샘 어둠 속에 차오는 빛’으로서 ‘詩’와 ‘文化’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이때 국가와 혈연을 초월한 ‘민족’은 ‘詩’와 ‘文化’를 통해 구현된다. 김기림은 새 나라, 새 역사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성과 시간성 속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염원하면서, ‘詩와’ ‘文化’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시 <詩와 文化에 부치는 노래>를 통해 그는 이러한 염원에 대한 시인으로서 사명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기림이 발견한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은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대한 비판으로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이때 김기림이 지향한 민족은 혈연중심의 자문화적인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지향한 것이었다. 탈식민의 거리감각과 미래라는 상상적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시·공간에서 벗어나 식민지적 근대에 의해 황폐해진 자아와 세계를 회복하고, 마침내 그는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주체 욕망에 의해 매몰되지 않는 타자성의 주체를 염원하였다. 즉 탈식민의 타자성으로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그의 시는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천착했던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더니즘을 새롭게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IV. ‘몸’의 지형도와 차이의 언어-이상

이상은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식민담론이 각인된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 ‘탈신’ 욕망을 통해 제국주의적 시·공간에서 탈주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담론이 식민 주체로 행세하려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상상된 것임을 비판하고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울’의 구조를 통해 식민담론이 은폐한 가부장적인 식민질서와 자본주의적 쾌락욕망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의 위치에서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담론을 교란시켜나갔다. 이때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식민담론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차이의 언어로서 이상의 시를 저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불구자와 매춘부와 같은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이 식민 주체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성적 은유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인식하고 성적 치환과 환유를 통하여 성적 은유를 해체시킴으로써 식민담론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는데 <중생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학적 여정을 통하여 그는 자아부정을 위해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합리성을 가장한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 승고미를 체험케 하였다. 소외의 존재방식과 죽음을 통한 자아부정의 과정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제국주의적 시·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이상 시의 시적 여정은 식민담론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 식민담론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의 타자성을 해체적 자아를 통해 새롭게 구현해나간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1. 식민지적 ‘몸’의 절망과 ‘거울’의 탄생

(1) ‘거울’의 탄생과 식민지적 ‘몸’

제국주의는 근대 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피식민지인을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서 내세움으로써 지배와 피지배의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담론에 의해 조선의 영토 뿐 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역사까지도 날조하였는데, 근대의 물질화된 시간 속에서 감각적

으로 근대를 경험하던 당대의 조선인들은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근대인에 편입되려는 주체 욕망을 수용하게 된다. 이때 민족주의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 날조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계몽주의와 결합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주의는 계몽주의와 결합하여, 전통적인 民의 개념을 민족¹⁹³⁾이나 국민의 표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 속에서 개개인은 일본 제국주의가 내세운 근대 주체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민족이라고 하는 계몽적 주체와도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계몽의 수사학 속에서 민족담론은 민족의 용법 속에서 개개인을 민족이나 국민으로 동일화했기 때문에¹⁹⁴⁾ 개개인은 근대인과 민족이라고 하는 주체의 욕망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민족과 근대 주체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를 살피는 것은 이상 문학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과 연관된 타자의 담론임을 인식하고 ‘거울’이라고 하는 주체형성의 계기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다. 즉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는 ‘거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환상을 통하여 피식민지인들의 타자화시키고 식민지 영토확장 및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때 피식민지인은 타자의 담론, 즉 제국주의 담론의 상상과 관계를 맺고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수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 피식민지는 타자의 담론, 즉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의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관한 식민담론의 상상에 의해 자신이 지배되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¹⁹⁵⁾

따라서 식민 공간 속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계기와 불화한다는 것은 사회가 용인하는 주체되기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烏瞰圖」 연작에 수록된 시 <詩第一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13인의兒孩가道路로 疾走하오.

193)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기원을 살피면서, ‘민족’이란 개념이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으로서 역사적 계기에 의해 발명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 위의 책 참조)

194) 정여울, 「근대 계몽기 ‘민족’·‘국가’ 개념의 양가적 수사학」, 『민족담론과 한국근대문학』, 한국근대문학회 제 8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8, p. 41 참조.

195) C. 카스토리아디스, 양운덕 역, 위의 책, p. 181.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第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4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5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6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7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8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9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10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1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1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13人的兒孩는무서운兒孩와 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 1人的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

그중에 2人的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

그중에 2人的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

그중에 1人的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

(길은푼골목이라도 適當하오.)

13人的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좋소.

-시 <詩第一號> 전문

이 시에서 ‘13人的 兒孩’는 ‘무서워하는 兒孩’와 ‘무서운 兒孩’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3人的 兒孩’는 모두가 ‘무섭다고 그리오’와 같이 ‘무서움’에 의해 동일한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3人的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같은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무서워하는 兒孩’라는 상황이 13번 반복되고, ‘13人的兒孩는무서운兒孩와 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

뿐이모였소/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라는 진술을 통해 '무서움'과 '막다른 골목'의 상황을 반복한다. 시적 자아가 이러한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무서움'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가 '무서움'을 강박적으로 언급하는 데에서 나아가 '무서움'의 주체를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라는 분열적인 상황으로 이해한다. 즉 '무서움' 속에서 '무서움' 때문에 '13인의 兒孩'는 '무서운兒孩'와 '무서워하는兒孩'로 분열된 것이다.

이 시는 '무서움', 즉 공포 속에서 '13인의 兒孩'가 분열되는 상황을 통해 식민 공간 속에서 타자의 담론, 즉 정체성 계기에 의해 분열된 피식민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식민지들은 제국주의적 주체 뿐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계몽적 주체와도 불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적 주체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주의는 계몽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민족의 용법에 의해 전통적인 民의 개념을 거세해 민족이나 국민의 표상으로서 동일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포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계몽이 공포의 원인으로 지목한 신과 자연과 같은 세계를 주술적 세계로 타자화시키는 과정에서 계몽이 신화체계로 회귀하여 공포와 결합하는 계몽의 과정¹⁹⁶⁾과 연관된다. 즉 공포를 통해 식민공간 속에서 자아는 근대적 주체와 민족이라고 하는 계몽적 주체로서 자아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이'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위치에서 근대 주체가 되려는 욕망과 제국주의적 주체의 공포에서 벗어나 민족이라는 계몽적 주체가 되려는 욕망이 모두 공포에 의해 분열된 상황임을 드러낸다. 즉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이'는 근대 주체와 공포한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주체에 대한 욕망이 분열된 상황을 통해, 파시즘의 상황 속에서 전쟁 욕망과 같은 공격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동일한 상황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양의 파행적인 근대를 목도하고 근대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근대 초극을 내세우게 된다. '13인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의 상황과 '길은뚝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13인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좋소'의 상황은 근대를 향해 질주하는 상황과 근대의 종말이라는 상황 모두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파생된 무서움, 즉 공포의 상황임을 드러냄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196)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노명우 편, 『계몽의 변증법』, 위의 책, pp. 118-121 참조.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일본의 도착된 문화적 사명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민족적 차이를 소거하고 근대국민국가를 탄생시키게 된다.¹⁹⁷⁾ 인류애를 통하여 조선인도 일본인도 동일한 인류의 일원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즉 내셔널리즘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근대 주체와 공모한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대의 조선인들은 세계와 근대의 일원을 보증하는 근대 시민의 욕망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식민담론은 문명의 논리를 통해 문화의 위치에서 자신들을 근대 주체로 표상해나감으로써 근대 주체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 즉 공포에 대한 상상을 통해 조선을 식민화하였던 것이다.¹⁹⁸⁾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학도로서 이상은 일본의 식민담론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鳥瞰圖」 연작을 통하여 이러한 일본의 식민담론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임을 비판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건축설계의 조감도 도면처럼 구조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는 식민담론의 실상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조감도를 「鳥瞰圖」로 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식민 공간 속에서 그는 일본의 검열을 피해 의도적으로 어휘를 교란하고 이를 암호화함으로써 식민담론을 교란시켜나갔던 것이다.¹⁹⁹⁾ <鳥瞰圖> 연작을 통해 이상은 식민 공간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의 공포에 의해 분열을 경험할 수 없었던 피식민지인의 운명을 까마귀를 의미하는 「鳥」자를 삽입하여 암시한 것이다.

이상이가 그의 시에서 사회 부적응자 내지는 무능력한 자아로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아가 죽음 욕망을 통해 자아를 부정한 것은 근대 주체 욕망이 제국주의적 욕망임을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건축학도로서 세계를 구조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던 이상에게 식민담론은 벗어날 수 없는 불운한 조감도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가 「불화」와 「적의」가 내면화된 몸을 통해 「형해」(形骸)에 가까운 자아 부정으로 나아간 것은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자아의 정체성이 왜곡·날조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을 거세해나갔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197)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가라타니 고진 저, 송태욱 역, 『근대일본의 비평』 1, 소명출판, 2002 참조.

198) 고모라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위의 책, pp. 33-37 참조.

199) 미셸 페쇠는 제국주의 담론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피식민지인의 주체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식민지적 동일화를 모방하면서도 어휘를 교란시키는 이러한 주체의 저항을 비동일화로 설명한다.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즈, 위의 책, pp. 391-393 참조)

그런데 식민공간에서 현재화된 근대의 시간인식은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청산하고 근대적 주체로서 책임을 시적 자아에게 전가한다. 「烏瞰圖」연작시 가운데 <詩第二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
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
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
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경중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
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
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나

-시 <詩第二號>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아버지의아버지’가 되고, 나아가 아버지의 조상을 대신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것은 아들되기와 아버지되기, 조상되기가 일련의 자연스런 시간의 연대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현재의 ‘나’에게 지움으로써 근대 주체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전통적인 가정 윤리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을 존속시키는 중심의 위치에 선다고 할 때, 시에 나타난 아버지와 조상의 모습은 중심에서 밀려나 무력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인 삶에서 아버지와 조상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전형이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무능한 아버지를 통하여 시적 자아는 근대적인 삶의 양식이 전통과 역사와 같은 전근대적인 삶의 가치들을 무력한 것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폭로한다.

근대적 주체에 대하여 일본제국주의는 일본사상사를 검토하면서 이를 역사철학적으로 재구성한다. 근대적 주체로서 일본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해 근대국가로서 일본을 발명(200)했을 뿐 아니라, 근대 주체의 기원을 일본의 역사를 통해 구축하였다.(201) 이상은 <烏瞰圖>의 연작을 통하여 식민담론을 비판하면서 근대 주체를 표방한

200)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강제적인 문호개방을 경험한 일본에게 수용되어, 역사적으로 거의 같은 문화권에 속한 아시아 인접 지역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일본의 도착된 자의식으로 변형되었다. (강상중, 「일본의 식민정책과 오리엔탈리즘」, 위의 책, p. 92 참조)

201) 『일본정치사상사연구』를 집필한 미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사상사 속에서 중국의 중화사상만이 절대적인 성인의 도가 아님을 인식했던 소라이학에 주목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기원을 일본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였다.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學校 出版會, 1952 참조)

일본 제국주의의 이러한 주체 욕망이 전통과 역사와 같이 전근대적인 가치들을 부정하고 타자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주체로 표상해나갔음을 폭로한다. 그런데 이때 근대 주체로서 살아가게 된 시적 자아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적 자아는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근대 주체가 되었지만, 전근대적인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그는 고아와 같이 어떠한 삶의 전형을 구할 수 없는 고독과 단절의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를 통하여 그는 근대 주체에 대한 욕망이 부적절한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근대 주체의 욕망 속에서 조선인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전근대적인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해질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 공간에서 당대의 조선인들은 주체 욕망이 일본의 제국주의와 연관된 것임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식민담론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상은 근대 주체를 욕망하는 것이 제국주의 파시즘의 전쟁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임을 비판하였다.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통하여 제국주의는 스스로를 주체로서 성립시키고 피식민지인을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주체의 욕망이란 식민지 영토확장을 위한 제국주의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烏瞰圖」 연작시 가운데 시 <詩第三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었기도하니까싸움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싸움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든지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시 <詩第三號> 전문

이 시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싸움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이라고 하는 욕망이다. 이러한 싸움의 원인이 된 욕망은 ‘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과 ‘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의 ‘싸움’을 통해 욕망을 충족한다. 시적 자아가 ‘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라는 진술을 통해 싸움이 해소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싸움’이 ‘싸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의 욕망을 해소함으로써 ‘싸움

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 싸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근대주체는 스스로를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타자를 대상으로 삼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근대 주체의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주체 욕망을 비판하면서, 주체 욕망을 '언어'의 문제로 인식한다. 「鳥瞰圖」 연작시 가운데 시 <詩第九號 銃口>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每日같이熱風이불더니드디어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닿는다.恍惚
한指紋골짜기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쏘아라.쏘으리рода.나는
내消化器官에묵직한銃身을느끼고내다물은입에매끈매끈한銃口를느낀
다그러더니나는銃쏘으드키눈을감으며한방銃彈대신에참나의
입으로무엇을내어배알었더냐.

-시 <詩第九號 銃口> 전문

이 시에서 시적자아 '나'는 '銃身이란 표현처럼 기계화되어있다. 시적 자아의 몸이 기계가 된 것은 '내消化器官에묵직한銃身을느끼고내다물은입에매끈매끈한銃口를느낀다' 하는 표현처럼 위협을 느끼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나'는 '銃쏘으드키눈을감으며한방銃彈대신에' 나의 입으로 '무엇'을 뱉아낸다. 즉 '銃口'를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나'의 몸은 기계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銃口'를 통해 나오는 '銃彈'같은 것을 발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두려움이 각인된 '몸'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러한 사정은 근대 주체와 관련하여 언어를 통해 주체를 표상함으로써 근대 주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파생된 개념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스스로를 주체로 표상하기 위해 타자를 야만인과 괴물과 같은 표상을 통해 이해한다. 대부분의 피식민지인을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러한 시각 때문이다. 식민담론은 타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표상활동을 통하여 타자를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피식민지인을 야만인과 같은 표상을 통해 호명하는 것은 타자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 주체의 욕망에 의해 타자를 호명한 것이기 때문에 금치산자, 혹은 성적 무능력자,

야만인과 같은 피식민자에 대한 호칭은 식민주체가 피식민자를 동일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식민담론에서 제국주의적 주체라는 것은 ‘타자’라는 미지의 대상에 투영된 식민 주체의 자기 이미지, 즉 자기반영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이때 피식민자의 정체성은 식민주체가 피식민자를 동일화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 두려움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이때 피식민자의 정체성은 양가적인 특성²⁰²⁾을 갖는다.

이상이 스스로를 야만인²⁰³⁾과 광인의 형상을 통해 표현한 것은 이러한 표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의 동일시 욕망에서 벗어나 그것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그가 조감도를 ‘鳥瞰圖’로 표기한 것은 이러한 시적 언술을 통하여 식민담론을 교란시키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즉 특수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식민담론을 교란시킴으로써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였던 것이다.²⁰⁴⁾ 그가 일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로 시를 창작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식민담론을 교란시키는 저항의 언어였던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 형성이 표상활동, 즉 언어를 통해 매개됨을 인식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식민담론을 교란시키는 시적 저항을 통해 식민담론에 편입되지 않는 저항의 언어, 즉 차이의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개의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전자가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거울’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거울’은 외부세계와의 일체 소통을 거부한 자의식의 ‘거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시 <거울>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202) 바바는 프로이트의 에로스(성적 본능)와 타나토스(죽음충동)라는 두 부류의 본능에서 ‘양가성’이라는 용어를 빌렸는데, 바바는 이러한 이중성(사랑에 내재한 미움의 본능)을 받아들여 식민담론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때 이러한 식민담론의 양가성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두려움과 욕망, 공격성과 자아도취를 함께 포함하는 동일시과정이며, 이러한 주체의 동일시 과정 속에는 이미 내적 분열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즈, 위의 책, pp. 257-259 참조)

203) 일본 제국주의의 표어를 식민담론이라는 학문적 표상을 통해 구성하였던 대표적 식민이론의 학자,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하면, 그는 ‘문명’, ‘반개’, ‘미개’라는 삼극 구조의 논리를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한다. 즉 그는 ‘야만’을 계속해서 날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화의 논리를 통해 중국의 조공외교권적인 시스템을 붕괴시켜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맺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청나라와 조선의 종속관계를 단절시키는 ‘문명국’으로서의 일본의 사명을 강조하였던 것이다.(고모라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위의 책, pp. 46-47 참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식민논리는 문화의 논리를 통해 중주국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은 ‘문명’과 대립되는 ‘야만인(미개)’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다.

204)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즈, 『탈식민주의 이론』, 위의 책, pp. 391-393 참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握手를받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마는
또째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시 <거울> 전문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두 개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 까닭을 시적자아는 두 개의 거울이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전자가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거울'은 외부세계와의 일체 소통을 거부한 자의식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자의식의 '거울'을 발명한 것은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즉 그는 자의식의 '거울'을 발명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거울'에 저항해나갔던 것이다. 이 시에서 '거울 속의 내'가 '거울 밖의 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거울'이라는 문학적 자의식을 통해 자폐아처럼 일체의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차단시키고자 하였다. '거울 속의 나'는 이러한 자의식을 통하여 '외로된事業에골몰'함으로써, 어떠한 과학적 진단에 의해서도 '診察'할 수 없는 측량불가능한 존재로서 위치하게 된 것이다.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에 편입되지 않고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식민담론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자의식의 세계 속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烏瞰圖」 연작시 가운데 시 <詩第四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중략)

謬斷 0:1

26.2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시 <詩第四號> 중에서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責任醫師’처럼 ‘患者의容態’를 진찰한다. 그런데 진찰은 ‘謬斷’, 즉 잘못된 판단으로 0:1이라는 수의 세계, 즉 암호를 통해 진찰내용을 기록한다. 이때 그는 이러한 수의 세계를 통하여 합리적 세계를 가장한 제국주의적 주체 논리로부터 자신을 진찰할 수 없는 존재의 위치, 즉 0이라는 수의 위치에 위치시킴으로써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0:1이라는 수의 대비는 1이라고 하는 절대성, 즉 식민담론의 주체 논리로서 자신을 진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는 ‘責任醫師’라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患者’로서 가장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진찰의 논리를 해체함으로써 합리성을 가장한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상이 그의 시를 통해 자의식의 ‘거울’을 발명한 것은 합리성을 가장한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 즉 정체성이 ‘거울’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자의식의 ‘거울’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이 식민 주체에 의해 상상된 자기 이미지에 불과한 것임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상은 근대 주체의 합리성을 표상한 제국주의 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 속에서 식민담론이 각인된 타자화된 몸의 형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의식의 ‘거울’을 발명하였다. 즉 문학을 통해 이러한 자의식의 ‘거울’을 발명함으로써 그는 합리성을 주장하는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차이의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2) '탈신(脫身)' 욕망과 '외출중'인 분신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피식민자를 식민 주체와는 다른 타자의 위치에서 지시하였는데,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 속에서 피식민자는 식민 주체에 의해 타자화된 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시에서 타자화된 '몸'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게 '몸'은 식민담론이 각인된 장소로서, 그는 자신의 몸에 각인된 식민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신(脫身)' 욕망을 지향하였다. 「烏瞰圖」 연작시 가운데 <詩第十五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1.

나는 거울없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외출중이다. 나는
至今거울속의나를무서워하며떨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
어떻게하려는陰謀를하는中일까.(생략)

3.

나는 거울있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憂鬱한얼굴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
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囹圄되어있드키그도나 때문에
囹圄되어있다.

4.

내가缺席한나의꿈. 내偽造가登場하지않는내거울. 無能이라도
좋은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디어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
기로決心하였다. 나는 그에게視野도없는들窓을가르키었다. 그들
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
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가깝다.

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 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 나는거울속의내왼
편가슴을겨누어拳銃에發射하였다. 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였으
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있다.

6.

模型心臟에서 붉은 잉크가 옆질러졌다. 내가 遲刻한 내 꿈에서 나는 極
刑을 받았다. 내 꿈을 支配하는 者는 내가 아니다. 握手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封鎖한 거대한 罪가 있다.

-시 <詩第十五號> 중에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인 '나'의 위치는 '거울없는室內'에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도 두 개의 '거울'이 존재한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거울속의나'를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거울속의나'가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거울없는 실내'에 들어가 '나를 거울속에서 해방'하려고 한다. 즉 자의식을 통해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거울속의나'가 '거울없는 실내'에 들어옴으로서 시적 자아는 '거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적 화자가 '내가 缺席한 나의 꿈'을 꿈꾸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민공간에서 자아는 식민담론의 정체성에서 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적 자아는 '缺席', 즉 자아의 부재를 증명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시적 자아에게 '거울속의나'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식민담론의 정체성에 의해 '偽造'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식민담론에 의해 타자화된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自殺을 勸誘'하기에 이르나 죽음조차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타자의 위치에서 그는 자신이 '不死鳥'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내 꿈을 支配하는 者는 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握手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을 封鎖한 거대한 罪가 있다'라며 죄의식을 느낀다. 즉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을 부정하는 것은 식민공간에서 시적 자아를 '두 사람'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담론에서 타자는 동물적 에로티시즘과 같이 동물적인 것으로 비하되거나 성적 비하, 나아가 전염병과 같이 감염의 공포와 연결된 것이었다. 시적 자아가 '두 사람을 封鎖한 罪'를 느끼는 것은 식민주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즉 식민 담론에 의해 타자에 대한 인식은 식민주체를 위협하는 악의 상징으로 표상되었다. 시적 자아가 '罪'를 느끼는 것은 식민주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이 각인된 타자화된 자아, 즉 타자화된 몸의 상황에서 이상은 탈신(脫身)을 욕망한다. 그러나 탈신 욕망에도 불구하고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그는 식민주체의 위치에 대해 반감을 품는다. 「鳥瞰圖」연작시

가운데 <詩第五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前後左右를除하는 唯一의痕迹에 있어서
翼殷不逝 目大不睹
胖矮小形の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古事를有함
(중략)
臟腑라는것은浸水된 畜舎와 區別될수있을는가
- 시 <詩第五號>중에서

이 시에서 시적자아는 ‘前後左右를除’하고 ‘痕迹’으로 존재한다. 이때 그는 ‘翼殷不逝 目大不睹²⁰⁵⁾’, 날개가 커도 날지 못하고 눈이 커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때 시적 자아의 눈앞에 상처를 입고 추락하는 뚱뚱하고 왜소한 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인간이 ‘痕迹’으로서 존재하게 된 상황에서, 신의 모습이 인간처럼 왜소한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 속에서 시적 자아는 ‘오장육부’라는 인간의 신체가 ‘浸水된 畜舎’와 ‘區別’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동물처럼 비인격화된 타자의 위치를 통해 합리성을 위장한 식민 주체의 비인격적인 성격을 비판한다.

이때 식민지 현실에서 자아의 모습은 ‘痕迹’이라는 표현처럼 정체성의 소멸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은 창씨개명을 통하여 제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식민지 조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즉 ‘痕迹’이나 ‘畜舎’에 사는 짐승처럼 비인격적인 타자의 위치를 통해 지배자로 군림하는 식민 주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식민담론이 각인된 몸을 통해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의 절망이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시 <骨片에 관한 無題>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신통하게도血紅으로染色되지아니하고하이얀대로
뽕끼를칠한사과를톱으로쪼갠속살은하이얀대로
하느님도亦是뽕끼칠한細工品을좋아하시지-사과가아무리빨갛더라도
도속살은亦是하이얀대로. 하느님은이걸가지고人間을살짜속이겠다고.
墨竹을寫眞撮影해서原板을햇별에비쳐보구료-骨格과같다.
頭蓋骨은石榴같고아니石榴의陰畫가頭蓋骨같다
여보오 산사람骨片을보신일있수> 手術室에서-그건죽은거야요살

205) 『莊子』, 「山木篇」에서 인용

아있는骨片을보신일있수? 이빨! 어머니-이빨두그래骨片일까요.

그렇담손톱두骨片이게요?

난人間만은植物이라고생각커든요.

-시 <骨片에 관한 無題>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겉모습이 다른 사과처럼 인간을 이루는 구조인 ‘骨片’을 통해 주체로 군림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조소한다. ‘骨片’과 ‘竹’의 유사성을 통하여 시적 자아가 인간을 ‘植物’로 인식하는 것은 주체로 군림하려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려는 것이다. 즉 ‘식물’과의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 시적 자아는 주체로 군림하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즉 ‘墨竹과 骨片’, ‘石榴와 頭蓋骨’의 외형적 유사성을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조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그는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즉 주체로 군림하려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식민 공간에서 지배자로서 군림하려는 식민주체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식민공간에서 식민 주체에 의해 타자의 위치에서 피식민지인의 삶은 그에게 삶의 목적성을 파기하고, 사이비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시 <位置>는 식민공간에서 사이비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드러내고, 나아가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아의 ‘分身’을 제출함으로써 식민주체의 위치를 비판하였다.

重要한位置에서한性格의심술이悲劇을演繹하고있을즈음範圍에는
他人이없었던가. 한株-盆에심은外國語의灌木이막돌아서서나가버
리려는動機요貨物의方法이와있는椅子가주저앉아서귀먹은체할때마
침내가句讀처럼고사이에끼기어들어섰으니나는내責任의맷시를어
떻게해보여야하나.哀話가註釋됨을따라나는슬퍼할準備라도하노라면
나는못견더帽子를쓰고밖으로나가버렸는데웬사람하나가여기남아
내分身提出할것을잊어버리고있다.

-시 <位置> 전문

이 시에서 ‘중요한 位置’는 주체로 군림하는 식민주체를 지시한다. 이때 ‘重要한位置에서의한性格의심술’은 식민주체의 욕망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範圍’, 주체의 위치 속에서 시적자아는 ‘他人’의 위치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他人’의 위치는 ‘外

國語의灌木’과 ‘주저앉은 椅子’, ‘句讀’처럼 서있는 시적자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어를 배우고 습득하려는 동기를 포함하여, 새로운 문물을 통해 새로워지려는 태도와 삶에 ‘책임’을 지려는 ‘나’의 노력이 수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시적 자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공간에서 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시적 자아는 견딜 수 없기에,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外出’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 ‘外出’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分身’을 ‘提出’해야만 한다. 결국 식민지적 타자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아의 ‘分身’을 ‘提出’해야 한다는 것은 하는 타자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주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주체의 위치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식민담론에 의해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려는 탈신욕망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 속에서 그는 소외를 체험하게 된다. 「鳥瞰圖」 연작시 가운데 <詩第十四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古城앞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帽자를벗어놓았다. 城위에서나는
내記憶에무거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갯팔매질쳤다. 拋物
線을逆行하는歷史의슬픈울음소리. 문득城밑내帽子결에한사람의乞
人이장승과같이서있는것을내려다보았다. 乞人은城밑에서오히려내
위에있다. 或은綜合된歷史의亡靈인가. 空中을向하여놓인帽子의
깊이는切迫한하늘을부른다. 別안간乞人은漂漂한風采를허리굽혀한
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려놓는다. 나는벌써氣絶하였다. 心臟이
頭蓋骨속으로 옮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이마에닿는다.
내이마에는싸늘한손자국이烙印되어언제까지지어지지않았다.

-시 <詩第十四號> 전문

이 시에서 ‘帽子’는 시적 자아를 상징한다. 시적 자아는 ‘古城앞풀밭’에 위치해있는데 갑자기 ‘城위에서’ 똑같은 시적 자아가 ‘帽子’를 벗고 ‘記憶에무거운돌을매어달아’ 그것을 날려버린다. ‘歷史의슬픈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城밑’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추락한 ‘帽子’와 함께 ‘乞人’ 한 사람이 서 있다. ‘城위’에서 ‘乞人’을 내려다보는 위치와 ‘城밑’에서 ‘乞人’이 오히려 ‘내위에있다’라고 하는 위치는 시적 자아의 위치가 분열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즉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려는 탈신욕망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위협하는 식민주체의 욕망 속에서 자아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민 공간에서 주체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乞人’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이러한 ‘乞人’에게도 위협을 받는다. ‘한개의들을내帽子속에치뜨려넣는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 주체의 욕망을 포기하고 타자화된 자아의 위치, 즉 주체의 위치에서 밀려나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삶의 절망을 드러낸다. ‘乞人’이 ‘나’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타자의 위치에 대한 절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내이마’에 ‘烙印’처럼 찍혀진 ‘乞人’의 ‘손자국’처럼 타자화된 몸, 즉 ‘乞人’이라고 하는 타자의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외를 통해 자아의 위치를 드러낸다.

주체의 위치를 선망하지만, 타자의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의 소외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적 타자의 소외 속에서 그는 주체 욕망을 통해 계속해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烏瞰圖」 연작시 가운데 <詩第十三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졌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威
 脅당하는것처럼새파랗다. 이렇게하여잃어버린내두개팔을나는燭臺세
 움으로내방안에裝飾하여놓았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怯을내
 이는것만같다. 나는이런얌다란禮儀를花草盆보다도더사랑스레여긴
 다. - 시 <詩第十三號>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威脅’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팔’을 ‘면도칼’로 난자한다. 식민 주체의 욕망으로부터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끊어진 ‘두팔’을 ‘燭臺’처럼 방안에 세워두는 행위는 공포스럽다. 그런데 이때 몸에서 떨어져나간 ‘팔’은 ‘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자아는 타자화된 몸의 공포를 드러낸다. 즉 식민담론이 각인된 몸에서 벗어나려는 탈신욕망에도 불구하고 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심리적 공포를 통해 식민주체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이런얌다란禮儀를花草盆보다도더사랑스레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탈신욕망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통해 식민주체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타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식민주체의 위협이 심리적 공포와 공격성을 통해 피식민지인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되는 데서 비롯된다. 즉 무의식에 각인된 공포와 공격성을 통해 그는 이러한 식민 담론이 공격성, 즉 전쟁 욕망과 연관된 것임을 비판하였다. 「鳥瞰圖」 연작시 가운데 <詩第十二號>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때묻은빨래조각이한몽텅이空中으로날라떨어진다. 그것은흰비둘기의때다.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 끝나고平和가왔다는宣言이다. 한무더기비둘기의때가갓에묻은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때를때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묻으면흰비둘기의때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 시 <詩第十二號> 전문

이 시에서 하늘은 ‘때묻은빨래조각’처럼 불결하다. 그런데 어디선가 ‘戰爭이 끝나고平和가왔다는宣言’이 들려온다. 이 소식을 듣고 ‘한무더기비둘기의때가갓에묻은때를씻는다’라는 것은 ‘平和가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시 ‘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때를때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는 것은 내면화된 공포와 공격성이 사라지지 않고서 세계 곳곳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즉 평화를 원하지만, 내면화된 공포와 공격성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확산되어가는 의미한다. 제국주의 전쟁은 공포와 공격성을 통해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져간다. 제국주의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탈신을 욕망하지만, 그것은 출구가 없는 문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이다. 시 <沈沒>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죽고싶은마음이칼을찾는다. 칼은날이접혀서퍼지지않으니날을怒號하는焦燥가絶壁에꿇치려든다. 억지로이것을안에떠밀어놓고또懇曲히참으면어느결에날이어디를건드렸나보다. 內出血이뻘뻘해온다. 그러나皮膚에傷채기를얻을길이없으니惡靈이나갈門이없다. 가친自殊로하여體重은점점무겁다.

-시 <沈沒>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 ‘칼’을 들지만, 이때 ‘칼’

은 ‘傷채기’를 낼 수 없다. ‘皮膚에傷채기를얻을길이없으니惡靈이나갈門이없다’라고 하는 것은 ‘脫身’ 욕망에도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타자화된 몸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매번 ‘自殊’,로 인해 무거워진 ‘體重’은 좌절된 탈신 욕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沈沒’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 담론의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근대 주체의 합리성과 공모한 제국주의 담론의 식민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은 그의 소설 『12월12일』에서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은 어느 한 modo 찾아내일 수는 없이 모두가 돌연적이었고 모두가 우연적이었고 모두가 숙명적일 뿐이었다.(중략)

“세상이란 그런 것이야 네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것, 때로는 정반대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야!”

이러한 결정적 해답이 오직 질풍신뢰적으로 나의 아무 청산도 주관도 없는 사랑을 일약 점령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네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할 때에는 우선 네가 먼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첫 번째 답의 대칭점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최후의 그것의 정확한 해답일 것이니’하는 이러한 참혹한 비결까지 얻어 놓았었다. 예상 못한 세상에서 부질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나라는 사람은 구태여 이 대칭점을 구하지 아니하고도 세상일을 대할 수 있는 가련한 ‘비틀어진’ 인간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일상에 그 이면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광명’도 이러한 모든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의 권위를 초월한 그야말로 아무 자극도 감격도 없는 영점에 가까운 인간으로 화하고 말았다. 오직 내가 나의 고향을 떠난 뒤 오늘날까지 십유여 년 간의 방랑생활에서 얻은 바 그 무엇이 있다 하면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난 사람은 끝끝내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울어야만 한다. 그 가운데에 약간의 변화 짝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것은 다만 그 불행한 운명의 굴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어그러진 결론 하나가 있을 따름이겠다. 이것은 지나간 나의 반생의 전부요 총결산이다. 이 하잘 것 없는 짧은 한 편은 이 어그러진 인간법칙을 ‘그’라는 인격에 붙여서 재차의 방랑생활에 흐르려는 나의 참담을 극한 과거의 공개장으로 하려는 것이다.²⁰⁶⁾

206)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pp. 21-23.

소설 『12월 12일』은 12라고 하는 수의 세계, 즉 합리성을 위장한 식민공간에서 타자의 위치에 처한 자아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난 사람은 끝끝내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 그 가운데에 약간의 변화쯤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것은 다만 그 불행한 운명의 굴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烏瞰圖」연작시들은 소설 『12월 12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합리성을 위장한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불행한 자아의 운명을 통해 그는 지배자로 군림하는 식민주체가 만들어낸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인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려는 ‘脫身’ 욕망은 식민공간에서 벗어나려는 ‘脫走’ 욕망이었던 것이다. 식민공간에서 탈주하기 위해 그는 식민담론이 근대 주체의 상상과 공모한 타자의 담론이며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식민 주체의 위치가 식민담론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는 소설 『12월 12일』을 통해 합리성을 위장한 제국주의적 시·공간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즉 제국주의는 단순히 식민지의 영토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을 통해 시간을 점유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피식민지인들을 타자의 위치에서 점유하고 소외시켜나갔던 것이다. 이상의 시는 식민공간에서 탈주하려는 욕망을 타자화된 몸에서 벗어나려는 탈신욕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담론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2. 쾌락의 소통방식과 ‘위조’된 타자의 얼굴

(1) ‘혈청’과 ‘문벌’의 교환과 가부장적 식민 질서

제국주의는 식민지 영토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라고 하는 공간화된 시간을 통해 시간을 점유하고 식민지적 타자화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소외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자본주의와 결탁해 쾌락을 통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방식까지도 점유해나갔다. 즉 현재라고 하는 물질화된 시간 속에서 제국주의는 식민지적 타자화를 통해 사물화된 인간관계로 변화되었으며 이때 사물화된 인간관계는 물질적인 소통, 즉 자본의 소통 방식에 의해 매개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모한 제국주의는 자본의 소통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점유해나갔다. 이때

자본주의적 소통방식은 쾌락을 매개로 인간관계를 자본의 소통방식, 즉 교환의 원리로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인 경험 속에서 합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태도는 합리성과 진보라는 믿음 속에서 확대되어 나갔다. 과시증 전쟁은 합리성과 물질주의에 대한 이러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영토확장을 위해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물질적인 욕망 속에서 가치 전도된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인간화된 세계 속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욕망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해체하고 자본의 소통방식에 의해 인간관계를 지배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피식민지인들의 전통과 역사를 날조하고 전근대적인 가치들을 부정하였는데 일본을 통하여 선진된 문물과 지식을 체험한 계몽적 지식인들은 전시대의 가치를 무지몽매하고 봉건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養子 관계를 통해 대리함으로써 가부장적 식민질서에 의해 조선의 지배를 합법화하였다. 그런데 이상은 일찍이 백부의 집에서의 養子 경험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가부장적 식민질서의 정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 <門閥>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墳塚에 계신白骨까지내게血清의原價償還을强請하고있다. 天下
에달이밝아서나는오들오들떨면서到處에서들킨다. 당신의印鑑이이
미失效된지오랜줄은꿈에도생각하지않으시나요-하고나는의것이
대꾸를해야겠는데나는이렇게싫은決算의函數를내몸에지닌내圖章처
럼쉽사리꺼버릴수가참없다.

-시 <門閥> 전문

이 시에서 ‘나’는 ‘門閥’을 댓가로 ‘墳塚에 계신白骨’에 의해 위협을 당한다. 왜냐하면 ‘白骨’이 ‘나’에게 ‘血清의原價償還을强請’하기 때문이다. 시적자아는 이러한 ‘白骨’의 위협에 ‘당신의印鑑이이미失效된지오랜줄은꿈에도생각하지않으시나요’라며 ‘白骨’의 위협이 시효가 말소된 과거의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原價償還’을 요구하는 ‘白骨’은 ‘내몸에지닌내圖章’이란 표현처럼 시적 자아의 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혈연 공동체로서 가족을 상징하는 피-‘血清’을 통해 ‘原價償還’을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血清’을 통해 ‘原價償還’을 요

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통하여 식민담론이 자본주의와 결탁한 봉건질서임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시 <肉親>에서도 드러난다.

크리스트에酷似한襤褸한사나이가있으니이이는그의終生과殞
命까지도내게떠맡기려는사나운마음씨다. 내時時刻刻에늘어서서한
時代나訥辯인트집으로나를威脅한다. 恩愛나의着實한 經營이늘새
과랴게질렸다.나는이육중한크리스트의別神을暗殺하지않고는내門
閥과내陰謀를掠奪당할까참걱정이다. 그러나내新鮮한逃亡이그끈적끈
적한聽覺을벗어버릴수가없다.

-시 <肉親> 전문

이 시에서 시적자아는 ‘크리스트의別神’에 의해 위협을 느낀다. 시적자아가 ‘이육중한 크리스트의別神’을 ‘暗殺’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적자아는 ‘크리스트의別神’에 의해 ‘내門閥과내陰謀를掠奪당할까참걱정’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門閥’을 지키려는 시적자아와는 다른 위치에 ‘肉親’에 해당하는 ‘크리스트의別神’이 위치해 있음을 드러낸다. 즉 ‘門閥’을 제공함으로써 시적 자아를 양자삼은 식민담론의 소통방식과는 달리, ‘肉親’은 ‘크리스트에酷似한襤褸한사나이’이기 때문이다. 식민담론은 ‘쾌락’과 ‘문벌’을 매개로 시적 자아를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식민주체의 욕망으로 유혹한다. ‘내門閥과내陰謀를掠奪당할까참걱정’이라는 것은 시적 자아가 ‘쾌락’과 ‘문벌’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를 제공하는 식민주체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즉 이 시를 통하여 그는 욕친을 부정하는 식민주체의 욕망을 통해 식민담론의 가부장적 봉건질서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시 <家庭>은 가부장적 식민 질서 속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인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門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 밤
이사나운꾸지람으로나를졸른다. 나는우리집내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
게아니다. 야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자꾸만滅해간다. 食口야
封한窓戶어데라도한구석터놓아내가收入되어들어가지않나.
지붕에서리가내리고뽕죽한테는鐵처럼月光이물었다. 우리집이않나
보다. 그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 壽命을혈어서典當잡히
나보다. 나는그냥門고리에쇠사슬늘어지듯매어달렸다. 門을열고안
열리는門을열려고.

-시 <家庭>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家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시적 자아는 그것을 ‘生活’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식민담론은 노동을 댓가로 피식민지들을 고용함으로써 지배를 합법화한다. ‘생활’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집’이 ‘힘겨운도장’을 찍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교환을 통해 매개되는 식민질서 속에서 노동, 즉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의 ‘집’이 ‘典當’잡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家庭’에 들어가려고 ‘안열리는門을열려고’ 매달리지만 영영 ‘家庭’으로 ‘收入’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과 노동을 매개로 하는 식민 질서 속에서 해체될 운명에 처한 가정을 통해 가부장적 식민질서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아의 모습이 ‘滅’해가는 ‘제옹’처럼 슬프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가정이 해체되는 식민질서 속에서도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시 <肉親의 章>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낸다.

나는 24歲. 어머니는바로이낫세에나를낳은것이다. 聖제바스티앙
과같이아름다운동생. 로오자룩셈블크의木像을닮은막내누이.어머
니는우리들 三人에게孕胎分娩의苦樂을말해주었다.나는三人을代表하
여-드디어-

어머니 우린 좀더형제가있었음싶었답니다.

-드디어어머니는동생버금으로孕胎하자六個月로서流産한顛末
을고했다.

그녀석은 사내였는데 올해는19 (어머니의한숨)

三人은서로들아알지못하는兄弟의幻影을그려보았다. 이만큼이나
지-하고形容하는어머니의팔목과주먹은瘦瘠하여있다. 두 번씩이나
咯血을한내가冷情을極하고있는家族을爲하야빨리안해를맞아야겠다
고焦燥하는마음이었다. 나는 24歲나도어머니가나를낳으시드키무엇
인가를낳아야겠다고생각하는것이였다.

-시 <肉親의 章>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어머니가나를낳으시드키무언인가를낳아야겠다’라고 함으로써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는 ‘肉親의 章’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식민질서 속에서 ‘아버

지'라는 존재는 '血清'을 미끼로 '原價償還'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부장적인 식민질서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 '잉태분만'의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인 식민 질서 속에서 가정에 대한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어머니를 통해 '잉태분만'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그는 가부장적 식민질서 속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자아의 운명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가정'을 소재로 이러한 시들은 식민담론이 자본주의와 결탁한 것이며, 또 아버지로 표상되는 가부장적인 식민질서임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조'와 '화폐'의 교환과 자본주의적 쾌락 욕망

이상은 식민담론이 식민주체에 의해 고안된 타자의 담론이며 피식민지인을 타자화시키는 식민주체의 위치가 허위임을 비판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그는 식민담론을 자본주의와 공모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식민담론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수탈을 합법화하였다. 이때 자본주의적 근대성이라는 것은 근대성의 문제를 통해 제국주의가 자본의 보급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식민 경제의 경영권을 주장하고 식민지 수탈을 합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²⁰⁷⁾

근대 이후 자본의 개념은 고전적인 신의 권위를 대신해 다양한 추상적 가치들을 교환의 원리를 통해 매개하고 관계들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상징하게 되었다.²⁰⁸⁾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치란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고 이해하는 정신적 과정으로서 인간의 욕구(desire)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혁명 이후 자본의 개념은 다양한 가치 범주들과 사회적 관계들에 추상적인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물질적인 욕망을 통해 통제한다. 이러한 자본의 절대성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자본의 교환 논리를 통해 매개되었던 것이다. 시 <百畫>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207) 줌 톨린스, 『문화제국주의』, 위의 책, p. 186 참조.

208) 니겔 노드, 이택면 역, 『돈의 사회학』, 일신사, 1998. pp. 107-108 참조.

내두루마기깃에달린貞操뺨지를내어보였더니들어가도좋다고그런
다. 들어가도좋다던女人이바로제게좀鮮명한貞操가있으니어떠란다.
나더러世上에서얼마짜리貨幣노릇을하는세음이냐는뜻이다. 나는일부
러다홍헝겂을흔들었더니窈窕하다던貞操가성을낸다. 그리고는七面
鳥처럼찹찹맨다.

-시 <白晝> 전문

이 시에서 ‘나’와 ‘女人’은 ‘姓’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다. 이때 ‘나’와 ‘女人’의 관계는 성적 욕망을 통해 매개된다. 그런데 이때 성적욕망은 ‘貨幣’에 의해 매개된다. ‘나더러世上에서얼마짜리貨幣노릇을하는세음이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성적욕망에 의해 매개되고 다시 성적욕망은 ‘貨幣’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자본의 교환 욕망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관계를 지시한다. 이때 ‘女人’에게 시적 자아가 ‘다홍헝겂’을 흔들며 ‘鮮명한 貞操’를 가진 처녀가 아님을 반문하자 ‘女人’이 ‘七面鳥’처럼 찹찹 매는 것은 쾌락을 매개로 자본주의와 결탁해 피식민지의 욕망을 지배하려는 식민담론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白晝>라는 제목처럼 성적욕망이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상황이 ‘白晝’라고 하는 시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을 보여줌으로써 ‘貞操’라는 성적 윤리가 해체된 상황을 통해 자본주의적 쾌락욕망을 통해 식민담론을 비판한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가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자본의 교환 원리에 의해 매개되는 이러한 상황은 일문시 <鳥瞰圖>라는 표제로 1931년 『朝鮮と建築』에 발표된 다음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二人…… I ……

基督은襤褸한行色으로說教를시작했다.
아아르·카아보네는橄欖山을산채로粒撮해갔다.

一九三〇年以後의일-

네온싸인으로裝飾된어느敎會入口에서는똥똥보카아보네가불의傷痕
을伸縮시켜가면서入場券을팔고있었다.

二人…… II ……

아아르·카아보네의貨幣는참으로光이나고메달로하여도종을만하나
基督의貨幣는기승할지경으로貧弱하고해서아뭇돈돈이라는資格에
서는一步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카아보네가프렛상으로보내어준프록·코오트를基督은最後까지拒
絶하고말았다는것은有名한이야기거니와宣當한일이아니겠는가.

-시 <二人> 전문

이 시에 등장하는 ‘基督’과 ‘아아르·카아보네’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동격일 수 없는 ‘二人’을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아아르·카아보네’가 ‘橄欖山을산채로粒撮해’ 갔기 때문이다. 이때 ‘橄欖山’은 ‘基督’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아르·카아보네’가 ‘橄欖山을산채로粒撮해’함으로써 그는 ‘基督’의 절대적 권위를 승계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아아르·카아보네’, 알·카포네(1895-1947)는 미국의 유명한 암흑가 보스의 이름이다.²⁰⁹⁾ 이 시에서 ‘네온싸인으로裝飾된어느教會入口에서는뚱뚱보카아보네가불의傷痕을伸縮시켜가면서入場券을팔고 있었다’는 것은 암흑가의 대표적 인물인 ‘아아르·카아보네’가 ‘기독교’의 절대적 권력을 물리적인 힘, 즉 자본에 의해 권력을 승계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基督’과 ‘아아르·카아보네’ ‘二人’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貨幣’가 ‘基督’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아르·카아보네의貨幣는참으로光이나고메달로하여도종을만하나基督의貨幣는기승할지경으로貧弱하고’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貨幣’에 의해 가치를 환산한다는 의미에서 ‘基督’과 ‘아아르·카아보네’는 ‘아뭇돈이라는資格에서는一步도벗어나지못하고있다’라는 표현처럼 ‘二人’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폐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상황은 근대적 화폐의 기능과 연관된다. 즉 전근대적 화폐가 특정 사회 속에서 제한적 목적의 화폐로서 통용되었다면,

209) 그는 왼편에 흉터가 있어 ‘스카페이스(Scar face) 앨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로마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민간가에서 자랐으며 1920년에는 시카고로 활동무대를 옮겨 밀주, 매음, 도박 등의 불법사업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어서 시카고 암흑가의 보스로 군림했다. ‘밤의 대통령’, ‘암흑가의 제왕’으로 불리우며 1929년에는 성발렌타인의 대학살을 주도했고, 1932년 탈세로 투옥되어 1939년 석방 후 은퇴해 지내다가, 1947년 뇌일혈로 사망한다. (이승훈 편저, 『李箱詩全集』, 위의 책, p. 118)

물질적인 욕망이 발전함에 따라 근대적 화폐는 전근대적 화폐보다 더 보편적 목적의 화폐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²¹⁰⁾ 화폐의 이러한 기능변화는 자본주의화가 가속됨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매개하는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자본의 절대성은 ‘기독’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윤리를 대신하여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다.

근대 이후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의 원리는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환을 매개로 인간관계는 추상적 채권·채무 관계로 변화되었다. 결국 물질숭배의 가치 속에서 인간은 화폐에 의해 극심한 소외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²¹¹⁾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와 같은 독점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피식민지의 영토 뿐 원료 공급지로서 수탈을 목적으로 제국주의는 자본을 통해 피식민지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노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착취해나갔기 때문이다.²¹²⁾

이상의 시에서 여성과의 관계가 시 <賣春>에서와 같이 화폐의 교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성적인 쾌락은 자본주의와 결탁한 제국주의 파시즘의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성다움의 이상에 기반한 파시즘은 민족의 불변함을 상징하기 위해 정상과 비정상, 건강함과 나약함을 통해 여성을 비정상성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통해 남성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남성다움의 이상은 민족적 고결함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¹³⁾ 이상의 시가 성적인 은유를 통해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여성을 성적인 문란함의 시선 속에서 비하한 것은 제국주의 파시즘 속에서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의 삶을 통해 건강함과 우월성을 내세우는 제국주의 담론의 비인격성을 비판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부장적 식민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내세워 조선을 착취하려는 제국주의의 남성성을 성적인 은유를 통해 교란시켰던 것이다. 시 <I WED A TOY BRIDE>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210) 니켈 노드, 위의 책, pp. 25-27 참조

211) 니켈 노드, 위의 책, pp. 114-116 참조.

212) 이상의 수필 <조춘점묘> 중에서 ‘공지(公地)’는 자본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삶을 드러낸다. 즉 자본에 의해 자연의 소유권을 상실한 피식민지인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내세운 제국주의 담론을 비판한 것이다.

213)조지 모스 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위의 책, pp. 120-121 참조.

1. 밤

작난감新婦살결에서 이따금 牛乳내음새가 나기도한다. 머(르)지
아니하여 아기를나으려나보다. 燭불을 끄고 나는 작난감 新婦귀에다
대이고 꾸즈람처럼 속사겨본다.

「그대는 꼭 갓난아기와 같다」고……

작난감新婦는 어둔데도 성을내이고 대답한다.

「牧場까지 散步갔다왔답니다」

작난감新婦는 낮에 色色이風景을暗通해가지고 온것인지도모른다.
내手帖처럼 내가슴안에서 따근따근하다. 이렇게 榮養分내를 코로
맡기만하니까 나는 자꾸 瘦瘠해간다.

2. 밤

작난감新婦에게 내가 바늘을 주면 작난감 新婦는 아무것이나 막 찢
른다. 日曆. 詩集. 時計. 또 내몸 내 내 經驗이들어앉아있음즉한곳.

이것은 작난감新婦마음속에 가시가 돌아있는證據다. 즉 薔薇꽃
처럼……

내 가벼운 武裝에서 피가줄난다. 나는 이 傷채기를 고치기 위하
여 날만어두면 어둠속에서 싱싱한蜜柑을먹는다. 몸에 반지밖에가
지지않은 작난감新婦는 어둠을 커-틴열듯하면서 나를 찾는다. 얼
른 나는 들킨다. 반지가 살에닿는것을 나는 바늘로잘못알고 아파
한다.

燭불을 켜고 작난감新婦가 蜜柑을 찾는다

나는 아파하지 않고 모른체한다.

-시 <I WED A TOY BRIDE> 전문

이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TOY BRIDE', 장난감 인형으로서 시적 화자와는 달리 비
인격체로 나타난다. 그런데 시적자야는 '작난감'같은 그녀에게 도취되어 '자꾸 瘦瘠해'
간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상황은 사디·마조히즘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바늘'과
'蜜柑'이라는 성적 비유는 '작난감新婦'와 '나'라는 관계, 즉 성적인 은유에 대한 유희
로서 성적 환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환유, 즉 성적인 유희에 의해 '작난

감新婦'와 '나'의 위치가 역전된다. 성적 유희를 통하여 공격성의 위치가 뒤바뀜으로써 성적인 은유의 관계, 즉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다.

이 시는 '작난감 新婦'와 같이 페티시즘을 통해 제국주의의 남성적 시선에서 사물화된 피식민지인들의 비정상적인 삶을 드러낸다. 그런데 식민 담론에서 이러한 물신숭배의 페티시즘의 수사학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주체로 군림하려는 과시즘의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다.²¹⁴⁾ 이 시에서 '바늘'과 '蜜柑' 같은 성적 환유를 통하여 이상은 가부장적 식민질서와 남성성을 표방하는 제국주의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 성적 은유를 교란시키고 이를 해체하였던 것이다. 이때 '賣春'하는 여성과 같이 비정상적인 여성 은유는 식민 주체에 의해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정상적인 여성에 대한 성적 유희를 통해 제국주의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킴으로써 그는 식민담론의 정형화된 정체성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환유는 피식민주체의 자아분열을 통해 식민담론의 정형화된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고착된 피식민지인의 특성들- 육체, 인종, 조상-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인식들을 통해 부서진 육체적 도식을 드러냄으로써 식민 주체의 시선을 교란시켰던 것이다.²¹⁵⁾ 시 <狂女の告白> 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여자는勿論모든것을拋棄하였다 여자의 姓名도, 여자의 皮膚에있는
오랜歲月중에 간신히생겨진때(垢)의薄膜도 甚至於是여자의腫腺까지
도, 여자의머리로는소금으로닦은것이나다름없는것이다. 그리하여
溫度를각지아니하는옅은바람이참康衢煙月과같이불고있다. (생략)
여자의皮膚는벗기고벗기인皮膚는仙女의옷자락과같이바람에나부끼고
있는참서늘한風景이라는點을깨닫고사람들은고무와같은두손을들어
입을拍手하게하는것이다.

이내뭍은돌아온길손, 잘래야잘곳이없어요.

214) 라깡은 상상계라는 도식을 통하여 거울단계에서 주체내부에 발생하는 동일시과정을 설명한다. 이때 거울단계란 주체가 주위 세계의 대상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용하는 동일성의 이미지를 말한다. 그런데 식민담론에서 이러한 거울이미지는 식민 주체를 반영한다. 즉 식민 담론에서 은유적/나르시즘적인 위치들은 환유적/공격적인 위치에 의해 교란되는데, 성적 환유를 통해 이상의 시들은 가부장적 식민질서와 남성성의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위의 책, pp. 165-166 참조)

215) 호미바바, 위의 책, p. 171 참조.

여자는마침내落胎한것이다.트렁크속에는千갈래萬갈래로 찢어진
POUDRE VERY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 死胎도
있다. 여자는古風스러운地圖위를毒毛를撒布하면서불나비와같이날
은다. 여자는이제는이미 五百羅漢의불쌍한홀아비들에게는없을래야
없을수없는唯一한아내인것이다. 여자는콧노래와같은ADIEU를地
圖의에레베에순에다告하고 No. I ~500의어느寺刹인지向하여걸음을재
촉하는것이다.

-시 <狂女の告白> 중에서

이 시는 1931년 8월, 『朝鮮と建築』에 발표된 일문시로 여자의 성욕에 대한 거침 없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성적 환유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에서 여자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것은 ‘狂女’라고 하는 비정상인이다. 일본의 식민담론 속에서 피식민지 조선은 ‘狂女’와 같이 비정상적인 여성의 은유를 통해 구축되었다.²¹⁶⁾ 나아가 제국주의의 시선 속에서 여성들을 가부장적인 질서를 계승시켜줄 출산의 도구로서 폄하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마취제로서 성적인 도구로서 취급되었다.²¹⁷⁾ 즉 가부장적인 식민질서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정신대의 경우처럼 피식민지 여성의 몸을 제국을 위한 성적인 도구로서 유린하고, 이들을 비정상성의 범주에서 이해함으로써 사물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담론의 시선 속에서 여성은 ‘姓名’도, ‘(垢)의薄膜’도 ‘腫腺’까지도 버리고 ‘소금으로담은것이나다름없는것’이 되어 ‘잘곳’조차 없는 ‘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狂女’와 ‘창녀’와 같이 여성에게 각인된 육체의 도식을 통해 이상은 제국주의적 시선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시에서 ‘트렁크속에는千갈래萬갈래로 찢어진 POUDRE VERY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육체의 도식을 통해 제국주의적 시선의 ‘가부장적인 고결함(POUDRE VERYUEUSE)’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여자는이제는이미 五百羅漢의불쌍한홀아비들에게는없을래야없을수없는唯一한아내인것이다’라고 표현은 제국의 병사들을 위한 성적 도구로서 피식민지 여성의 몸을 유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녀, 광녀와 같은 비정상성의 육체적 도식을

216) “일본과 청 사이에 끼인 조선은 득의양양하게도 맘껏 욕구를 채우고도 지킬 줄 모르는 지나(支那) 남자에게도 아양을 떠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福澤諭吉의 식민사관 (福澤諭吉全集, 岩波書店 제 7권, p. 136)

217) 에드위 플레넬, 김병욱 역, 『정복자의 시선』, 마음산책, 2005, p. 45 참조.

통해 피식민지인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시선을 드러냄으로써 이상은 성적인 흥분 속에서 피식민지인들을 비정상적인 여성, 즉 성적 도구로서 취급하는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식민담론의 상상에 의해 비정상성의 여성으로 비하된 피식민지인들에 대한 식민 주체의 욕망을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성적 환유를 통해 식민 주체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킴으로써 식민 주체를 불안에 빠뜨린다. 시 <興行物天使>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어떤後日譚으로

整形外科는여자의눈을찢어버리고 形使없이늪어빠진 曲藝象의눈으로만들고만것이다. 여자는 실컷웃어도또한웃지아니하여도웃는것이다. (생략)

여자는 과감히 NU가 되었다. 汗孔은汗孔만큼荆棘이되었다.
여자는노렐부를생각에金筋聲으로울었다. (생략)

거리의音樂師는따스한봄을마구뿌린乞人과같은天使. 天使는참새와같이瘦瘠한天使를데리고다닌다.

天使의배암과같은회초리로天使를때린다
天使는웃는다, 天使는고무風船과같이부풀어진다.

天使의興行은사람들의눈을끈다.
사람들은天使의眞操의모습을지닌다고하는原色寫眞版그림엽서를산다.

天使는신발을떨어뜨리고逃亡한다.
天使는한꺼번에열個以上の뎃을내어던진다.

日曆은초콜레이트를늘인(增)다.
여자는초콜레이트로化粧하는것이다.

여자는트렁크속에 흙탕투성이가된즈로오스와함께엎드러져온다.
여자는트렁크를運搬한다.

여자의트렁크는蓄音機다.
蓄音機는喇叭과같이紅도깨비靑도깨비를불러들었다.

紅도깨비靑도깨비는웬긴이다. 사루마다밖에입지않은웬긴은水腫
이다.
여자는코끼리의눈과頭蓋骨크기만큰한水晶눈을縱橫으로굴리어秋波
를濫發하였다

여자는滿月을잘게잘게씹어서饗宴을베낀다. 사람들은그것을먹고
돼지같이肥滿하는쇼콜레이트냄새를放散하는것이다.

-시 <興行物天使> 전문

이 시에서 여자는 ‘興行物天使’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 여성이 ‘興行物天使’로 호명된 것은 식민 주체의 욕망 때문이다. 즉 식민 주체의 욕망에 의해 여성을 상징하는 피식민지인들은 흥행물과 천사의 조합, ‘興行物天使’로 호명된 것이다. 이때 ‘흥행물’이라는 표상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식민담론의 욕망을 드러낸다. 또 ‘천사’라고 하는 표상은 기독교의 종교윤리를 이용해 윤리적 주체로 행세하려는 식민담론의 욕망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윤리적 욕망 속에서 제국주의는 피식민지인을 ‘흥행물천사’라는 기괴한 모습으로 욕망한다. 즉 식민 주체의 욕망 속에서 피식민지인은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도구처럼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 타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은 성적 유희를 통하여 식민 주체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키고 나아가 주체의 위치를 분열시킨다. 시에서 ‘NU’와 ‘汗孔’같은 성적비유들이 나타나는 것은 식민 주체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때 ‘여자는노렐부를생각에金節聲²¹⁸으로울었다’라는 것은 식민 주체에 의해 거세당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통하여 식민 주체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또 ‘紅도깨비靑도깨비를불러들었다/紅도깨비靑도깨비는웬긴’이며‘사루마다밖에입지않은웬긴水腫’이라고 표현한 것은 윤리적인 주체로 행세하려는 식민 주체에 대

218) ‘金節聲’이란 거세된 목소리, 또는 거세할 때의 비명소리 등을 말한다. (이상, 『공포의 기록』, 범우사, 2004, p. 21)

한 조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소를 통하여 식민담론의 윤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상은 이 시에서 식민담론의 상상에 의해서 ‘興行物天使’가 된 여성의 성적 유희를 통해 식민 주체의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식민 주체를 불안에 빠뜨린다. 이때 ‘여자는 초콜레이트로化粧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化粧’, 즉 위장을 통해 식민 주체가 부여한 피식민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자는 滿月을 잘게 잘게 씹어서 饗宴을 베풀다/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돼지 같이 肥滿하는 초콜레이트 냄새를 放散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홍행물천사’를 욕망함으로써 ‘돼지’처럼 성적 흥분에 도취된 식민 주체를 불안에 빠뜨려 주체로 군림하는 식민 주체의 위치를 전복하려는 것이다. 즉 식민담론의 상상 속에서 피식민자에게 강요한 성적 은유를 이용해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거꾸로 성적 환유를 통해 식민 주체의 위치를 전복시켜 그 동물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때 ‘滿月’은 ‘日曆’, 즉 윤리적·합리적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전복시키는 저항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이상의 시는 이러한 성적 욕망의 유희를 통하여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기 위해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에 편입되지 않고 차이의 언술을 통해 제국주의 담론에 저항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성적 우월성을 통해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고 남성성과 고결함의 주체로서 자신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주의는 성적 은유에 의해 피식민자를 비정상성의 여성으로 비하해나갔던 것이다. 또 식민담론은 물질적인 욕망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문제를 들어 쾌락의 소통 방식을 통해 인간관계를 교환의 원리로서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신화된 피식민자의 몸은 식민담론의 상상에 의해 식민 주체를 위한 성적 도구로서 취급되었는데 이상은 분열된 여성의 육체적 도식을 통해 식민 주체의 성적 은유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식민 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피식민지인에게 각인된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나아가 식민담론이 각인된 식민지적 몸의 절망 속에서 분열된 육체적 도식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을 분열시키는 차이의 언어를 통해 그것에 저항하였다.

(3) 위조된 ‘표정’과 공포의 ‘변신술(翻身術)’

이상은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식민담론이 식민주체의 상상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비판하고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

의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의 범주를 제한하였는데 이때 일본은 근대, 남성성, 정상성의 특성을 통해 가부장적인 식민질서를 구축하고 조선을 비근대, 여성성, 비정상성으로 타자화시킴으로써 타자의 위치에서 피식민지인을 소외시켜 나갔다. 또 식민담론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문제를 들어 조선의 경제적 수탈을 합법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성적 은유를 통하여 조선을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매춘부와 같은 여성으로 비하하였다.

그런데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주체의 위치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들은 식민담론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구축된 타자의 담론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식민담론은 양자관계를 통해 가부장적인 봉건질서를 모방하고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문제를 통해 조선의 경제적 수탈을 합법화하였기 때문에 식민공간에서 자아는 식민주체의 위조된 '표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 <紙碑>는 이러한 성격울 드러낸다.

-어디갔는지모르는안해

紙碑一

안해는 아침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속이려 가는 것이다 順序야 바뀌어도 하루에 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않는다고 안해는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돌아오지않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 나면 化粧은 잊고 人相은없는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簡單히 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두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 日記에萬一 안해가 나를 속이려 들었을때 함직한速記를 男便된 資格밖에서 敏捷하게 代書한다.

紙碑二

안해는 정말 鳥類였던가보다 안해가 그렇게 瘦瘠하고 거벼워졌는데도날으지못한것은 그손가락에 깥기웠던 반지때문이다 午後에는 늘 紛을바를 때 壁한결길러서 나는 鳥籠을 느낀다 얼만안가서 없어질때까지 그 파르스레한주둥이로 한번도 쌀알을 쪼으려들지않았다 또 가끔 미닫이를열고 蒼空을 쳐다보면서도 고운목소리로 지

저귀러들지않았다 안해는 날을줄과죽을줄이나 알았지 地上에 발자
국을 남기지않았다 秘密한발을 늘버선신고 남에게 안보이다가 어느
날 정말 안해는 없어졌다 그제야 처음房안에 鳥糞 내음새가 풍기고
날개 퍼덕이던 상처가 도배위에 은근하다 헤뜨러진 깃부시러기
를 쓸어모르면서 나는 世上에도 이상스러운것을 얻었다 散彈 아아안
해는 鳥類이면서 염체 단과같은쇠를 삼켰더라 그리고 주저앉았었
더라 散彈은 녹슬었고 숨털내음새도 나고 千斤무게더라 아아

紙碑三

이房에는 門牌가없다 개는이번에는 저쪽을 向하여짖는다 嘲笑
와같이 안해의 벗어놓은 버선이 나같은空腹을 表情하면서 곧걸어갈
것같다 아는 이房을 첩첩이닫치고 外出한다 그제야 개는 이쪽을
向하여 마지막으로 슬프게 짖는다.

- 시 <紙碑>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안해’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해’의 비밀스런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한다. 이때 ‘化粧은 잇고 人相은없는’ 아내의 ‘얼굴’ 때문에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안해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추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男便의 자격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紙碑一) 시적자아는 ‘안해’의 이러한 ‘표정’ 때문에 ‘안해’가 ‘鳥類’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紛을바를 때 壁한겹걸러서’ 하는 화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사라진 후 ‘나’는 아내의 흔적으로 ‘散彈’같은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散彈’에게서 사라진 아내의 ‘내음새’를 발견한다.(紙碑二) 세 번째 시에서 ‘안해’는 ‘개’처럼 자신을 향하여 슬프게 짖는다. 이때 시적 화자는 ‘안해의 벗어놓은 버선’이 ‘곧걸어갈것’ 같은 ‘表情’으로 ‘外出’하는 것을 환영을 본다, ‘房을 첩첩이 닫치고 外出’하는 아내의 환영을 통해 ‘안해’가 부재하는 공간 속에서 시적 자아는 아내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門牌’가 없는 ‘房’에서 ‘外出하려는 아내의 환영을 통해 아내의 비밀스러웠던 행동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紙碑三)

이 시에서 ‘안해’는 식민주체의 욕망에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을 지시한다. 즉 식민담론에서 식민 주체는 매춘하는 여성과 같은 성적 은유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비정상성

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안해’에게 ‘人相’이 없고 ‘化粧’만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식민 주체는 피식민지인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주체로서 군림하였다. 이상은 ‘안해’의 ‘化粧’을 통해 타자를 비인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식민주체의 비인격성을 비판하였다. 이상은 식민담론이 식민 주체와 식민지적 타자라고 정체성 담론을 통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체성 담론을 상징하는 ‘거울’의 구조를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거꾸로 이용함으로써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주체의 위치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안해’가 매춘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며, 사람이 아닌 ‘鳥類’에 가깝다는 것은 피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주체 욕망의 비인격성을 드러낸 것이다. ‘안해’가 사라지고 ‘散彈’을 발견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피식민지인은 식민주체의 욕망에 의해 성적 도구이거나 전쟁 도구의 하나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안해’가 ‘外出’해서 돌아오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즉 식민공간을 상징하는 ‘門牌없는 房’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해’는 ‘外出’을 가장했던 것이다. 시적 자아가 ‘男便’의 ‘資格’ 밖에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그는 타자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고결함과 남성성을 내세워 가부장적인 식민질서를 구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식민지인은 제국주의의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매춘하는 ‘안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식민 주체에 의해 타자의 위치에 존재하게 된 ‘男便’은 남성성을 거세당한 채 조선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폭력 앞에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은 무능한 ‘남편’과 매춘하는 ‘안해’를 통해 피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 주체의 비정상성과 폭력성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상 문학에서 타자에 대한 형상이 비정상성과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타자에 반영된 비정상성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이상은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주체의 비정상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식민 공간에서 피식민지인들은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식민 주체가 부여한 타자의 정체성을 수용한다. 그의 자전적인 소설 『중생기』는 식민 주체가 부여한 타자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주체를 욕망하는 매춘 여성과 식민 주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운명을 통해 식민담론에 대한 절망을 보여준다. 즉 그는 가부장적 식민질서와 성적 은유를 통해 위조된 ‘표정’을 구가하는 식민담론의 정체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고자 하였으나 식민담론은 ‘공포에 가까운 번신술’을 통하여 자아를 위협함으로써 ‘양파’와 같이 더 이상 해독할 수 없

는 공포와 절망으로서 그에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낮으로 오늘 정희는 내게 이상(李箱) 선생님께 드리는 속달을 띄우고 그 낮으로 또 나를 만났다. 공포에 가까운 번신술(翻身術)이다. 이 황홀한 전율을 즐기기 위하여 정희는 무고(無辜)의 이상(李箱)을 징발했다. 나는 속고 또 속고 또 또 속고 또또 속았다.

나는 물론 그 자리에 혼도(昏倒)하여 버렸다. 나는 죽었다. 나는 황천(黃泉)을 헤매었다. 명부(冥府)에는 달이 밝다. 나는 또 다시 눈을 감았다. 태허(太虛)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는 몇 살이뇨? 만 25세와 11개월이울씨다. 요사(夭死)로구나. 아니올시다. 노사(老死)을씨다.

- 소설 <종생기> 중에서

위조된 '표정'을 넘어 타자의 얼굴에서 '공포에 가까운 번신술'을 경험함으로써 이상은 식민 담론이 타자의 담론이며 식민 주체의 정체성 담론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던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된다. 이상의 시에서 위조된 타자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식민담론이 '공포에 가까운 번신술'로서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가 반복과 차이를 통하여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고정된 타자의 위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체성 담론의 구조를 비판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식민담론의 정체성의 상황과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반복을 통하여 차이를 생성하고 식민공간에서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이 식민담론에 의해 획책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그는 모방과 반복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위장된 정체성의 가면 뒤에 어떠한 절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모방과 반복을 통해 식민 주체의 위치와 권위에 저항해 그것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²¹⁹⁾ 이상 시의 언어를 차이의 언어²²⁰⁾로서 이해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반복과 모방을 통하여 동일성

219) 이때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모방은 식민지적 모방, 즉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반복 모방함으로써 동일성 효과를 분열시킴으로써 식민 주체의 나르시시즘적인 권위를 파괴하고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호미 바바, 『모방과 인간』, 『문화의 위치』, 위의 책, pp. 188-189 참조)

220) 식민주체의 타자에 대한 욕망은 자기중심적 시선의 욕망을 의미하는데, 이때 타자에 대한 식민 주체의 욕망은 언어에 의해 분열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자아와 타자간의 차이를 분열시켜서 그 둘의 위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를 드러내는 이러한 언어적 욕망은 식민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전복시키는 응시를 통해 식민담론의 환상 너머에 존재하는 실재계와 만나려는

환상인 식민담론을 분열시키고 차이를 통하여 식민담론의 권위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시 <追求>는 모방과 반복을 통해 식민담론을 해체하려는 시적 자아의 이러한 욕망을 드러낸다.

안해를즐겁게할條件들이闖入하지못하도록나는窓戶를닫고낮으
로꿈자리가사나와서가위를눌린다어둠속에서무슨내음새의꼬리를逮
捕하여端緒로내집내未踏의痕迹을追求한다. 안해는外出에서돌아오면
房에들어서기전에洗手를한다. 닦아온여러별表情을벗어버리는醜行이
다. 나는드디어한조각毒한비누를發見하고그것을내虛僞뒤에다살짝
감춰버렸다. 그리고이번꿈자리를豫期한다.

-시 <追求> 전문

이 시에서도 ‘안해’는 매춘 여성으로 등장한다. 매춘 여성과 무능력한 남편의 관계를 반복함으로써 이상은 피식민지의 소외된 타자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식민주체의 야만성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속에서 시적 자아는 아내가 ‘닦아온여러별表情을벗어버리는醜行’을 통해 피식민지인의 소외된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아내의 행위, 즉 독한 ‘表情’을 벗어버리려는 ‘洗手’를 하는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나는 ‘毒한비누’를 자신의 ‘虛僞’ 뒤에다가 감춘다. 즉 식민담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타자화된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은 이러한 모방과 반복을 통하여 ‘이번꿈자리를豫期한다’라고 표현처럼 식민담론의 허위를 ‘꿈자리’로서 인식한다.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반복하고 그는 모방을 통하여 차이를 생성해냄으로써 식민담론에 저항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 <禁制>에서 ‘실험동물’인 ‘개’와 ‘환자’라는 관계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내가치던개(狗)는튼튼하대서모조리實驗動物로供養되고그中에서
비타민E를지닌개(狗)는學究의未及과生物다운嫉妬로해서博士에게
흠씬얻어맞는다. 하고싶은말을개짓듯배알아놓던歲月은숨었다. 醫科
大學허전한마당에우뚝서서나는必死로禁制를얹는(患)다. 論文에
出席한억울한燭髓에는千古에氏名이없는法이다.

-시 <禁制> 전문

욕망인 것이다. (호미 바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위의 책, p. 114)

이 시는 1936년 「危篤」이란 표제로 발표된 11편의 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에서 내가 키우던 ‘개’는 곧 ‘實驗動物’로 ‘供養’되는데, 그 가운데 ‘비타민E’ 즉 번식능력이 좋은 개는 ‘學究의未及과生物다운嫉妬’를 범한 죄로 흠씬 얻어맞는다. 이때 이러한 ‘개’의 형상은 성욕 이 왕성한 피식민지인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이 시에서 ‘學究의未及과生物다운嫉妬’라는 것은 ‘學究의未及’이라는 판단을 통해 이성적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주체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피식민지인을 과도한 성적 욕망을 가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식민 주체의 비정상성을 드러냄으로써 식민주체의 분열의 징후를 보여준다. 그러나 타자의 위치에서 식민담론의 이러한 정체를 폭로하고 싶지만 시적 화자는 ‘하고싶은말을 개짓듯배알아’ 놓을 수 없어서 ‘禁制를얹는患’, 환자처럼 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燭髓’, 해골에도 자신의 ‘氏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으로 나타나고 시인은 이러한 절망을 통해 식민담론의 정체성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식민담론의 정체성은 매춘하는 ‘안해’와 무능한 ‘남편’의 관계에서 ‘실험동물’과 ‘환자’의 관계, 즉 식민 주체와 식민지적 타자라는 정체성의 은유에서 벗어나 성적 환유와 마조히즘적 관계들을 통하여 식민 공간에서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가 성적 은유와 새디즘적 주체임을 드러낸다.²²¹⁾ 즉 식민 담론의 정체성을 반복하고 모방을 통해 환유적 관계들을 생성함으로써 차이의 시적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의 정체성 구조²²²⁾를 해체하였던 것이다. 이때 시 <明鏡>은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울’을 역사의 한 ‘페-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식민 주체와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여기 한 페-지 거울이 있으니
잇은 季節에서는
없은 머리가 瀑布처럼 내리우고

221) 식민담론은 라캉의 도식에서 상상계를 통하여 정형화된 담론을 구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을 은폐한다. 그런데 거울 단계에서 식민 주체의 이미지는 나르시시즘적인 은유에 의해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의 욕망을 은폐하는데 이때 페티시즘적인 환유는 식민 주체의 은유가 은폐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 「타자의 문제」, 위의 책, p. 165 참조)

222) 식민담론은 은유적 나르시시즘적 수사학과 환유적 공격적 수사학을 통해 식민 주체의 정체성 계기를 고착화하는데, 이때 모방과 반복을 통해 환유적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차이를 생성하는 이러한 전략은 식민담론의 고착화된 수사학을 해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 위의 책, p. 166 참조)

울어도 젖지 않고
맞대고 웃어도 휘지 않고
薔薇처럼 착착 접힌
귀
들여다 보아도 들여다 보아도
조용한 세상이 맑기만 하고
코로는 疲勞한 香氣가 오지 않는다.

만적 만적하는대로 愁心이 平行하는
부러 그러는 것 같은 拒絶
右 편으로 옮겨앉은 心腸일 망정 고동이
없으란 법 없으니

설마 그러랴? 어디 觸診……하고 손이 갈 때
指紋이 指紋을 가로 막으며
선틁하는 遮斷뿐이다.

5月 이면 하루 한번이고
열 번이고 外出하고 싶어 하더니
나갔던 길에 안 돌아오는 수도 있는 법

거울이 책장 같으면 한장 넘겨서
맞섰던 季節을 만나려만
여기 있는 한 페-지
거울은 페-지의 그냥 表紙-
-시 <明鏡> 전문

이상은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을 부정하기 위해 ‘거울’의 상황을 그의 시 속에서 반복적으로 차용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거울’을 ‘페-지’라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즉 그는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을 통해 식민주체의 절대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右편으로 옮겨 앉은’이란 구절처럼 식민 주체의 시선을 ‘遮斷’하고 식민담론의 검열을 피해 ‘外出’을 통해 식민공간에서 벗어나려

는 것이다. ‘나갔던 길에 안 돌아오는 수도 있는 법’이란 ‘外出’을 통하여 그가 ‘거울’을 책의 한 ‘페이지’처럼 인식함으로써 근대 주체와 공모한 식민담론의 절대성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즉 식민 담론의 정체성 논리가 ‘表紙’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통해 식민지적 타자를 위협하는 식민담론의 위장된 욕망과 공포의 변신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는 식민담론이 가부장적인 식민질서와 제국주의적 근대성을 통해 위장된 타자의 욕망인 것을 인식하고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울’의 구조를 이용해 식민담론의 구조를 해체하였다. 즉 차이의 언술을 통하여 이상은 식민공간에서 타자의 위치를 위협하는 주체의 욕망에 편입되지 않고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식민 주체와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를 비판하고 식민담론의 절대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3. 소외의 존재방식과 승고미

(1) ‘절름발이’와 ‘척각(隻脚)’의 존재방식

이상은 식민담론이 근대 주체와 공모한 타자의 담론임을 인식하고 식민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담론이 각인된 몸을 통해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함으로써 식민담론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식민 주체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식민화된 몸을 통하여 식민담론을 비판하였다. 이때 식민 주체의 시선에 의해 불구자의 형상으로 표상된 몸은 식민공간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위치, 즉 소외의 위치를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부정하였다. 이때 소외의 존재방식이라 함은 식민 주체의 소외를 모방²²³⁾함으로써 이러한 모방을 통하여 식민지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식민담론이 주체로 군림하려는 욕망에 의해 타자를 소외시키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식민지적 타자화를 부정하기 위해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하여 식민지적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파시즘의 전쟁 욕망으로 인해 죽음이 소외된 상황에서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파시즘의 전쟁 공포와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식

223)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이러한 모방의 전략은 위장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차이를 드러내고 식민담론의 동일성을 분열시킴으로써 식민담론이 동일성의 환상을 통해 갈등과 차별을 은폐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호미 바바, 「모방과 인간」, 위의 책, p. 187)

이 각각 가부장적 식민질서와 자본주의적 쾌락 욕망을 통해 인간관계를 교환의 원리로서 이해한 것과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불구자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부축할 수 없는 절름발이’의 상황을 통해 인간관계를 쾌락과 욕망 충족의 관계, 즉 교환의 원리로서 이해하려는 식민담론을 비판하고 불구자라는 결여를 통해 식민담론이 완결된 정체성의 형상이 아님을 폭로하고, 이러한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권위를 부정했던 것이다.

‘불구자’의 형상을 통해 시적 자아는 식민 주체의 소외된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주체의 합리성을 지향하는 식민 공간에서 ‘世上’이야말로 ‘病院’이며 ‘治療를 기다리는 無病이 있다’라며 거세된 불구자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식민 주체의 권위를 조롱하였던 것이다. 즉 피식민지인을 비정상성과 야만인으로 인식하는 식민 주체의 시선을 비판함으로써 우생학과 의사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한 식민 담론의 비합리성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를 모방하여 불구자라는 식민화된 몸을 드러냄으로써 식민담론이 인종주의적 정형화 담론²²⁴⁾임을 폭로하였다. 그가 식민담론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한 것은 소외의 존재방식 통하여 식민담론의 정형화 논리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식민담론의 주체의 위치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 과정에서 식민지의 타자화된 몸의 상황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식민 주체의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식민공간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켜 나갔던 것이다. 시 <隻脚>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목발의길이라도歲月과더불어漸漸길어져갔다
신어보지못한채 山積해가는외딴구두의數갯를보면슬프게걸어온
距離가짐작되었다.
終始제自身은地上의樹木의다음가는것이라고생각하였다.
-시 <隻脚> 전문

224) 인종주의적 정형화 담론은 자신의 식민지적 계기 속에 통치의 형식을 부여하는데 정형화 담론의 실행은 정형화된 지식, 인종차별적 이론, 관리적인 식민지 경험이 만들어낸 인종, 문화, 역사를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정치적·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한다. 이때 이러한 과정에서 구축된 식민담론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현존하는 것처럼 날조하여 신화함으로써 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치적 통제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 인종주의적 정형화 담론은 식민주의의 기획을 명백하게 정당화하는 위계화와 타자화의 전략, 즉 식민지적 타자화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미바바, 「타자의 문제」, 위의 책, p. 175 참조)

이 시에서 시적 자아, ‘나’는 ‘목발’에 의지한 불구자로서 그는 시 <紙碑>에 등장하는 시적 자아보다 더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紙碑>에 등장하는 시적 자아가 ‘절름발이’라고 할 때 이 시의 시적 자아는 ‘隻脚’, 외다리이기 때문이다. ‘山積해가는외짜구두의數隻를보면슬프게걸어온距離가짐작되었다’라는 것은 식민지적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주체 욕망으로부터 ‘距離’를 두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외다리’라는 불구의 상황은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목발’의 상황, 즉 자아 스스로 주체 욕망을 거세한 것을 의미한다. ‘終始제自身은地上의樹木의다음가는것이라고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시적 자아 스스로 ‘樹木’의 위치, 즉 자연이라고 하는 소외된 위치를 통해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민지적 주체의 욕망으로부터 ‘距離’를 두기 위하여 그는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식민공간에서 소외시켜나갔던 것이다.

이때 시적 자아가 자신을 자연처럼 소외된 위치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가 주체 부정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즉 식민공간에서 이상은 주체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사회 부적응자, 광인, 무능력자와 같은 식민지적 타자로서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소외의 위치를 통해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다시 절망한다”라고 한 것은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에 대한 천착을 비판하고,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주체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상은 피식민지적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의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자아를 소외시켰는데, 그의 주체 부정의 시학은 죽음을 통하여 식민공간에서 자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시 <自像>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는어느나라의데드마스크다. 데드마스크는盜賊맞았다는소문도있다. 풀이極北에서破瓜하지않던수염은絶望을알아차리고生殖하지않는다. 千古로蒼天이허방빠져있는陷穽에遺言이石碑처럼은근히沈沒되어있다. 그러면이결을生疎한손짓발짓의信號가지나가면서無事히스스로와한다. 점잖던內容이이래저래구기기시작이다.

-시 <自像> 전문

이 시에서 ‘여기’라는 시간과 ‘어느 나라’라고 하는 공간은 ‘데드마스크’에 의해 절망적인 상황을 환기한다. 그런데 이때 ‘데드마스크는盜賊맞았다’라는 것은 더욱 더 깊은 절망을 드러낸다. 그것은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처럼 ‘生殖’할 수 없는 불임의 조건을 보여준다. 이때 ‘遺言’조차 ‘沈沒’되었다는 것은 ‘盜賊’맞은 ‘데드마스크’에 의해 죽음조차 욕망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그런데 시적자아는 이 시에서 ‘無事’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와한다’라는 표현처럼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이때 시적 자아는 죽음을 욕망하기 때문에, 죽음조차 욕망할 수 없는 ‘데드마스크’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다. ‘生疎한 信號’만이 ‘無事’한듯 지나간다는 것은 ‘데드마스크’가 ‘盜賊’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 없이 지속되는 식민 공간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데드마스크가盜賊’맞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자아를 부정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의 욕망은 식민담론의 시·공간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이상의 시들은 근대 주체와 공모한 식민담론의 합리성을 부정하고 식민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아 부정을 통해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들은 식민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공간에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 개념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근대 주체의 합리성을 해체하는 기호의 임의성과 미결정성²²⁵⁾의 글쓰기, 즉 해체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그는 탈근대를 욕망하였던 것이다.²²⁶⁾ 이때 이상의 시 <線에 關한覺書> 연작들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사람은靜力學의現像하지아니하는것과同一하는것의永遠한假說이다,
 다, 사람은사람의客觀을버려라.

-시 <線에 關한覺書> 6 중에서

225) 데리다의 중요 개념 중의 하나인 ‘미결정성’은 괴델의 고등수학론에서 차용된 용어이다. 괴델은 형식적 공리 체계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며, 그것은 결정 불가능을 의미한다고 본다. 괴델의 이론은 어떤 공리 체계에서든 문제의 요소가 체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공리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데리다는 괴델의 미결정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삶의 모든 국면과 순간들을 만족시키고 세상만사에 궁극적 해답을 주는 단일 토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철학적 가설을 비판하고, 아울러 세상의 진리나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형식적·논리적 공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설을 비판하였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새미, 2006. p. 710)

226) 문홍술(문홍술, 「탈근대성에 대한 욕망과 근대성 비판」, 『작가와 탈근대성』, 깊은 샘, 1997)은 이상 문학을 연구하면서 탈근대성의 욕망으로서 모더니즘 문학을 분석하였는데 이상 문학에 나타난 탈근대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상대성 원리 ②객관세계에 대한 실재회의론 ③재현언어에 대한 부정 ④4차원 시공 연속체의 변화를 통한 인과율 부정 ⑤ 위상기하학으로의 변화.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사람’을 ‘靜力學’이라는 과학적 가설로서 설명될 수 있지만, 또한 ‘靜力學’이라는 과학적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미결정성의 존재로서 인식한다. 이때 시인은 참이 될 수 없는 이러한 과학적 명제를 통하여 인간이 과학적 결정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미결정성의 존재임을 드러낸다. ‘사람은사람의客觀을버려라’라고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 가설에 의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근대 주체의 합리성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의 시는 기호의 해체와 미결정성의 원리와 같은 시적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의 시·공간을 부정하였다. 식민 주체의 동일시 욕망 속에서 그는 차이를 드러내는 이러한 시적 언술²²⁷⁾을 통해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피식민지인의 위치 속에서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이며, 근대 합리적 주체로서 행세하려는 식민주체를 비판하기 위해 근대 과학적 지식을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해나감으로써 식민공간에서 식민주체의 위치를 부정하고 그 절대성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모방과 반복을 통하여 차이를 생성하였으며, 피식민지인의 소외의 존재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나아가 죽음 욕망을 통해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식민담론을 부정하였다.

(2) ‘여왕봉’과 ‘웅봉(雄蜂)’의 존재방식

탈식민의 전망으로서 이상의 시는 식민담론이 각인된 식민화된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식민주체의 시선을 교란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하고 파시즘의 전쟁 욕망 속에서 소외된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때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절름발이’와 ‘隻脚’의 존재방식을 통해 식민담론의 인종주의적 정형화담론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소외의 위치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면, ‘여왕봉’과 ‘웅봉’의 존재방식은 피식민지인을 성적

227) 탈식민적 관점에서 식민담론의 정체성 계기에 균열을 초래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을 분열시키는 응시를 통해 차이의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언어를 차이의 언어로 명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반복과 모방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균열의 지점, 즉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차이의 시적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호미 바바, 위의 책, pp. 119-120 참조)

욕망을 통해 매춘부와 같은 형상으로 이해하는 식민담론을 모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 주체는 피식민지인을 매춘부와 같은 음란한 성적 대상으로 정형화하였는데 이상은 이러한 식민담론의 성적 욕망을 위장함으로써 정형화된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켰던 것이다. 시 <生涯>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내頭痛위에新婦의장갑이定礎되면서내려앉는다. 썩늘한무게때
문에내頭痛이비켜설氣力도없다. 나는견디면서女王蜂처럼受動的인땀
시를꾸며보인다. 나는已往이주춧돌밑에서平生이怨恨이거니와新婦
의生涯를侵蝕하는내陰森한손찌기미를불개아미와함께잊어버리는않
는다. 그래서新婦는그날그날까무러치거나雄蜂처럼죽고죽고한다.
頭痛은永遠히비켜서는수가없다.

-시 <生涯>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頭痛’에 시달린다. 그런데 시에서 시적 자아는 ‘頭痛’의 원인을 ‘新婦의장갑이定礎’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頭痛’을 견디기 위해 ‘女王蜂’을 위장한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모두 ‘주춧돌밑에서平生이怨恨’이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때 ‘新婦의生涯를侵蝕하는’ 행동은 ‘내陰森한손찌기미’와 ‘불개아미’ 때문이다. 따라서 ‘新婦’는 ‘雄蜂’처럼 ‘그날그날’ 매일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가 ‘頭痛’을 견디기 위해 ‘女王蜂’을 위장하고 다시 ‘女王蜂’이 ‘雄蜂’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상은 ‘烏瞰圖’의 경우처럼 일본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시를 암호화했는데 이때 시에서 ‘頭痛’은 식민 공간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식민담론을 식민화된 몸으로 이해했는데, 이때 식민 공간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 즉 ‘頭痛’을 견디기 위해 그는 ‘女王蜂’을 위장하였던 것이다.

소설 <날개>에서 이상은 여성을 ‘여왕봉’으로 호명하였는데, 이때 ‘여왕봉’은 남성성을 내세우는 가부장적인 식민담론에 의해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을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여왕봉’과 ‘웅봉(雄蜂)’의 존재방식은 자본주의와 결탁해 노동을 통해 식민지 수탈을 합법화하려는 식민담론의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성적 은유에 의해

피식민지인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식민 질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식민 주체는 인종적·성적 차이들의 집합함으로써 정체성의 이미지를 통해 식민담론을 구축한다. 즉 인종적·성적 차이들을 집합함으로써 식민담론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은폐하여 정체성의 수사학에 의해 식민 주체와 피식민지인의 이미지를 발명해내었던 것이다.²²⁸⁾ 나아가 제국주의는 섹슈얼리티를 내셔널리즘의 질서로 구축하여 남성다움의 이상을 산출하였는데, 이때 여성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출산과 성적 쾌락의 도구라고 하는 파시즘의 비인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⁹⁾ 이 시에서 피식민지인을 ‘女王蜂’과 ‘雄蜂’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합리적 주체를 표상하는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폭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 공간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의 위협 때문에 시적 자아는 ‘頭痛’을 느끼게 된 것이다. ‘頭痛’이 ‘비켜설氣力’이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즉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그는 ‘주춧돌밑에서平生이怨恨’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때 ‘陰森한손찌거미’와 ‘불개야미’는 일본 제국주의를 지시한다. 결국 식민공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소외된 위치에서 시적 자아는 ‘여왕봉’을 위장함으로써 ‘웅봉’으로의 삶, 즉 ‘그날그날죽고죽고’하는 노동의 수탈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적 자아가 ‘여왕봉’을 위장하는 것, 즉 여성성을 모방한다는 것은 고결함과 남성성의 주체의 위치에서 섹슈얼리티를 통해 여성성을 출산과 성적 쾌락의 도구로서 이해한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적 치환²³⁰⁾을 통해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 즉 식민담론의 성적 정형화를 교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성적 치환을 통해 그는 ‘雄蜂(일벌)’, 즉 노동을 통해 피식민지인을 착취하고 식민지 수탈을 합법화한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부정하고 ‘여왕봉’을 모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소외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이상 문학에 등장하는 남성 화자가 소설 <날개>의 남자주인공처럼 매춘부인 아내에게 빌붙어 사는 무능한 남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능력자, 광인, 비정상인을 위장함으로써 그는 노동력을 착취

228) 호미 바바, 「타자의 문제」, 위의 책, pp. 147-148 참조

229) 조지 모스, 위의 책, pp. 120-121 참조)

230) 탈식민의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의 높이는 국가의식이 성적인 위치화를 결정하는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를 치환을 통해 교란시킴으로써 성적 욕망을 통해 식민담론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 「타자의 문제」, 위의 책, p. 149 참조)

하려는 식민 주체의 욕망에 편입되지 않고 식민담론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매춘’의 소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적 타락을 드러내는 매춘의 상황을 반복과 모방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그는 성적 환유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욕망하는 가부장적인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키고 그 비정상성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이상 문학은 식민공간에서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주체의 위치와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를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을 이용하여 위치를 뒤바꿈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 욕망을 부정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식민담론을 타자의 담론으로 인식한 것은 식민공간에서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체 욕망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식민담론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봉건제도를 모방하여 가부장적인 식민질서를 구축하고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남성성의 주체로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문제를 들어 피식민지인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였는데 이상은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이러한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폭로하고 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모방과 반복을 통하여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체성의 수사학을 교란시켰던 것인데 이상 시를 차이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식민공간의 합리적 주체와는 다른 무능력한 자아를 위장하였다. 시 <悔恨의 章>은 식민지의 무능력한 자아로 위장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한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드러낸 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無力한 사내가 되기 위해 나는 열금뱅이었다
세상에 한 女性조차 나를 돌아보지는 않는다
나의 懶怠는 安心이다

양팔을 자르고 나의 職務를 회피한다
이제는 나에게 일을 하라는 자는 없다
내가 무서워하는 支配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歷史는 무거운 짐이다
세상에 대한 辭表 쓰기란 더욱 무거운 짐이다
나는 나의 문자들을 가뒤퍼렸다

圖書館에서 온 召喚狀을 이제 난 읽지 못한다

나는 이제 세상에 맞지 않는 옷이다

封墳보다도 나의 의무는 적다

나에겐 그 무엇을 理解해야 하는 苦痛은 완전히 사그라져버렸다

나는 아무때문도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에게도 또한 보이지 않을 게다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卑怯해지기에 성공한 셈이다.

-시 <悔恨의章>

이상의 미발표 유고작 시 가운데 1966년 7월 『현대문학』에 발표된 일문시 <悔恨의章>에서 시적 자아는 ‘가장 無力한 사내’의 얼굴, ‘얼금뱅이’의 얼굴로 나타난다. ‘한 여성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무능을 통해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무서워하는 支配’ 욕망, 즉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거세해나갔던 것이다. ‘무서움’이 ‘나’에게 ‘職務’을 권유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문제를 들어 피식민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식민담론을 부정하기 위해 시적자아는 ‘職務’를 회피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이때 ‘歷史는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은 역사의 책임을 운운하며 근대적·합리적 주체를 표상하는 식민담론을 의미한다. 시적 자아가 ‘세상에 대해 辭表쓰기’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圖書館에서 온 召喚狀’을 읽지 못하는 체함으로써 식민지의 지식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무능력을 위장함으로써 식민공간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세상에 맞지 않는 옷’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아부정을 통하여 ‘의무’와 ‘理解’와 같은 합리성을 내세워 피식민지인을 지배하려는 식민담론을 부정하였다. 이때 ‘아무때문도 보지는 않는다’와 ‘아무것에도 보이지 않을 게다’ 라는 상황은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울’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 공간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식민 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무능’과 ‘卑怯’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이상은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소외를 부정하고자 하였으며 매춘과 같은 성적 환유와 무능을 위장함으로써 식민담론의 비정상을 폭로하고 자아를 위협하는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3) ‘원숭이 흉내내기’와 ‘산호편(珊瑚鞭)’을 든 ‘조상’

이상은 자신의 문학적 편력과 삶의 궤적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욕망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위치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타자의 위치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을 부정하였다. 소설 <종생기>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거울을 향하여 면도질을 한다. 잘못해서 나는 생채기를 내인다. 나는 곱을 벌컥 내인다. 그러나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베스트를 다하여 제 자신만을 변호하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범인을 찾아내어내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저 어리석은 민중들은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이네”하고 마음을 놓고 지내는 모양이지만 사실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이고 지내는 바 가장 지당한 전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리라.

- 소설 <종생기> 중에서

이 소설에서 그는 ‘終生記’라는 기록을 통해 죽음을 욕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이네’라고 하는 거꾸로 된 세상 때문이다. 이때 ‘어리석은 민중들’은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이네’하면서 스스로 사람, 즉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마음을 놓고’ 지내지만, 이러한 상황이 시적 자아의 눈엔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이고 지내는 바’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민중’은 식민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로레타리아라는 계급 사상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지향한 사실주의 문학의 주체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과시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몽주의와 결합해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비근대적인 타자를 소외시키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이상은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그는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 욕망으로부터 거세해나가고자 하였다. 이 시에서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이고 지내는 바 가장 지당한 전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원숭이 흉내를 내이는 사람’을 통해 그는 근대 주체로 군림하려는 인간의 주체 욕망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담론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통하여 피식민지인을

동물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미지에 의해 타자화시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이상이 타자화의 위치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욕망을 부정하려 한 것은 주체 욕망에 의해 분열될 위기에 처한 피식민지인의 운명을 예감하고 ‘산호채찍’²³¹⁾을 든 ‘조상’²³²⁾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욕망을 거세하려 한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거울’의 소재와 함께 죽음충동이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죽음 욕망을 통하여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파시즘의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시 <咯血의 아침>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가브리엘 천사菌(내가 가장 불세출의 그리스도라 치고)
이 살균제는 마침내 폐결핵의 혈담이었다고
폐 속 페인트 칠한 십자가가 날이면 날마다 발돋움을 한다
폐 속엔 요리사 천사가 있어서 때때로 소변을 본단 말이다
나에 대해 달력의 숫자는 차츰차츰 줄어든다
- 시 <咯血의 아침> 중에서

이상의 미발표 유고시 가운데 하나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폐결핵’을 ‘가브리엘 천사’로서 인식한다. 죽음을 ‘천사’로 인식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죽음을 통해 ‘달력’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달력’은 근대라고 하는 물질화된 시간을 의미한다. 즉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근대의 물질화된 시·공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폐결핵’을 ‘가브리엘 천사菌’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영토 확장과 같은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근대 주체의 합리성과 자본주의와 결탁해 식민담론을 구축해냄으로써 주체욕망과 교환원리에 의해 인간의 소외를 초래 하였으며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을 점유해나갔

231) 이상 연구에 헌신한 김윤식 교수도 이 생명의 탕진이야말로 이상 소설의 핵심이며, 산호편이라고 평가하였는데(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pp. 304-305 참조) 본 논문에서 소설 <중생기>에 이르는 문학적 여정을 주체 욕망을 부정하는 죽음 욕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산호채찍을 든 조상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이상이 자아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232) “자네는 노옹(老翁)일세, 무릎이 귀를 넘는 해골일세. 아니, 아니. 자네는 자네의 먼 조상일세. 이상(以上)” (소설 <중생기>에서 이상은 근대 주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조상’이 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다. 이상이 죽음에 가까운 주체 부정으로 나아간 것은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까지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중생기>에 이르는 문학적 여정을 통하여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밝혀내고 마침내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생기>에 이르는 이러한 주체 부정의 과정은 이성의 조화로운 세계를 붕괴시키고 이성에 의한 구상력의 무력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송고미²³³⁾를 체험케 한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탈경계의 영역을 드러냄²³⁴⁾으로써 송고의 지점에서 이러한 체험은 합리적인 세계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해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²³⁵⁾ 죽음 욕망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이상의 시는 근대 주체라고 하는 합리성을 표방하는 식민담론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탈경계의 영역을 드러냄으로써 송고미를 체험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식민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적 지형도를 발견하고, 죽음 욕망을 통하여 자아를 위협하는 과시즘의 주체 욕망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그는 소외된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피식민지인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 <얼굴>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배고픈얼굴을본다.

반드르르한머리카락밑에어쨌서배고픈얼굴은있느냐.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

저사내어머니의얼굴은薄色임에틀림없겠지만저사내아버지의얼굴은
잘생겼을것임에틀림없다고함은저사내아버지는위낙은富者였던것인
데저사내어머니를聚한後로급작히가난든것임에틀림없다고생각되기

233) 리오타르, 이현복 역, 「송고와 아방가르드」, 『지식인의 종언』, 문예출판사, 1993, p. 171.

234) 장 록 낭시, 김예령 역, 『송고에 대하여-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문학과 지성사, 2005, p. 67.

235) 이때 이상 시의 아방가르드적인 요소와 미니멀리즘적인 예술의 특징은 구상적인 미의 체험과는 다른 송고미의 체험으로서 현대 예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오타르, 「송고와 아방가르드」, 위의 책, pp171-173 참조/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이삼출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pp. 203-208참조)

때문이거니와참으로兒孩라고하는것은아버지보담도어미니를더닮는다는것은그무슨얼굴을말하는것이아니라性行을말하는것이지만저사내얼굴을보면저사내는나면서以後大體웃어본적이있었느냐고생각되리만큼협상곳은얼굴이라는점으로보아저사내는나면서以後한번도웃어본적이없었을뿐만아니라울어본적도없었으리라믿어지므로더욱더협상곳은얼굴임은卽저사내어머니의얼굴만을보고자라났기때문에그럴것이라생각되지만저사내아버지는웃기도하고하였을것임에는틀림없을것이지만大體로兒孩라고하는것은곧잘무엇이나승내내는性質이있음에도 불구하고저사내가조금도웃을줄을모르는것같은얼굴만을하고있는것으로본다면저사내아버지는海外를放浪하여저사내가제법사람구실을하는저사내로장성한後로도아직돌아오지아니하던것임에틀림이없다고생각되기때문에또그렇다면저사내어머니는大體어떻게그날그날을먹고살아왔느냐하는것이問題가될것은勿論이지만어쨌든간에저사내어머니는배고팠을것임에틀림없으므로배고픈얼굴을하였을것임에틀림없는데귀여운외톨자식인지라저사내만은무슨일이있든간에배고프지않도록하여서길러낸것임에틀림없을것이지만아무튼兒孩라고하는것은어머니를가장依支하는것인즉어머니의얼굴만을보고저것이정말로마땅스런얼굴이구나하고믿어버리고선어머니의얼굴만을熱心으로승내낸것임에틀림없는것이어서그것이只수는입에다금니를박은身分과時節이되었으면서도無理도없는일인데그것은그렇다하더라도반드르한머리카락밑에어쨌서저협상곳은배고픈얼굴은있느냐.

-시 <얼굴>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 ‘나’는 ‘사내’의 얼굴에서 ‘배고픈얼굴’을 본다. 이때 ‘사내’는 ‘금니를박은身分’에다 ‘반드르한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협상곳은얼굴’을 감출 수 없다. 시적 자아가 ‘사내’의 얼굴에서 ‘협상곳은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사내’의 ‘내력’ 때문이다. 가난한 가정의 ‘내력’을 술회하면서 시적 자아는 ‘사내’의 얼굴이 이러한 내력을 감출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때 ‘반드르한머리카락’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라는 인식을 통해 피식민지인의 모습을 왜곡하는 식민담론의 권위를 부정한다. 나아가 ‘배고픈 얼굴’을 가진 청년의 모습을 통해 그는 식민담론이 은폐한 피식민지인의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아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시를 통해 식민담론의 정체성 ‘거울’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을

비판하고 식민담론의 타자성에서 벗어나 자아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시적 자아가 '사내'의 모습에서 '배고픈'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식민담론이 은폐한 피식민지인의 얼굴을 통해 근대 주체의 시각적 구성방식²³⁶⁾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에 의해 왜곡된 타자의 형상을 '반드르한 머리카락'처럼 겉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응시를 통하여 그는 식민지적 타자성에서 벗어나 자아의 얼굴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식민지적 타자성에서 벗어나 식민담론에 의해 은폐된 자아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식민지적 타자성의 질서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가능성으로서 타자성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식민담론이 주체로 군림하려는 타자의 담론임을 인식하고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차이를 생성,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차이의 언술을 통하여 식민 담론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한 소외를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부정하고 죽음 욕망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다. 제국주의적 시·공간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은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식민담론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해체적 자아²³⁷⁾를 통해 식민지적 타자성에 저항하는 타자성을 구현해나간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236) 가시적 세계 속에서 주체란 가시적 대상들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일이란 시각의 정치학과 연관된다. 그런데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이고 당연시되는 시각성의 방식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내밀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란 상상적 관계들에 대한 시각적인 표상을 통해 구축되기 때문에 이때 시각적 경험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항상 타자와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역사적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pp. 20-21 참조)

237) 본 논문에서 이상 시의 자아를 '해체적 자아'로서 이해하는 것은 탈식민의 관점에서 그의 시가 식민담론의 구조적 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V.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백석

제국주의 담론은 근대와 반근대, 중심과 주변, 새로운 것과 낙후된 것,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이분법을 강조함으로써 근대풍경과 근대감각에 관한 천착을 초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근대 풍경을 통하여 전근대적인 삶을 소외시켜 나갔다. 이때 백석의 시는 식민담론의 근대 풍경에서 소외된 전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발견함으로써 탈식민의 서사를 구현하고 자본주의와 결탁한 식민담론의 쾌락적인 근대 감각에서 벗어나 자연 서사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 그는 언문일치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 말소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침묵의 언어를 통해 오랜 시간 몸의 경험 속에 용해된 삶의 근원성을 지향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이분법적인 정체성에서 초월하여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였다. 즉 백석의 시는 이러한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하여 모더니즘의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²³⁸⁾ 일본의 식민담론은 근대감각을 통해 조선인을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시켰던 것인데 백석의 시는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 그리고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발견하고 이를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1. 근대 풍경의 저항으로서 서사

(1) 자연 서사와 주체의 풍경

한국 근대문학 특히 근대시에 있어서 감각²³⁹⁾의 사용법은 근대성의 발현과 실천을

238) 일찍이 오장환은 백석을 스타일만을 찾는 모더니스트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의 시를 형식의 난잡과 내용의 천박성을 들어 비판하였다. (오장환, 「백석론」, 『풍림』, 1957, 4. p. 18-19 참조) 그러나 김기림은 백석의 시가 향토적 취미에도 불구하고 지적 통제에 의한 감정의 절제에 성공했다고 보고 그의 시가 모더니티를 품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참조) 김윤식 교수도 백석의 시를 고도로 세련된 모더니즘의 일종(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80, p. 313 참조)으로 이해하였다. 이어 최두석은 백석의 초기시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영향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백석의 시가 이미지즘을 극복함으로써 의미있는 문학세계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한다.(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방법」, 『우리시대의 문학』 6, 문학과 지성사, 1987, 6, pp. 259-261 참조) 본 논문에서 백석 시를 모더니즘의 전통 안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의 시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을 지향하던 1930년대 모더니즘 시들과는 달리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를 통하여 주체 풍경에서 벗어나 과시즘의 횡포 속에서 황폐해진 자아와 세계의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모더니즘의 개인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가능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⁴⁰⁾ 그것은 미적근대성이라는 근대성의 판단 공리와 함께 근대문학을 이해하는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예술에서의 주체 개념을 대신하여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²⁴¹⁾ 그런데 이때 감각의 주체화는 근대와 공모한 제국주의 예술양식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특성을 이러한 감각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파시즘 미학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예술의 미적가치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서 사용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칸트의 근대 미학의 논리를 수용하여 이를 제국주의 미학²⁴²⁾으로 승화시켜나갔다. 칸트는 예술체험에서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공통감각’이라고 보고 미적 판단에서 보편성을 주는 것을 공통감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칸트는 공통감각을 설명하면서, 인간 본성에는 서로 다른 능력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화로운 균형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칸트의 이러한 인식은 근대 주체 개념의 공리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³⁾ 스피박은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공리가 제국주의의 문명화, 즉 식민담론의 문화 논리에 적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비판하였다.²⁴⁴⁾ 즉 예술의 좋음과 나쁨을 결정하는 판단에는 선천적인 보편성(apriori)이 없으며, 단지 시간적·공간적으로 규정된 공통감각이 있을 뿐이라는 칸트의 공리는 제국주의의 문화논리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는 충·효와 같은 봉건적 윤리를 낙후된 것으로 비하하고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을 보편성의 위치에 세움으로써 식민담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²⁴⁵⁾

239) 이때 감각이란 뇌에 지각되는 ‘심리적 속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주체에 의해 인식된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볼프강벨슈, 심혜련 역, 『미학의 경계를 넘어』, 향연, 2005, p. 39)

240) ‘근대성’의 ‘감각’에 주목해 이를 ‘미적근대성’의 입장에서 이해한 연구로는 오형엽의 연구(오형엽, 「미적 근대성, 이미지지, 감각의 사용법」, 『과라 21』 제 6호, 2004 여름호)를 들 수 있다.

241) 정혜경, 「감각의 검열과 감각의 권력화-감각의 미궁」, 『과라 21』, 위의 책, p. 53 참조

242) 오오누키 미에코 저,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미의식과 군국주의』, 위의 책, p. 27 참조.

243) 서동욱, 『차이와 타자』, 위의 책, pp. 56-57 참조.

244) 스피박은 제국주의 공리학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칸트를 지목하고 그의 저작을 비판한다. 여기서 칸트가 전제하는 보편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유럽 계몽주의의 세례를 입은 부르주아 유럽의 가부장적 남성애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 칸트의 논의에서 소외된 비유럽적 주체들은 문화나 인간성을 박탈당한 채 재현불가능한 타자로서 주체의 자리에서 축출되었다. 따라서 스피박은 이러한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을 정당화하는 기본 토대로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스티븐 모튼, 이윤경 역, 『스피박읽기』, 엘피, 2005, p. 214-218 참조)

그런데 본 논문에서 식민담론을 형성한 근대 주체의 공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은 오늘날 식민지 시대 문학인들의 친일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친일의 문제를 친일과 반일이라는 현실 논리를 통해 가치 판단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문학적 참여라는 문학내적인 흐름 안에서 정신사적 맥락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⁴⁶⁾

이때 백석의 시는 근대감각을 보편성의 위치에 세움으로써 근대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담론에 의해 황폐해진 세계와 자아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서사²⁴⁷⁾를 통해 세계와 자아의 근원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식민담론은 근대감각과 근대적 공간성을 통해 조선인을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시켰던 것인데 백석의 시는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 그리고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을 발견하고 이를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1930년대 모더니즘은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물질적인 경험과 연관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에 관한 천착으로 나타났는데, 백석의 시는 예술적 지향과는 거리가 먼 모더니즘의 이러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제국주의적 주체의 풍경과 감각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서사²⁴⁸⁾를 통해 잃어버린 자아의 근원성과 정서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245) 이때 칸트는 선과 악만이 도덕적 반성의 대상일 뿐, 행복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선 부정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일본의 타자에 대한 가해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 제국주의는 선과 악의 이분법, 즉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통해 자신을 합리적 주체로 표상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을 비정상적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시켜 나갔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담론은 칸트의 철학적 공리, 즉 서양철학에 대한 이러한 식민적 모방을 통해 구축된 것이었다. (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위의 책, pp. 87-91 참조)

246) 이는 서정주 시인이 <마쓰오 오장 송가(松井伍長 頌歌)> 라는 시를 쓴 것을 명목으로 친일을 문제 삼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대 예술의 흐름, 즉 ‘근대 감각’과 결부된 파시즘 미학의 문제를 통해 친일문학을 해명할 때, 친일과 반일이라는 현실의 논리 이외에도 문학내적인 흐름 안에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제국주의는 파시즘 미학으로서 ‘죽음’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던 것인데, 미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통해 종교적·신화적 초월을 욕망했던 서정주 시인의 시는 이러한 파시즘 미학의 흐름 속에서 역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7) 앤서니 기든스는 근대의 균열된 시간 속에서 내적 동일성을 부여하는 자아의 서사 방식을 ‘전기적 서사’라고 설명한다. 이때 그는 이러한 서사 방식을 근대라고 하는 파편화된 현실 속에서 삶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문학적 양식으로 설명하였다.(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pp. 81-84 참조) 백석의 시에도 기든스의 ‘전기적 서사’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가 자연서사를 통하여 자아의 내적 동일성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석의 시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타자성에서 벗어나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기든스의 서사와는 차이를 지닌다. 백석의 시를 탈식민의 서사로 인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는 탈식민의 서사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황폐해진 자연과 인간의 근원성을 회복하고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248)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의 언어관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저항의 언어로서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백석 시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근대 문학의 성립을 주체의 시각성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풍경의 기원으로서 인식한다.²⁴⁹⁾ 즉 풍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풍경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이 풍경을 발견하고 풍경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은 근대 주체로서 인간이 세계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²⁵⁰⁾ 백석의 시는 근대 주체의 공리를 통해 일본 근대 문학의 성립을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연대기적인 삶을 통해 근대 제국주의적 주체의 풍경에 의해 훼손된 세계와 자아의 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전통적 서사로서 이를 구현해나갔다. 이때 전통적 서사라 함은 임화의 단편서사양식과는 달리, <춘향전>과 같이 구전되어 떠돌다가 창작된 이야기체의 서술방식을 의미한다.²⁵¹⁾ 이러한 서사양식의 특징은 특정 주인공의 삶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주인공과 주변인의 삶을 통해 진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양식은 ‘나’를 중심으로하는 1인칭 독백체 혹은 고백체의 진술이 아니라, 상호 소통적이고 대화적인 진술을 지향한다. 이것은 주체중심의 사유를 지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²⁵²⁾ 왜냐하면 이러한 전통적 서사양식은 주체를 강조하는 근대 주체의 동일성 신화와는 달리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청춘’과 ‘고독’, ‘연애’와 같은 표상들은 근대 주체의 풍경 속에서로. 그로 취향과 같은 근대 감각을 유행시켰다.²⁵³⁾ 그러나 백석은 슬픔이나 고독²⁵⁴⁾과 같은 근대 감각과 자연의 인간화²⁵⁵⁾에서 벗어나 자연서사를 통해 자연과 연

의 탈식민의 서사방식과 침묵의 언어는 식민담론에 저항하는 상상적 타자성으로서 저항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249)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위의 책, pp. 48-50 참조.

250) 방민호,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pp. 111-113 참조.

251) 전통적 서사양식은 1920-30년대 백석을 비롯해 이용악, 오장환 같은 서사지향의 시들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1920-1930년대 시에 나타난 서사양식은 새롭게 창작된 근대적 양식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서사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형진, 『현대시의 서사지향성과 미적구조』, 시와시학사, 2003, p. 17참조)

252) 백석 시의 ‘서사’를 근대 서사양식과는 다른 ‘이야기체’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시가 굳이 시적 화자라는 주체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연의 생명성을 통해 자연과 연대한 인간의 연대기적인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이야기체의 서사양식은 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구전되어온 전통적 서술방식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53) 김예림,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pp. 258-259 참조.

254) 백석의 시는 자연과 연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삶을 드러내고 삶의 일상성을 통해 삶의 연대기적인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한 소외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255) 근대 이후 자연은 연대기적인 질서를 상실하고 인간으로부터 떨어져나가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즉 자연의 인간화 속에서 자연은 전적으로 인간중심적인 구도 속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고미숙, 「자연의 인간화」, 『나비와 천사』, 휴머니스트, 2006, p. 130 참조)

대한 인간의 근원적 정서를 지향하였다. 시 <늙은 갈대의 獨白>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해가진다

갈새는 얼마아니하여 잠이 든다

놀담도 쉬이 어니 낯설은 논드렁에서 돌아온다

바람이 마을을오면 그때 우리는 설게 늙음의이야기를편다

보름밤이면

갈거이와함께 이언덕에서 달보기를 한다

江물과같이 歲月의노래를부른다

새우들이 마름잎새에 올라앉는 이때가나는좋다

어니處女가 내뉘을따 갈부던을 곁었노

어니童子가 내일뉘을따 갈나발을 붙었노

어니기러기내순한대를 입에다 물고갔노

아-어니太公望이 내 젊음을 남겨갔노

이몸의 매듭매듭

잃어진사랑의허물자국

별많은 어니밤 江을날여간 강다리스배의 갈대피리

비오는어니아침 나루스배나린손의 갈대지팡이

모다 내사람이었다.

해오라비조는 곁에서

물뱀의새끼를업고나는꿈을꾸었다

-벼름질로돌아오는낫이 나를다리려왔다

달구지타고 山길로 샷자리의 벼슬을갔다

-시 <늙은갈대의 獨白> 전문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갈대’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가 ‘갈대’라는 것은 감정이입된 자연상관물의 성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연을 대상화하는

현대시의 주체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인간 주체를 대신해 자연물이 시적 자아가 된 것은 자연서사를 통하여 시인이 자연과의 연대적 삶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연대기적 삶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늙은 갈대’가 ‘물새’와 ‘달’, ‘江’과 연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 서사 속에서 ‘處女’, ‘童子’, ‘太空望’이 ‘모다 내 사람’이라고 하는 진술은 자연과의 연대적 삶을 통하여 자연과 자아의 근원성을 회복하고 연대기적인 삶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 서사 속에서 ‘갈대’는 ‘내있뇨’를 꺾고 ‘순한대’를 물고 갔으며 ‘젊음’을 앗아간 대상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감정으로 징계하지 않는다. ‘갈대’에게 그것은 ‘잃어진사랑의허물자국’이 되어 ‘갈대피리’와 ‘갈대지팽이’처럼 자신의 일부가 되어 사랑의 흔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늙은갈대의 獨白’이 근대 고독의 감각과 다른 정서를 환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시에서 죽음조차 비극적인 불행을 지시하지 않는 것은 자연서사를 통하여 시인이 제국주의적 주체와는 다른 연대기적인 삶의 질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때 ‘벼름길로 돌아오는날이 나를다리려왔다/달구지타고 山글로 ㅅㅅㅅㅅ의 벼슬을 ㅅㅅㅅㅅ’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죽음이나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삶을 통하여 화려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서 ‘ㅅㅅㅅㅅ’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기꺼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대’의 삶은 현시적이거나 과시적인 희생과도 거리가 멀다. 소박하면서도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함으로써 시인은 주체와 타자를 나누는 고독한 근대의 존재방식을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백석의 시는 주체와 세계와의 투쟁과 같은 근대 주체의 존재방식을 자연서사를 통해 부정하였다. 이때 백석의 자연 서사는 근대풍경의 가시성을 부정함으로써 근대 주체에 의해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근원성을 회복하고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였다. 백석의 시를 메를로퐁티의 침묵의 언어²⁵⁶)로서 인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백석의 시는 식민 공간이라는 근대 주체의 풍경 속에서 소외된 자연과 인간의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함으로써 근대 감각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정서를 회복하고, 언문일치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 말소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오랜 시간 몸의 경험 속에 용해된 삶의 근원성을 통해 주체의 동일성 욕망과는 다른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백석 시의 시적 주체들 중 상당수가 자연물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 <나와 지렁이>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256) 모리스 메를로 퐁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위의 책, pp. 22-23 참조.

내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천년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주면 그흙이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장마지면 비와같이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내 리과책에서는 암컷과 수컷이잇어서 색기를 나눴습니다.
지렁이의눈이 보고싶습니다.
지렁이의 밥과집이 부럽습니다.

-시 <나와 지렁이> 전문

이 시에서 ‘나와 지렁이’는 특별한 관계에서 매개된다. 즉 ‘지렁이’는 ‘나’의 애완동물 처럼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구렁이’가 되는 신비하고 영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렁이’는 합리성을 주장하는 근대 주체와는 다른, 신령한 존재로서 고대적 시간을 상징한다. 그런데 합리성의 전통 속에서 과학적 지식을 추종하는 근대적 시간성 속에서 이러한 ‘지렁이’의 존재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색기를’ 낳는 ‘리과책’ 속의 지렁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의 인간화 속에서 지렁이는 인간과 교감하던 신비하고 영험한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과학적 지식에 의해 관찰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계몽주의는 자연을 공포와 무질서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자연을 부정한다. 이때 계몽은 자연을 주술세계로 이해하고 세계를 탈마법화함으로써 자연을 인간화하였다. 이후 자연과 인간은 주술세계와 계몽의 세계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이한 존재가 되었다.²⁵⁷⁾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의 주술적 세계로부터 세계를 탈마법화한 인간은 광기를 지닌 <크로노스>의 형상²⁵⁸⁾처럼 인간을 주체화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에 의해 자연을 관찰과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즉 자연을 통해 인간의 순리를 이해하던 미메시스적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자연물들은 인간의 자화상이 반영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가 ‘지렁이의눈이 보고싶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즉 근대 주체에 의해 소외된 위치에 있는 ‘지렁이’를 통해 식민 공간에서 근

257) 노명우 편, 『계몽의 변증법』, 위의 책, pp. 118-121 참조.

258) 페트리샤 라이트 저, 『고야』, 디자인하우스, 이희재 역, 1997, p 51 참조

대적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지렁이의 밭과집이 부럽습니다’라는 것은 식민공간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연과 연대한 삶을 통해 연대기적인 삶을 이어나가려는 자아의 염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때 근대적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타자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 <모닥불>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낸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집검불도 가
락났도 머리카락도 헌집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깃도 개털억
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門長늬은이도 더부살이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
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뺨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
두 모닥불을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우리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없는 서러운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된 숲븐력사가있다
-시<모닥불> 전문

이 시에서 1연에 열거된 시어들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삶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상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닥불에 의해 삶의 일상성이 파괴됨으로써 연대기적인 삶을 형성한 관계성들이 모두 파괴된다.(2연)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 삶의 관계성이 파괴된 상황에서 ‘어미아비없는 서러운 아이’처럼 인간이 고아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3연) 이때 ‘력사’가 ‘몽둥발이’처럼 훼손되어 있는 것은 근대 주체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소외된 역사의 운명을 의미한다.

백석은 ‘민족’과 같은 거대담론을 통해 식민담론에 저항하기보다는 삶의 일상성과 관계성이 파괴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근대 주체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임을 드러내고 근대 욕망을 부정하였다. 이때 근대라는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공간화된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력사’가 ‘몽둥발이’처럼 훼손된 것은 근대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닥불’은 신에게서 불을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 주체를 상징한다. 즉 식민공간에서 근대 주체를

욕망함으로써 피식민지인들은 삶의 일상성과 관계성들이 파괴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시들 가운데 고향상실의 주제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백석의 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식민 공간에서 백석의 고향은 어떠한 외부적 폭력에도 파괴되지 않는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 <고방>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남은질동이에겐 갈줄모르는늙은집난이같이 송구떡이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오지항아리에는 삼촌이밥보다좋아하는 찹살탁주가있어서
삼촌의입내를내어가며 나와사촌은 시큼털털한 술을 잘도채어먹었다

제사스날이면 귀먹어리할아버지가에서 왕밤을밝고 짜리고치에 두부산적을
깨었다

손자아이들이 파리떼같이뭉이면 곰의발같은손을 언제나 내어돌렸다

구석의나무발쿠지에 할아버지삼는 소신같은집신이 뚝뚝이걸리어도
있었다

넛말이사는킴킴한고방의쌀독뒤에서나는 저녁끼때에불으는소리를 듣고도
못들은척하였다.

-시 <고방> 중에서

이 시에서 ‘고방’은 재래식 주택에서 저장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의미한다. ‘고방’의 이러한 장소성은 시집가서 출가한 딸, ‘집난이’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송구떡’이 있는 풍요로운 곳을 상징한다. 즉 이러한 공간은 ‘오지항아리’속에 담긴 ‘술’과 ‘두부산적’, ‘짚신’과 같은 풍요로운 삶의 기억이 저장된 저장고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억의 저장고로서 ‘고방’의 장소성은 공간성을 지시하기 보다는 연대적인 삶의 기억이 저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킴킴한 고방’에 ‘넛말이사는’것은 이 때문이다. 풍요로운 삶의 기억 속에서 연대기적인 삶은 ‘넛말’에 의해 지속된다. 이때 ‘넛말’은 언문일치와 같은 근대어의 풍경 속에서 소외된 전근대적인 삶의 기억, 즉 연대기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일상성을 지시한다. 백석의 시가 방언 지향의 시를 창작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방언과 같은 ‘넛말’을 통하여 언문일치의 근대어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넛말’의 기억을 간직하였던 것이다.

또 백석의 시에 시적 화자의 상당수가 자연물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백석은 근대 욕망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임을 인식하고 자연서사를 통해 근대 풍경에서 벗어나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제국언어인 일본어와 언문일치의 근대풍경 속에서 방언과 같은 ‘넛말’을 간직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풍경 속에서 변함없이 연대기적인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에 대한 천착에서 벗어나 근대 주체에 의해 소외된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고 삶의 근원성을 지향했던 것이다.

(2) 고독하지 않은 ‘외로움’과 어둡지 않은 ‘밤’의 서사

1930년대 조선의 식민지인들은 신감각을 내세우는 근대적 표상들을 통해 근대 감각을 경험하였다. 즉 ‘고독’과 ‘연애’와 같은 근대의 감각적 표상들은 근대 주체를 지시하는 개인적 정서²⁵⁹⁾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고독’은 연대기적인 삶의 질서가 해체된 상황에서 근대적 주체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⁶⁰⁾

그런데 백석의 시에는 근대적 인간으로서 고독이나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시가 고독이라는 근대 감각의 정서에 대하여 고독하지 않은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시 <定州城>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山턱 원두막은 뷔엿나 불비치외롭다
헌겍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의
쫓 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잠자리 조을든 문허진城터

25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p. 439.

260) 자연과 인간과의 거리감을 통해 이러한 고독의 정서는 근대 개인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소월의 <산유화>에서 ‘저만치’라고 하는 자연과의 거리에서도 나타난다.

반디불이난다 과 관隗들갓다
어데서 말잇는듯이 크다란 山새 한 마리가
어두운 골작이로 난다

헐리다 남은 城門이
한울빛가티 흰 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늪은이가
청배를팔러 올것이다
-시<定州城>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헐리다 남은 城門’처럼 붕괴된 삶의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문허진 城터’의 모습은 ‘山새한마리’조차 머무르지 않는 곳이지만 ‘반딧불’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훼손된 삶의 터전을 들여다보는 시적 자아의 태도는 외로운 ‘山턱원두막’ 속에서도 ‘헌겹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의 쪼 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다’라며 적막하지만 고독하지않은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날이밝으면 또 메기수염의늪은이가/ 청배를팔러 올 것이다’라는 것은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도 연대기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염원을 의미한다.

백석의 시는 식민 공간에서 ‘고독’과 ‘폐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침잠하지 않고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통해 근대 풍경에 저항하였다. 시 <여우난골族>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명절날나는 ㅁ매아배따라 우리집개는나를따라 진할머니진할아버지가있
는큰집으로가면

얼굴에 별자국이숨숨난 말수와같이눈도껌벽거리는 하로에베한필을짚다
는 별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낱은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호라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성이잘나는 살빛이매
감탕같은 입술과젓꼭지는더깁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무
의딸承女 아들承동이

六十里라고해서 과랴게뵈이는山을넘어잇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고끝이

뺨안 언제나흰옷이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짜때가많은 큰굶고무 고무
의딸洪女 아들洪동이 작은洪동이

배나무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들을뺨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
디젓담으러가기를좋아하는 삼촌 삼촌엄매 사촌누이 사촌동생들

아 그득히들 할마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뭉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설 발마당에 배나무동산에서
고양이잡이를하고 숨골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
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하고 이렇게 밤이어둡도록 복적하니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
이들은 아이들끼리 옷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싹방이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뺨번이나독구고 흥게닭이뺨번이나올어서 조름이오면 아룻목싸
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잡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치는아침 시누이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셋
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계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
록잔다.

-시 <여우난골族>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진할마니진할아버지가있는큰집’에서 보내는 ‘명절’ 풍경을 소개한다. ‘고무’와 ‘삼촌’과 같은 친족들을 통해 그는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삶의 다양한 내력과 표정을 가진 친족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시는 식민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절망적 상황과는 무관한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 그의 시에서 삶은 행복과 불행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 그의 시는 삶의 질곡 속에서 다양한 삶의 표정을 간직하게 된 삶의 일상성을 통해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한다.

따라서 김기림이 ‘어둠’이라고 호명했던 낙후된 전근대적인 풍경과 이상의 시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위협과 공포가 백석의 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²⁶¹⁾ 이때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논다’라는 것은 암흑과 같은 식민지 상황일지라도 어둡지 않은 ‘밤’의 서사를 간직함으로써 근대주체의 감각적 풍경인 ‘어둠’에 절망하지 않고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⁶²⁾ 어둡지 않은 ‘밤’의 서사를 통해 그의 시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건강한 삶의 일상성을 향유하는 연대기적인 삶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시 <古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아베는타관가서오지않고 山비탈외따른집에 엄매와나와단둘이서 누가
죽이는듯이 무서운밤 집뒤로는 어느山골짜기에서 소를잡어먹는노나리군
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다닌다

날기명석을저간다는 닭보는할미를차굴린다는 땅아래 고래같은기와집
에는 언제나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그득하다는 외밭가진조마구 뒷
山 어느메도 조마구네나라가있어서 오줌누러깨는재밤 머리入말의문살에
대인유리창으로 조마구군병의 새깜안대가리 새깜안눈알이 들여다보는데
나는이불속에 자지러붙어 숨도쉬지못한다

또 이러한밤같은때-시집갈치녀 망내고무가 고개넘어큰집으로 치장
감을 갖고와서 엄매와둘이 소기름에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들도록
바느질을하는밤같은때 나는아랫목의 살귀를들고 쇠든밤을내여 다람쥐치
럼 밝어먹고 은행여름을인두불에 구어도먹고 그러다는 이불웅에서 광대
넘이를뒤이고 또누어굴면서 엄매에게 웅목에두른평풍의 새뺨안천두의이
야기를 듣기도하고 고무더러는 밝는날 멀리는못난다는 뽕추라기를잡어
달라고 졸으기도하고

261) 백석의 시는 근대 주체와 공모한 식민담론의 이분법적인 정체성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피식민자의 소외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식민의 거리감각으로 근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김기림이나 식민 공간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으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욕망하는 이상의 시와는 달리 백석의 시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하고 자연과 연대한 연대기적인 질서를 통해 근대 주체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262) 백석의 시 <머루밤>에도 은 어둡지 않은 ‘밤’의 이러한 서사가 드러난다.

내일같이명절날인밤은 부엌에찌듯하니 불이밝고 솔뚜껑이놀으며 구수한내음새 곰국이무르끓고 방안에는 일가집할머니도 와서 마을의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권두기송편에 떡을빚는결에서 나는 밤소 팔소 설탕든콩가루소를먹으며 설탕든콩가루소가 가장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반죽을 주물으며 흰가루손이되어 떡을 빚고싶은지 모른다

선달에내빌날이들어서 내빌날밤에 눈이오면 이밤에 새하얀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내빌눈을만노라 못난다는말을 든든이여기며 엄마와나는 양궁웅에 떡돌웅에 곱새담웅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놓고 치성이나드리듯이 정한마음으로 내빌눈 약눈을 받는다 이눈세기물을 내빌물이라고 제주 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묵여가며 고뿔이와도 배앓이를해도 갑피기를 앓어도 먹을물이다.

-시 <古夜 > 전문

이 시에는 유년의 화자가 경험했던 ‘밤’의 기억들이 나타난다. 1연에서 그것은 ‘타관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베’대신 ‘엄매’와 ‘나’ 단둘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 시에서 이러한 삶의 외로움과 무서움은 ‘누가죽이는듯이무서운밤’에 ‘소를잡어먹는노나리꾼’들이 울까봐 무서워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런 밤은 또 ‘외발가진조마구’가 울까봐 겁이 나서 ‘이불속에 자즈러붙어 숨도쉬지못’하는 밤이다.(1, 2연) 그러나 ‘밤’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밤’의 시간성은 무서움에 침잠하지 않고 시집갈 ‘땅내고무’와 ‘엄매’가 함께 ‘바느질’을 하는 ‘밤’이기도하다.(3연) 또 이것은 ‘명절날밤’처럼 음식을 장만하느라 흥성흥성한 밤이기도 하다.(4연) 그리고 그것은 ‘새하얀할미귀신도 내빌눈을 받노라 못난다’는 전설 속의 밤이기도 하는 것이다.(5연) 시적 자아는 유년의 기억과 관계된 다양한 밤의 기억들을 통해 식민담론이 날조한 과거의 시간성을 회복하고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제국주의적 주체의 근대 감각과 풍경 속에서 어둠과 공포, 절망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일상성을 통하여 훼손된 삶의 생명성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제 아무리 무서운 ‘밤’의 기억이 있었을지라도 시집가고(3연), 음식을 장만하는(4연) 삶의 일상성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밤’의 서사를 통해 근대 주체의 삶 속에서 초래된 갈등과 무서움을 해소하고 자연과 연대한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5연)

이때 연대기적 삶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은 각각 별개의 삶이 아니라, 자연과 연대한 유사성의 세계²⁶³⁾ 속에서 연관성을 갖는다. ‘내빌눈’을 받아 ‘배앓이’를 고치는 것은 자연과의 유대를 회복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비정상성을 치유하고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과의 유대를 회복함으로써 무서움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그는 자연을 소외시키는 근대 주체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사고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시 <흰 밤>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넛城의돌담에 달이올랐다
 묵은초가집웅에 박이
 또하나달같이 하이양게빛난다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과부하나가
 목을매여죽은밤도이러한밤이었다

-시 <흰 밤> 전문

이 시에서 ‘넛城의돌담’위에 ‘달’은 ‘묵은초가집웅에박’처럼 인간의 삶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연과의 이러한 연대적 질서 속에서 ‘수절과부하나가 목을매여죽은밤도이러한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인간의 비극적 상황, 즉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죽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식한다.²⁶⁴⁾ 이때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자연화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유사성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반영하는 연대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즉 백석은 두려움과 공포, 갈등과 절망을 초래하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을 부정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유사성을 회복함으로써 연대기적인 삶을 통해 근원적인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263) 푸코는 르네상스로 불리는 16세기, 17·18세기의 고전주의 시대, 근대, 현대의 네 시기로 서구 문화를 구분하고 이러한 네 시기의 특징을 ‘유사성’을 통해 설명한다. 즉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유사성’에 의해 설명하면서 그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를 ‘유사성’의 질서에 의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상실하고,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 인간은 이전까지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광래 편, 『미셸 푸코』, 민음사, 1989, pp. 154-200 참조)

264) “어린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갔다”라고 하는 백석의 시 <女僧>은 자연친화적인 유사성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죽음이 공포나 비극적인 성격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3) 공포스럽지 않은 ‘무서움’과 슬프지 않은 ‘눈물’의 정서

일본의 식민담론은 자신들의 과거를 신화화하고 조선의 전통을 낙후된 것으로 비하해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조선의 역사를 날조하고 가부장적인 식민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외형적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의 기억조차 날조한다. 이때 조선의 역사와 과거를 날조하고 역사적 기억 속에 자신들의 신화화한 과거를 기입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본래적 삶의 방식을 지우는 식민담론의 이러한 행위는 ‘의고적인 식민지적 타자성’²⁶⁵⁾을 의미한다. 근대 주체와 공모한 식민담론은 조선인의 삶의 일상성을 전근대적인 낙후된 것으로 비하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삶과 과거의 기억들을 날조하였던 것이다. 이때 근대 주체를 지향하는 식민 공간 속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전근대적인 삶의 방식은 미신을 숭상하는 비정상성의 행동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인간과 자연과의 유사성의 관계가 파괴된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자연을 숭배한다는 것은 비정상성의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 <가즈랑집>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승냥이가새끼를 치는전에쇠메든도적이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밑의

山 넘어마을서 도야지를 잃는밤
즈생을쫓는 깁제미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집

닭개즈생을 못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촌을지나는집

예순이넘은 아들없는가즈랑집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
을을 가면 긴담뱃대에 독하다는막써래기를 땃대라도 붓일라고하며

간밤엔 섬돌아래 승냥이가왔었다는이야기

어느메山곶에선간 꿈이 아이를본다는이야기

나는 돌나물김치에 백설기를먹으며

265) 호미 바바, 「의고적인 것을 분절하기」, 위의 책, p. 246.

넷말의구신집에있는듯이

가즈랑집할머니

내가날때 죽은누이도날때

무명필에 이름을써서 백지달아서 구신간시렁의 당즈께에넣어 대감

님께 수영을들었다는 가즈랑집할머니

언제나 병을앓을때면

신장님달련이라고하는 가즈랑집할머니

구신의딸이라고생각하면 슬버졌다

토끼도살아온은다는데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치 가

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물을하는 가즈랑집할머니를말으며

나는벌서 달디단물구지우림 둥글네우림을 생각하고

아직멀은 도토리묵 토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우란 살구나무아래서 광살구를찾다가

살구벼락을맞고 울다가웃는나를보고

미꾸멍에 털이뻗자나났나보자고한것은 가즈랑집할머니다

찰복숭아를먹다가 씨를삼키고는 죽은것만같이 하로종일 놀지도못하고

밥도안먹은것도

가즈랑집 마을을가서

당세먹은강아지같이 좋아라오래를 설레다가였다

-시 <가즈랑집> 전문

이 시에서 가즈랑 고개는 황해도 백천 지역, 가주녕고개의 작은 산골마을을 뜻한다. 그곳은 ‘승냥이가새끼를치는’ 마을로 ‘증생을쫓는 깽제미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 집’이 있는 한적한 산골마을이다. 이곳에 ‘예순이넘은 아들없는 가즈랑집할머니’가 사는데 그 할머니의 성격을 화자는 ‘아들’도 없이 ‘중같이 정해서’라고 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상황과 성품을 소개한다. 마을 사람들이 ‘긴담뱃대에 독하다는막새래기를 뗏대라도 붓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할머니의 외로운사정을 위로하려

는 것이다. ‘간밤엔 섬돌아래 승냥이가왔었다는이야기 /어느메山곶에선간 꿈이 아이를 본다는이야기’가 전해내려오는 이러한 산골마을의 시·공간을 통해 시인은 자연과의 유사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유사성의 존재방식 속에서 시적 자아의 삶은 ‘내가날때 죽은누이도날때’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이’의 삶과 매개되고, 삶과 죽음도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무명필에 이름을써서 백지달어서 구신간시령의 당즈께에넣어 대감님께 수영을들었다는 가즈랑집할머니’를 통하여 시적 자아는 이러한 유사성의 매개자로서 ‘가즈랑집할머니’가 존재해왔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화자는 ‘당세먹은강아지같이 좋아오래설레다가’하였던 삶의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할머니의 존재를 ‘구신의딸’이라고 생각하는 식민공간의 합리적 존재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때 근대 주체를 표방한 식민담론은 샤먼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공포의 원인으로 부정함으로써, 과학적·합리적 인식을 통해 유사성의 삶의 존재방식을 비정상성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즈랑집할머니’는 미신과 우상을 통해 사회악을 전염시키는 공포의 대상, ‘구신의 딸’로서 호명되었던 것이다. 시적 자아가 ‘신장님달린이라고하는 가즈랑집할머니/ 구신의딸이라고생각하면 숯버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년의 기억을 통하여 유사성의 존재방식간직한 시적 자아에게 식민 공간의 합리적 존재방식은 슬픔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년기의 기억을 간직한 화자에게 ‘가즈랑집할머니’는 ‘구신의딸’이라는 무녀²⁶⁶⁾의 정체성으로서 아니라,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의 서사 속에서 친숙한 할머니일 뿐이었던 것이다.

백석의 시는 식민 공간의 합리적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무섭지 않은 무서움의 서사를 통해 근대 주체의 위협적인 공포와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과 연대한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통해 삶의 생명력을 회복한다.²⁶⁷⁾ 즉 주체와 타자를 분리하는 근대 주체의 풍경 속에서 백석의 시는 공포의 계기들을 무섭지 않은 무서움의 서사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어둠과 공포, 소외의 근대 풍경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백석의 시가 치유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의 시에서 ‘병’이 ‘자연물’을 통해 치유되는 장면은 ‘병’의 원인이 자연과의 유사성의 관계를 상실하고 인간중심적

266) “애기무당이 작두를타며 웃을하는때가 많다”는 백석의 시 <三防>도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인물로서 ‘무녀’가 등장한다.

267) 백석의 시 <오금덩이라는 곶>은 ‘무서운 것이 많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의 어디에서도 공포스럽거나 괴기스러운 무서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 삶을 살게 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 <古夜>에서 ‘내빌눈’을 받아 ‘약
눈’으로 ‘고빨’과 ‘배앓이’를 치유하는 장면은 근대 체험을 ‘공포’의 기억으로 수용했던
이상의 ‘병’²⁶⁸⁾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석시의 자연서사가
탈식민의 의미에서 반근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시 <未明界>는
근대적인 슬픔의 감각에 대하여 슬프지 않은 ‘눈물’의 정서를 통해 ‘서러움’이 삶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서사 가운데 하나임을 드러낸다.

자든답이올어서 술국을끄리는듯한 鰵湯집의부엌은 뜨수할것같이 불
이뿌연히밝다

초롱이히근하니 물지게군이우물로가며
별사이에바라보는그믐달은 눈물이어리었다

행길에는 선장대여가는 장군들의중이燈에 나귀눈이빛났다
어데서 서러웁게 木鐸을뚜드리는 집이었다
-시<未明界> 전문

이 시에는 ‘술국을끄리는듯한 鰵湯집의부엌’이 등장한다. 새벽 ‘未明’의 시간을 배경
으로 ‘뜨수할것같이’라고 하는 불빛을 통해 새벽의 서늘함과 불의 따뜻함이 교차되는
가운데, 부엌에서 끓는 ‘술국’은 삶의 괴로움과 따뜻함을 의미한다. 어두운 새벽녘 ‘우
물’에서 ‘물지게군’이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믐달의 눈에 ‘눈물’이 어리
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그믐달’의 ‘눈물’은 삶의 질곡과 비애
의 ‘슬픔’만을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눈물’처럼 삶의
‘서러움’을 이해하고 관조하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이때 이러한 ‘눈물’은 서러운 일상
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새벽녘에 ‘술국을끄리는’ 행위와 연관된다.

이때 이러한 ‘눈물’의 정서는 주체의 자기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삶의 질
서를 상징하는 상호 교감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근대 주체의 감각적 슬픔과는 달리
‘서러움’의 정서를 통해 그는 연대기적인 삶의 교감 속에서 상대방의 삶을 관조하고
너그럽게 그것을 보듬어주려는 것이다. 백석의 시에서 이러한 ‘서러움’의 정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²⁶⁹⁾ 상호 교감적인 ‘눈물’의 정서 속에서 삶은 극복되어야

268)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꼭 치료를 기다리는 무병(無病)이 끝끝내 있다”- 이상의 시 <紙碑>

할 것이 아니라, 일상성을 통해 지속되는 의미인 것이다. 일상성의 이러한 삶 속에서 ‘서러움’이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오리 망아지 토끼>에서 이러한 ‘서러움’은 어린 아이의 놀이를 통하여 삶의 일상성을 나타낸다.

오리치를 놓으려아배는 논으로날여간지오래다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떨어트리며 날어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붙으며 울다가
시악이나서는 등뒤개울물에 아배의신짱과 버선목과 대님오리를 모다
던져별인다
장날아침에 앞행길로 엄지딸어지나가는망아지를내라고 나는졸으면
아배는행길을향해서 크다란 소리로
-매지야나오나라
-매지야나오나라

새하여가는아배의지계에치워 나는山으로가며토끼를잡으리라고생각한다

맞구멍난토끼굴을아배와내가막어서면 언제나 토끼새끼는 내다리아래로
달아났다
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한다
-시 <오리 망아지 토끼> 중에서

여기서 ‘오리치’는 야생오리를 잡으려고 삼베 등으로 만든 올가미를 말한다. 이 시에서 ‘아버지’와 ‘나’는 ‘오리’를 잡으려고 ‘논’으로 갔는데, ‘오리’가 잡히지 않자 ‘나’는 ‘시악이나서’ 때를 쓰며 운다. 또 어느 ‘장날아침’에 ‘나’는 ‘아버지’에게 ‘망아지’를 내놓으라고 때를 쓴다. 그러자 아버지는 ‘매지야나오나라’하며 ‘나’를 달랜다. 이번에도 ‘나’는 ‘山’에서 ‘아배’와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맞구멍난토끼굴을아배와내가막어서면 언제나 토끼새끼는 내다리아래로 달아났다’라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도 ‘토끼’는 ‘나’를 피해 달아난다. 이때 ‘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한다’는 것은 슬픔의 감각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기연민의 슬픔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소원 충족의 좌절인 것이다. 일상의 혼한 좌절의 표정을 통해 그는 인간의 욕망을 어린아이의 혼한

269) 소설 <마을의 寓話>에도 이러한 정서가 등장한다.

놀이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소원 충족을 위해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가족의 연대²⁷⁰⁾를 통해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된 ‘고독’을 감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그가 삶을 놀이로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그는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실패와 불운, 불행을 이해하고 욕망의 좌절에도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놀이로서의 삶²⁷¹⁾을 통해 일상성의 삶을 긍정함으로써 삶을 욕망의 원천으로서 이해하는 식민 주체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공포스럽지 않은 ‘무서움’과 자기연민과는 다른 ‘서러움’의 정서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에서 파생된 공포와 소외의 감각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시 <木具>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五大나 날인다는 크나큰집 다 찌글어진 들지고방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쿠지와 솥돌과 신탕과 그리고 냇적과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니
살으면서

한해에 몇번 매연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멀머리에 외얗맹건을 질으터 맨 늙은 제관의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우 웅에 모인 신주앞에 환한 초불밑에 피나무 소담한 재상위에
떡 보탕 시케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함문뒤에는 흠향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것

구신과 사람과 녀과 목숨과 잇는것과 없는것과 함춤과 한점살과 먼 냇
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것

내 손자의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水原白氏 定州白村의 힘세고 꾀꾀하나
어질고 정많은 호랑이같은 곰같은 소같은 피의 비같은 밤같은 닭같은

270) 가족의 연대를 보여주는 시로서 그의 시 <修羅>를 들 수 있다. 백석은 이 시에서 비록 미물이지만 거미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의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이것의걱정을하며있다가 쉬이 맞나기나했으면 좋으려만하고 슬버한다” -시<修羅>

271) 로제 카이와, 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p. 19.

슬픔을 담는것 아 슬픔을 담는것

-시 <木具> 전문

이 시에서 그는 공포스럽지 않은 ‘무서움’과 슬픔의 감각과는 다른 ‘서러움’의 정서를 결합함으로써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드러낸다. ‘컴컴한 고향 구석’에서 있는 ‘목구’를 통해 합리적 주체를 표상하는 식민 공간 속에서 공포와 슬픔의 감각과는 다른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과 ‘목구’가 원래는 ‘구신과 사람과 냇과 목숨과 있는것과 없는것과 함춤과 한점살과 먼 냇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것’이라는 인식은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구’의 존재를 통해 ‘내 손자의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근대적 주체로서 현재성의 자아를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삶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때 ‘슬픔’은 근대 주체의 자기연민과 같은 슬픔이 아니라, ‘힘세고 곳곳하나 어질고 정많은 호랑이같은 곰같은 소같은 피의 비같은 밤같은 닭같은 슬픔’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슬픔-서러움’은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식민지적 타자성의 소외에서 비롯한 슬픔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삶의 존재방식에서 자연과 연대한 상호교감의 정서를 의미한다.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을 통해 백석의 시는 주체의 풍경과 ‘고독’이나 ‘슬픔’과 같은 근대 감각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인간의 정서를 회복함으로써 식민 공간 속에서 삶의 생명력을 치유해나갔던 것이다.

2.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는 경험 공간의 발견

(1) 변방의 발견과 가난하지 않은 ‘가난’의 경험

한국 현대시에서 감각의 주체화는 모더니즘이 유입된 이후 기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 존재방식과 일상적 삶의 근간을 이루던 인간의 근원적 정서들은 감각의 주체화, 즉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됨으로써 변방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백석의 시에서 변방 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백석의 시는 변방체험을 통하여 근대 주체의 풍경과 근대 감각에서 소외된 일상적 삶의 존재방식을 발견하고 경험을 통하여 주변부로 밀려난 삶의 일상

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행시²⁷²⁾를 통하여 경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여행을 통하여 제국주의 담론에 편입되지 않는 근대 감각의 ‘변방’을 발견하고 이러한 변방의 삶을 훼손될 수 없는 삶의 근원성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여행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 사유에서 벗어나 변방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그는 변방을 발견하고 경험적 서사를 결합함으로써 경험공간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공간을 통해 그는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의 기억의 저장소로서 유년기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풍경에서 벗어나 삶의 근원성을 발굴해 나갔던 것이다. 시 <三千浦>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줄레줄레 도야지새끼들이들어간다
귀밧이 재릿재릿하니 벗이 담복 따사로운거리다

재서덤이에 까치올으고 아이올으고 아지랑이올으고

해바라기 하기조홀 벼수곡간마당에
벼수집가터 누우란 사람들이 둘러서서
어너눈오신날 눈을츠고 생긴듯한 말다툼소리도 누우라니

소는 기르매지고 조은다

아 모도들 따사로히 가난하니
-시 <三千浦> 전문

‘삼천포’를 여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시적 자아는 이 시에서 식민 공간에 편입되지 않는 변방을 발견하고 경험적 서사를 통해 경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때 ‘三千浦’는 일본 식민담론의 근대적 지형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경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귀밧이 재릿재릿하니 벗이 담복 따사로운거리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낸다. 즉 그곳에서는 ‘어너눈오신날 눈을츠고 생긴듯한 말다툼소리도 누우라니’라고 하여 다툼조차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는 삶의 일상성을 통해 파시즘 전쟁의 식민 공간에서

272) 시집 『南行詩抄』, 『咸州詩抄』, 『西行詩抄』의 여행을 모티브로 창작된 시들.

벗어나는 것이다. 시적 자아가 ‘아 모도들 따사로히 가난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식민공간 속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소외된 ‘가난’이라는 감각에서 벗어나, 식민 공간에 편입되지 않는 변방체험을 통해 삶의 일상성과 소박한 삶의 경험을 통해 ‘가난’을 드러냄으로써 ‘가난’의 경험이 삶의 일상성과 근원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즉 그는 변방체험을 통해 가난하지 않은 이러한 ‘가난’의 서사를 발굴함으로써 식민지의 소외된 삶에 절망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였던 것이다. 시 <固城街道>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固城장 가는길
해는둥둥높고

개한아 열린하지안는 마을은
해발은 마당귀에 땃방석하나
뽕아코 노락코
눈이시울은 곱기도한 건반밥
아 진달래 개나리 한창뛰엿구나

가까이 잔치가잇서서
곱디고흔 건반밥을 말리우는마을은
얼마나 즐거운 마을인가

어쩐지 당홍치마 노란저고리입은 새악시들이
웃고살을것만가튼 마을이다
-시 <固城假道> 전문

‘固城장’을 가면서 시적 화자는 길 위에서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을 바라본다. 이곳은 가난으로 ‘개’모임조차 하지 않는 마을이지만 잔치 때 쓰는 약밥인 ‘건반밥’을 만들어 넣어놓는삶의 여유가 있는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비록 식민지에 예속된 삶일지언정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固城장’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식민지의 가난한 삶에 절망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시적 자아가 ‘어쩐지 당홍치마 노란저고리입은 새악시들이 웃고살을것만가튼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즉 그는 변방 체험을 통해 식

민지의 가난한 삶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향유함으로써 식민지적 소외로 인한 절망에 침잠하지 않고 삶을 긍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현실을 망각한 유년기적 자아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대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을 부정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시 <黃日>은 변방으로 밀려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려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드러낸다.

한 十里 더가면 절간이 잇을듯한마을이다
낮기울은 빛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중략)
어데서 송아지 매-하고운다
골갯논드렁에서 미나리밟고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가 흙작난하며 놀지 왜우노
자개발독에 엄지 어데안가고 누었다
아룻동이 선가 말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룻동이 망아지 네소리 무서울라
담모도리 바윗장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잡 한잡 자고나서 세수한다
힌구름 건넌산으로 가는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넌산 보고 불으는 푸념이 간지럽다
저기는 그늘 그늘 여기는 쨍쨍
저기는 그늘 그늘 여기는 쨍쨍
-시 <黃日>중에서

해가 저무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이 시는 식민 주체로 군림하려는 식민담론의 욕망을 가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외면한 식민 공간의 주체 풍경을 ‘그늘’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식민 공간에서 밀려나 변방의 삶 속에서 가난하지만 생을 긍정하려는 존재방식을 통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여기는 쨍쨍’이라고 하는 따사로운 삶의 경험을 식민공간의 ‘그늘’진 풍경과 대비하는 것이다. 식민지의 변방을 여행하면서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존재방식을 발견하고 소박하지만 가난한 삶의 즐거움을 통해 생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변방 체험을 통하여 고향 상실로 인한 삶의 소외를 극복하고 연대기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하였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과는 다른 연대기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통하여 그는 고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 <統營>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舊馬山の 선창에선 조아하는사람이 울며날이는배에 올라서오는 물길이
반날
갓나는고당은 갓갓기도하다

바람맛도 짹짹한 물맛도짹짹한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조코
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조코

새벽녘의거리엔 쿵쿵 북이울고
밤새스것 바다에선 뽕뽕 배가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십흔곳이다

집집이 야이만한 피도안간 대구를말리는곳
황화장사령감이 일본말을 잘도하는곳
처녀들은 모두 漁場主한테 시집을가고십혀 한다는 곳

山넘어로가는길 돌각담에 가웃하는 처녀는錦이라든이갓고
내가들은 馬山客主집의 어린딸은 蘭이라느이갓고
蘭이라느이는 明井골에산다는데
明井골은 山을넘어 冬栢나무푸르른 甘露가튼 물이솟는 明井 샘이잇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깃는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조아하는 그이가
잇슬것만 같고
내가조아하는 그이는 푸른가지붉게붉게 冬栢꽃 피는철엔 타관시집을 갈것

만가튼데
긴도시끼고 큰머리언고 오불고불 넘엿거리로가는 女人은 平安道서 오신
듯한데 冬栢꽃피는철이 그언제요

벧 장수모신 날근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안저서 나는 이저녁 울듯울듯 閑
山島바다에 벧사공이되어가며
녕나즌집 담나즌집 마당만노픈집에서 열나흘달을업고 손방아만찢는 내
사람을생각한다

-시 <統營>전문

이 시에서 ‘統營’은 바다를 생의 근원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화자는 ‘客主집’의 ‘어린딸’이 사는 ‘明井골’을 상상하며 그곳에서 ‘내가 조아하는 그이’가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統營’이라는 곳은 ‘선창에선 조아하는사람이 울며날이는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서 떠나온 고향과 사랑하는 내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고향 상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였던 것이다.

변방 체험을 통해 그는 고향 상실로 인한 삶의 소외를 극복하고 연대기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식민 공간의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경험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때 이러한 경험 공간은 유년 공간처럼 식민지 현실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상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상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라는 소외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여행을 통해 변방을 발견하고 경험적 서사를 결합함으로써 조선의 영토를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식민지적 지형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공간을 통해 근대 주체의 시간성과 식민담론의 공간성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상 공간의 구축은 식민지적 타자성에서 벗어나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⁷³⁾

273) 상상공간으로서 이러한 내면공간의 발견은 백석 시를 모더니즘의 전통 안에서 조명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낭만주의적이고 미학적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을 지향하는 가운데 개인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위기 속에서 백석 시는 내면공간을 발견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이다.

(2)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는 근원적인 생의 행복

백석의 시는 소박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근원성을 이해한다. 가난하지 않은 ‘가난’의 서사 속에서 그는 소박하면서도 가난한 삶의 일상성을 통해 근원적인 삶의 행복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행복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과는 다른 자연과 연대한 인간의 삶의 유사성을 회복하고 연대기적인 삶을 지속하려는 생명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합리적 주체로서 식민담론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해 파시즘의 도덕적 질서를 발명해내고 피식민지인의 삶을 선·악의 도덕적 판별 기준을 통해 지배하였다. 즉 식민담론은 서양의 제국주의를 모방한 식민지적 모방의 과정이었는데 제국주의는 오로지 선과 악만이 도덕적 반성의 대상일 뿐 행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던 칸트의 근대 주체 공리를 수용하고 행복의 도덕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피식민지인들의 삶을 제국주의적 주체의 도덕적 기준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욕망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인간형을 양육하고자 하였다.²⁷⁴⁾

백석의 시에서 가난하지만 소박한 음식을 통해 삶을 지속하려는 생명성은 이런 의미에서 제국주의적 인간형과는 다른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과 연관된 것이었다. 시 <膳友辭>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냇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나와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고 다할것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물밑 헤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탓이다

바람좋은 한 별관에서 물닭이소리를들으며 단이슬먹고 나이들은탓이

274) 김상봉, 『도덕교육의 파시즘』, 위의 책, p. 83 참조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없어 히여졌다
착하다 착해서 세팏은 가시하나 손하귀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없다
그리고 누구하나 부럽지도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같은건 밖어나도 좋을것같다
-시 <膳友辭>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흰밥과 가재미’라고 하는 소박한 음식을 대면한다. 그런데 이때 시적자아는 이러한 음식을 ‘우리들’로 인식한다. 가난하지만 소박한 음식을 통해 삶의 연대기적인 생명성을 지속함으로써 그는 식민주체의 도덕적 인간형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근원적인 행복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가 가난하지만 소박한 음식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의 생명성을 지속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이 제공하는 화려한 근대의 감각적 쾌락을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않다/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없다/그리고 누구하나 부럽지도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우리들이 같이 있으면/세상같은건 밖어나도 좋을것같다’라는 것은 삶의 생명성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욕망과 감각적 쾌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삶의 근원적인 행복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를 부정하는 백석의 시는 투쟁적이거나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외면’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백석의 시가 육성언어²⁷⁵⁾를 지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나아가 백석의 시가 민족이나 전통과 같은 거대담론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275) 식민담론에서 근대 주체는 종종 ‘공공의 토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합리적 주체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살아있는 힘’으로써 명료화하였던 것이다. (호미 바바, 「교활한 교양」, 위의 책, pp. 194-195 참조)

근원적인 삶의 일상성과 행복을 지향하였던 것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토착적인 문화적 전통을 주장하고 억압된 역사를 되찾기 위해 식민 공간에서 전통의 뿌리를 찾아 과거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일은 낭만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²⁷⁶⁾ 따라서 그는 삶의 일상성과 근원적인 생명성을 발굴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 근대풍경의 감각적 쾌락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풍경에서 벗어나 백석의 시는 연대기적인 삶의 기억의 저장고로서 유년의 의미공간에서 변방체험을 통해 경험공간으로, 나아가 상상 공간을 발견함으로써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러한 상상 공간의 발견은 식민지적 타자성을 부정하는 탈식민적 타자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불운한 건축가로서 구조주의적 독법으로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죽음 욕망을 통해 식민 공간에서 탈주를 감행한 이상과 비교해 볼 때, 백석 시의 상상공간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년의 의미공간에서 경험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발견한 상상적 타자성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백석의 시에서 시적 자아가 근원적인 생의 행복을 향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饗樂>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초생달이 귀신불같이 무서운 山골거리에선
첨아끝에 종이등의 불을 밝히고
찌락찌락 떡을친다
감자떡이다
이젠 캄캄한 밤과 개울물 소리만이다.
-시 <饗樂> 전문

산골마을에서 한밤중에 ‘감자떡’을 빚기 위해 떡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적 자아는 이러한 모습을 ‘饗樂’이라고 호명한다. 일상적인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잔치를 누리는 기쁨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소박하지만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캄캄한 밤과 개울물 소리만이다’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을 등지고 소박한 삶의 일상성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근원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근원적인 생의 기쁨을 향유한다는 것은 비록 식민지의 조악한 현실

276) 호미 바바, 위의 책, p. 41.

일지라도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연대기적인 삶의 즐거움을 즐기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 식민담론은 식민지라는 영토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역사,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점유함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 인간의 무의식까지도 점유해나갔던 것이다. 이때 고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외부적 영토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성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백석의 시가 삶의 근원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향하거나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통해 고향상실을 노래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적 영토의 경계를 넘어 삶의 근원성을 지향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의 위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즐거움을 향유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백석 시의 자아가 '나'라고 하는 주체로 강화되기 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연대적 자아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는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고 삶의 소박하지만 근원적인 즐거움을 향유한다는 것은 식민 경험 속에서 상실한 삶의 근원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 경험공간을 발견하고 상상공간을 통해 생의 근원성을 회복하려는 백석의 시는 식민지적 타자성에 저항하는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타자성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타자성의 자아와 침묵의 언어

(1) 상상적 타자와 타자성의 자아 발견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풍경에서 벗어나 백석의 시는 연대기적인 삶의 기억의 저장고로서 유년의 의미공간에서 변방체험을 통해 경험공간을 구축하고 나아가 상상 공간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상 공간의 발견은 식민지적 타자성을 부정하는 탈식민적 타자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석의 시에서 시적 자아가 근원적인 생의 행복을 향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백석 시의 상상공간-내면공간은 식민지적 타자성의 현실 속에서 개인성의 위기에 처한 모더니즘 예술의 위기를 극복²⁷⁷⁾하고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잃어

277) 모더니즘 예술에서 개인의 위기는 예술을 위한 예술인가, 사회를 위한 예술인가라고 하는 예술에 대한 회의를 초래했다. 과시즘과 같은 전쟁을 목도하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절망은 형식적이고 미학적 인 예술로서 모더니즘 예술과 사회현실과 관계된 혁명적인 예술로서 반모더니즘 예술이라는 상반된 입장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예술과 현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버린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아를 회복하였다. 백석 시를 모더니즘시사 속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더니즘은 낭만주의 예술을 지향하는 미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욕망으로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관한 천착을 낳았다. 더구나 과시즘의 위기 속에서 모더니즘 예술은 유혹자로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였다.²⁷⁸⁾

백석의 시는 식민담론의 주체와 타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식민담론을 통해 날조된 낙후된 피식민지의 문화적 위치²⁷⁹⁾에서 벗어나 삶의 연대기적인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그것에 저항하였다. 즉 그는 예술의 근원적 범주로서 문화의 가치가 특정 시대의 시·공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삶을 통해 성립된다고 인식함²⁸⁰⁾으로써 근대 감각의 쾌락적 풍경을 통해 근대 문화의 주체로 군림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담론을 부정하고, 오랜 시간 몸의 경험 속에 축적된 삶의 기억들을 통해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소외된 문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백석 시의 시적 자아가 주체를 강화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연서사에서 나아가 ‘우리’라고 연대기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는 근대 주체라고 하는 문화의 위치를 부정하고 나아가 식민담론이 날조한 조선의 역사와 전통²⁸¹⁾에서 벗어나 삶의 연대기적인 근원성을 회복함으로써 부재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통해 문화적 가치들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식민담론의 문화적 위치에서 벗어나 그는 변방체험을 통해 경험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상공간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성과는 다른 상상적 타자를 발

모더니즘 예술은 개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타락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예술의 개인주의는 인류의 자기실현을 위한 진보인지, 아니면 인류의 역사에서 비인간화되는 타락의 경로인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지 개블릭 저, 김유 역, 『모더니즘은 실패했는가』, 현대미술사, 1999, p. 30 참조).

278) 다니엘 벨 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오세철 역, 전망사, 1980. p. 31.

279) 바바는 식민담론이 이러한 문화의 위치에 의해 구축된다고 보고 동질적인 민족의 문화나 역사적 전통들, 나아가 유기체적인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들도 탈식민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재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탈식민의 관점에서 문화의 위치에 주목하였다. (호미 바바, 위의 책, pp. 34-35 참조)

280) 이때 문화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의 교차점을 이루는 역사성과 자연성에서 유도된 개념이다. (서인식, 차승기, 정중현 엮음, 『서인식 전집 1』, 역락, 2006. p. 57 참조)

281) 에릭 홉스봄은 통상 낡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낡은 것이라 주장하는 ‘전통들(Tradition)’도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전통이라는 것도 근대적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p.19 참조)

견하였다. 시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燒酒를 마신다
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밤 힌당나귀를타고
산골로가자 출출히 우는 깊은산골로가 마가리에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벌써 내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것이아니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힌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것이다
-시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 전문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사랑하는 여인인 ‘나타샤’와 ‘힌당나귀’와 함께 눈 오는 밤 한적한 산골에 앉아 있다. ‘산골로가자 출출히 우는 깊은산골로가 마가리에살자’라고 하는 시적 자아의 말에 호응이라도 하듯 ‘나타샤’는 ‘언제벌써 내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때 ‘힌당나귀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자아가 사랑하는 여인인 ‘나타샤’가 현실에서 불러낸 인물이 아니라, 시적 자아의 상상 속

에서 불러낸 상상적 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탈식민의 타자성으로서 식민지적 타자성과는 다른 이러한 상상적 타자의 발견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것이 아니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것이다’라고 하는 내면공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 공간을 응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내면 공간에서 상상적 타자를 불러내고 이러한 타자와의 연대를 상상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식민지적 자아의 소외 속에서 소외의 위치에 침잠하지 않고 내적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때 타자성에 내적이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과한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가시성²⁸²⁾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적 주체의 가시적 시선에서 벗어나 자아의 내면에서 상상적 타자를 불러내고 이를 통해 상상적 타자와 결합함으로써 백석 시의 시적 자아는 식민지적 타자화라고 하는 피식민지인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과는 다른 내적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시 <故郷>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北關에 혼자 앓아누워서
 어니아츄 醫員을 뵈이었다
 醫員은 如來같은 상을하고 關公의수염을 들이워서
 먼뱃적 어니나라 신선같은데
 새끼손톱 길게도은 손을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집드니
 문득물어 故郷이 어데냐한다
 平安道 定州라는 곧이라한즉
 그러면 아무개氏-르 아느냐한즉
 醫員은 빙긋이 우습을 띄고
 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쏘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이라한즉
 醫員은 또다시 넌잖이 웃고
 말없이 팔을잡어 맥을보는데

282) 리처드 로티는 지각과 언어의 현상학 속에서 오랜 시간 표상에 대한 서구의 강박증을 비판한다. 즉 그는 대상과 지각의 관계를 시각적 지각의 전통 속에서 찾으려는 서구의 강박증적인 전통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리처드 로티, 박지수 역, 『철학 그리고 자연의 거울』, 까치, 1998, pp. 418-419 참조) 본 논문에서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을 비판하는 것은 서양의 근대 주체의 공리가 이러한 시각적 지각 전통을 수용함으로써 정체성의 틀을 시각의 영역을 통해 구축했기 때문이다. (호미 바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위의 책, p. 110 참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故鄕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시 <故鄕>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 ‘나’는 ‘혼자 앓어누워’라고 하는 상황에서 ‘醫員’을 만난다. 그런데 ‘醫員’의 모습은 ‘如來’ 같기도 하고 ‘먼뱃적 어너나라 신선’같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때 ‘나’는 ‘아무개氏’를 아느냐고 의원에게 묻는다. ‘아무개’라고 하는 익명의 타자에 의해 의원과 나와 의 거리감은 ‘신선’같은 신비감에서 친숙함으로 거리감이 좁혀진다. ‘아무개’를 앓으로 인해 ‘나’는 ‘의원’을 ‘아버지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北關’이라는 타지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 나는 부재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나아가 부재하는 ‘고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백석의 시는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꼭 치료를 기다리는 무병이 끝끝내 있다’²⁸³⁾라고 하는 이상의 시와 비교할 때 ‘병’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상에게 ‘세상’이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식민화된 몸을 지시하는 고통스런 것이었다면 백석의 시에서 세계는 비록 ‘아버지’와 ‘고향’이 부재하는 식민지 현실일지라도 고통을 치료하는 ‘醫員’을 만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적인 성격으로 드러나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상과 백석이 식민공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식민담론을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학도로서 구조적으로 이해한 이상에게 식민공간은 식민담론을 형성한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상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각적 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체적 방법으로 그것을 부정하였으며 나아가 그에게 세계는 식민화된 몸의 절박한 상황을 지시하는 식민지적 타자성의 절망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백석에게 식민공간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감각적 쾌락과 근대 풍경으로 이해되었으나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각적 구성방식을 외면함으로써 식민공간을 부정하고, 나아가 식민 담론의 소외된 타자라고 하는 문화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연대기적인 근원성을 발굴함으로써 식민담론의 문화의 위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식민공간에서의 소외에서 벗어나 상상적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내적 타자성의 자아를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훼손된 세계의 회복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283) 이상의 시 <紙碑>.

시 <故郷>에서 ‘아무개’를 통해 ‘아버지’와 ‘고향’은 없지만, 고향을 대신하는 상상적 타자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상상적 타자를 통해 고향 상실의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고향을 대신해 고향의 기억을 향유하려는 것이다. 이때 시 <絶望>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통하여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다.

北關에 계집은 튼튼하다
北關에 계집은 아름답다
아름답고 튼튼한 계집은있어서
힌저고리에 붉은 길동을달어
검정치마에 벗어입은것은
나의 꼭하나 즐거운 꿈이었드니
어니아침 계집은
머리에 묶어온 동이를 이고
손에 어린것의 손을 끌고
가퍼러운 언덕길을
숨이차서 올라갔다
나는 한종일 서러웠다.
-시 <絶望> 전문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즉 이 시는 ‘北關의 계집’에 대한 ‘즐거운 꿈’과 ‘가퍼러운 언덕길’을 숨이차서 올라가는 ‘어니아침’의 현실의 모습으로 나누어진다. ‘北關의 계집’은 ‘꿈’과 ‘어니아침’의 현실 속에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서러운’ 모습 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시적 자아는 ‘꿈’과 ‘현실’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태도를 드러낸다. 즉 ‘北關의 계집’에 대한 ‘꿈’ 속에서 시적 자아는 ‘北關’의 건강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적 자아는 ‘가퍼러운 언덕길’을 올라가는 여인을 통해 ‘서러움’을 느낀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北關의 계집’이라고 하는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과 ‘서러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꿈’ 속에서 이러한 대상과의 동일시는 시적 자아의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즐거움을 향유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백석은 이 시에서 ‘꿈’ 속의 ‘北關의 계집’을 통해 상상적 타자를 불러냄으로써 이러한 상상적 타자와 결합함으로써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삶의 즐거움을 함께 향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에게 현실은 서러움을 극복할 수 없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식민지적 타자성의 소외된 현실 속에서 백석의 시는 식민 담론의 문화의 위치에서 타자의 소외된 위치인 현실을 보지 않고,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과 생명성을 의미하는 상상 공간을 응시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의 가시성을 부정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식민지적 타자성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생명성과 근원성을 회복하는 상상적 타자를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지탱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밝은 봄철날 따디기의 누긋하니 폭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두 많이나서 흥성 흥성 할것이다
어쩐지 이사람들과 친하니 싸단니고 싶은 밤이다

그렇것만 나는 하이얀 자리우에서 마른 팔뚝의
셋과란 피스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든 처녀가 시집을간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든 동무가 나를 벌인일을 생각한다

또 내가 아는 그 몸이성하고 돈도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술을먹으려 다닐것과
내손에는 新刊書 하나도 없는것과
그리고 그 「아서라 世上事」 라도 들을
류성기도 없는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내눈가를 내가슴가를
뜨겁게 하는것도 생각한다.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

이 시에서 가난한 시적 자아는 ‘가난’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마른 팔뚝’과 ‘가난한 아버지’를 가졌고 ‘오래 그려오든 처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며, ‘살뜰하든 동무’가 ‘나’를 배신했지만 ‘어쩐지 이사람들과 친하니 싸단니고 싶은 밤’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통해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내적 타자성의 자아는 순수하고 가난한 내면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을 해소하고 연대기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내눈가를 내가 습가를 뜨겁게 하는’ 삶의 진정성에 다가 가려는 것이다.

시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는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연대기적인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시인의 소명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것은 잠풍날씨가 너무나 좋은탓이고
가난한동무가 새구두를신고 지나간탓이고 언제나 똑같은 넥타이를매고
꿇은사람을 사랑하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것은 또 내 많지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탓이고
이렇게 젊은나이로 코밑수염도 길러보는탓이고 그리고 어너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진장에
꽃꽂이 짓인것은 맛도 있다는말이 작도 들려오는 뜻이다.

- 시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전문

이 시에서 그는 가난한 현실과 고향 상실 속에서도 세상에 대해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긍정한다. ‘가난한동무가 새구두를신고 지나간탓이고 언제나 똑같은 넥타이를매고 꿇은사람을 사랑하는 뜻이다’라고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침잠하지 않고 연대기적인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많지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탓이고 이렇게 젊은나이로 코밑수염도 길러보는’것과 ‘달재생선’의 ‘맛’을 상상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연대기적인 삶의 희망을 통해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된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피식민지인의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때 시 <許俊>은 상상적 타자를 통해 내적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체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훼손된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인의 소명임을 드러낸다.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마하고 살뜰한 빛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빛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세상에 나드리를 온것이다
쓸쓸한 나드리를 단기려 온것이다

눈물의 또 빛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구피고 뒤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짓걸하는 거리를 지날때든가
추운겨울밤 병들어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무릎우 어린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빼여진 억개쭉지에
당신에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높은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은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아래 바람결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마람 목이 긴 詩人은 안다
도스토이엠히스키」며 「쥬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옛한가락을 아끼고위하는 안해에겐 해진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낫설은 사람에게 수백량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그 말을

마람은 모든것을 다 잃어벌이고 낫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말을

그 멀은 눈물의 벳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詩人이 또 계산이 처럼 떠돈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독판을 당기는구려

-시<許俊>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인 ‘詩人’은 ‘許俊’이라고 하는 의원을 상상 속에서 불러낸다. 이때 ‘許俊’의 모습은 시 <故郷>에 나오는 ‘醫員’처럼 ‘신선’ 같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눈물’과 ‘벳살’의 나라에서 ‘이세상에 나드리를 온’ 사람으로서 그는 ‘병들어누운 가난한 동무’를 치료하며 자기가 떠난 ‘나라’의 ‘맑은 한울’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의 나라의 ‘풍속’과 ‘인정’,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이는 없지만, 다만 한사람 목이 긴 ‘詩人’이 있어서 ‘나드리’온 ‘허준’을 이해한다. 이때 시인은 ‘도스토이엠프’와 ‘쥬이쓰’같이 ‘가난한 낫설은 마람에게 수백량돈을 거저주는’ 인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마람’은 마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인 대신 집 재산과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람’의 시인과 ‘나들이’ 온 의원 ‘허준’은 모두 현실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다. 이 이방인의 삶을 통하여 시인은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포기하고,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시에서 ‘시인’은 ‘허준’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불러냄으로써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고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주체의 위치를 포기하고 ‘나들이’온 사람으로서 연대기적인 삶의 희망을 통해 고단하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며 ‘계산이 처럼 떠’도는 사람인 것이다. 즉 ‘시인’은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떠돌이 의원, ‘허준’처럼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세계의 삶의 생명성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백석의 시는 상상 공간을 통해 상상적 타자를 불러내고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시인으로서 고유한 소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²⁸⁴⁾ 이때 상상적 타자를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탈식민의

타자성으로서 식민지적 타자성의 계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식민의 타자성을 구현해나감으로써 그의 시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횡포 속에서 모더니즘의 개인성의 위기와 피식민지인의 문화의 위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삶의 근원적인 생명성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훼손된 자아와 세계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2) 제국 언어에 저항하는 ‘소리’의 발견

백석의 시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풍경과 감각적 쾌락에 저항하여 자연 서사를 통해 인간과 연대한 자연의 근원적인 생명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체의 풍경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근원적인 생명성을 회복함으로써 식민담론의 문화의 위치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시에 동물의 소리와 식물의 냄새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 <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접시 귀에 소 기름이나 소뿔등잔에 아즈까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
서는 겨울 밤 개 짖는 소리가 반가롭다.

이 무서운 밤을 아래 옷방성 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 개는
짖는다.

낮배 어니메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山넘어 국수집에 국수를 받
으려가는 사람이 있어도 개는 짖는다.

김치 가재미선 동침이가 유별히 맛나게 익는 밤

아배가 밤참 국수를 받으려가면 나는 큰마니의 돋보기를 쓰고 앉
어 개짖는 소리를 들은것이다.

-시 <개> 전문

이 시에서 인간의 삶을 지키는 ‘개’를 통해 시인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풍경 속에서도

284) 윤리적 개인주의로서 백석의 시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황직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황직,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연구-정인보, 함석헌, 백석, 윤동주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면면히 지속되는 연대기적인 삶을 이야기한다. ‘무서운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경계하는 ‘개’의 모습을 통해 시인은 삶의 위협 속에서도 지속되는 삶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때 ‘밤참국수’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연대기적인 삶의 지탱하는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데 백석의 시는 자연 서사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연대기적인 삶을 식민주체의 육성언어가 아닌 자연의 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식민지적 타자성의 식민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때 백석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동음일치(unisonance)²⁸⁵)로서 민족주의적·권위주의적 육성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物界理>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물밑- 이 세모래 닢함박은 콩조개만 일다
 모래장변-바다가 널어놓고 못믿없어 드나드는 명주필을
 짓구지 발뒤추으로 찢으면
 날과 씨는 모두 양금줄이되어
 짜랑 짜랑 울었다
 - 시 <物界理>전문

제국주의적 주체 풍경에 의해 소외된 자연의 ‘物界’속에서 시인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합리적 인식을 신봉하는 근대 주체에 의해 인간의 세계 밖으로 밀려난 자연의 언어를 의미한다. ‘물밑’과 ‘모래장변’에 묻힌 소리를 ‘物界’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인간에 의해 사물화 되었지만, ‘날과 씨 모두 양금줄이 되어 짜랑짜랑 울었다’라는 것은 ‘物界’로 밀려나 소외된 자연 일지라도 여전히 생명성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의 ‘소리’를 통해 들려주려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과 근대풍경 속에서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냄새와 맛과 같은 생의 감각과 결합하면서 백석 시에서 삶의 근원성을 환기하는 소재들이 된다.²⁸⁶)

285)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것은 식민담론의 국민적 주체를 연결하고 동시대적인 응집성을 지탱하는 청각적 상상력의 차이 없는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민담론의 권위주의적 목소리를 말한다. (호미 바바, 위의 책, pp. 194-195 참조)

286) “면바루 개가 짓고 어데서 물외 내음새 나는 밤”- 시 <夜雨小懷>중에서/ “당콩밥에 가지 냉국의 저녁을 먹고나서 바가지꽃 하이얀 지붕에 박각시 주락시 붕붕 날아오면-돌우래며 꿏중이 산얼이 들썩하니 울어댄다”- 시 <박각시 오는 저녁> 중에서./“거리에서는 모밀내가 낫다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친네의 내음새가튼 메밀내가 낫다”-시 <北新>중에서.

그러나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자연의 ‘소리’는 근원적 생명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자연과 연대한 연대기적인 삶이 파괴되는 경험 속에서 소멸될 운명에 처함으로써 시적 자아는 자연을 배반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시 <北方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아득한 냇날에 나는 떠났다
夫餘를 肅慎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익갈나무의 슬퍼하든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든 말도 잊지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달어나와 울든것도 잊지않았다.

나는 그때
아모 익이지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해스키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먹고 단샘
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
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냇날이 비롯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익이지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냇 한울로 땅으로-나의 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닳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렐으는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시 <北方에서>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자연을 배반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이때 자연을 배반한 모습은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와 같이 자연과의 연대적 질서가 깨지고 자연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는 행위로 나타난다. 자연과의 연대적 삶의 해체된 가운데 ‘胎盤’으로 돌아갈지라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렐으는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는 진술은 인간중심주의 속에서 자연을 배반함으로써 ‘胎盤’, 즉 고향을 상실한 인간의 고독한 삶을 드러낸다. 자연과의 연대적 질서가 해체된 상황 속에서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는 근대와 공모한 식민담론의 권위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근대 주체를 표방한 식민담론은 문화적 위치를 통해 권위주의적 자기 현존의 목소리로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 감각을 통해 주체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나아가 식민공간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언문일치의 근대어²⁸⁷⁾를 강조하고 제국의 언어로서 조선어를 금지, 일본어를 주장함으로써 조선인의 외형적 삶 뿐 아니라 면면히 내려오는 관습적인 삶의 골격마저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백석의 시가 제국언어의 주체 풍경에 저항하는 소리를 발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그는 오랜 시간 연대기적 기억 속에 축적된 몸의 경험을 통하여 제국언어의 자기 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제국언어의 주체 풍경에 의해 소외된 소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백석의 시를 ‘침묵의 언어’²⁸⁸⁾로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침묵의 언어로서 식민담

28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진은 이러한 근대어의 특징을 언문일치의 언어라고 설명한다.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위의 책, p. 90 참조)

288) 메를로 폰티의 ‘몸의 현상학’은 인간을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통해 구분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세계와 인간 의 관계를 몸의 감각적 체험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는 인식의 보편적 합리성 역시 우연적이고 불투명한 상호 몸성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폰티의 ‘살의 존재론’에 의하면 세계는 주체와 타자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살’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그는 몸의 현상학을 통해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제국주의적 주체 사유를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의미전달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넘어서 생명력을 가진 것이며, 이때 언어는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표상 방식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창조적인 발화를 의미하며 침묵의 목소리이며 이것은 시적발화와 연관된다. (모리스 메

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에 의해 소외된 ‘소리’를 발굴하는 것은 근대 주체의 공리를 모방한 식민담론의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거세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²⁸⁹⁾를 복원함으로써 문화의 위치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들의 삶의 근원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 <高麗墓子>는 폭력적인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 ‘묘’처럼 생명성을 상실한 피식민지인의 황폐한 삶을 드러낸다.

옛님이 지나간 발자취 그 누가 알아
속비인 古木 너는 아느냐
때때 너를 찾아와
쉬어가고 울다가는 저-執公이나 아는가?
(꺼우리무스 꺼우리무스 네 이름만이 남었다)

비 바람 모질고
흘러간 歲月의 물길 거침어위슴을 알네라
觸들이 코 골든
떡집(墓)마저 살아젓스니
무엇이 이뒤의 빈터를 마르리?
(꺼우리무스 꺼우리무스 네 이름만이 남었다)

分明 님 이곳에서
저물도록 써 너호시다
그리다 이곳 변죽을 億萬年 두고 직히려
자랑스러운 歷史의 旗幟 꺾어두고
스스로 떡집속에 몸을 숨기신지 그 몇해?
(꺼우리무스 꺼우리무스 네 이름만이 남었다)

- 시 <高麗墓子> 전문

를로 풍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위의 책, pp. 12-27 참조)
289) 스피박은 「하위 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글(G.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Hemel Hempstead: Harvest Wheatsheaf, 1983)에서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삶을 대변하는 언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에 의하면 주체와 타자의 정체성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담론을 획득한 제국 언어의 풍경 속에서 하위주체, 즉 소외된 타자의 위치에 있는 피식민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발화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가 다름 아닌 제국의 언어이기 때문이며 서구중심사유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옛님의 발자취’와 같은 ‘古木’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조상의 무덤을 바라본다. 이때 ‘꺼우리무스’란 ‘高麗墓子’의 일본어 발음이다. 제국언어가 주체언어가 된 상황에서 일본어의 소리를 드러낸 것은 제국언어가 자기현존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거세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墓’로서 인식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주체에 의해 근원적 생명성을 상실한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億萬年 두고 직히려 자랑스러운 歷史의 旗幟 폼어두고 스스로 띄집속에 몸을 숨기신’ 것이라 여기며 흔적만 남은 무덤 속에 가려진 옛 사람의 생명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때 ‘꺼우리무스 꺼우리무스 네 이름만이 남었다’라고 하는 반복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언어 풍경에 의해 생명성이 소멸된 피식민지인의 거세된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피식민지인의 황폐한 삶을 드러낸다.

나아가 그는 자기현존적인 제국 언어의 풍경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의 이분법을 넘어 시인의 몸의 경험과 기억 속에 간직된 소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소리의 발견은 자연의 소리를 발굴하는 것 외에도 제국언어의 주변부로 밀려난 ‘넷투’의 말씨, 즉 방언을 발굴하는 것이었다.²⁹⁰⁾ 이때 시 <夕陽>은 ‘北關’의 말을 통해 제국언어의 자기현존적인 목소리에 가려진 ‘소리’를 발굴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근원적인 얼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거리는 장날이다
 장날거리에 녁감들이 지나간다
 녁감들은
 말상을하였다 범상을하였다 쪽재비상을하였다
 개발코를하였다 안장코를하였다 질병코를하였다
 그코에 모두 학실을 썼다
 돌체뚫보기다 대모체뚫보기다 로이도뚫보기다
 녁감들은 유리창같은눈을 번득걸이며
 투박한 北關말을 떠들어대며
 쇠리쇠리한 저녁해속에
 사나운 짐생들같이 살아졌다.
 -시 <夕陽> 전문

290) 왜냐하면 방언이란 동일한 인접지역성과 친밀한 관계성에 의해 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때 방언의 위치는 언문일치의 근대어에 의해 주변부에서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장날 거리에서 만난 ‘녕감들’의 얼굴이 ‘말상, 범상, 쪽재비상, 개발코, 안장코, 질병코’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얼굴표정을 나타내는 방언의 어휘가 풍부한 까닭이다. 게다가 ‘그코’에 모두 ‘학실-안경’을 썼는데, 그 학실조차 모두 제 각각인 것을 통해 근대어와 지방어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근대어 못지않게 방언의 어휘도 풍부함을 드러냄으로써 근대어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얼굴들, 낯선 얼굴들이 모두 ‘투박한 北關말’을 씀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쇠리쇠리한 저녁해’라고 하는 식민지의 기울어가는 역사 속에서 ‘사나운 증생들’처럼 살아가는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삶이 ‘北關말’을 통해 연대기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민 주체의 자기 현존적인 목소리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피식민지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피식민지인의 근원적인 삶의 얼굴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발굴을 통하여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의 고독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유대를 통해 근원성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시 <燥塘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支那나라사람들과 가치 목욕을 한다
무슨 殷이며 商이며 越이며하는 나라사람드러이 후손들과 가치
한물통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서로 나라가 달은 사람인데
다들 쪽발가벗고 가치 물에 몸을 녹히고 있는것은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각금 틀리고 먹고입는것도 모
도 달은데
이렇게 발가들벗고 한물에 몸을 씻는것은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이 댤나라사람들이 모두 니마들이 번번하니 뵈고 눈은 킁킁하니
호리고
그리고 길쭉한 다리에 모두 민숭민숭 하니 다리털이 없는것이
이것이 나는 왜 작고 슬퍼지는 것일까
그런데 저기 나무판장에 반쯤 나가누어서

나주벚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듯한 목이긴 사람은
 陶然明은 저러한 사람이었을것이고
 또 여기 더운물에 뛰어들며
 무슨 물세처럼 악악 소리를 질르는 뻘뻘 파리한 사람은
 楊子라는 사람은 아모래도 이와같았을것만 같다
 나는 시방 넷날 썸 이라는 나라나 衛 라는 나라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맞나는것만 같다
 이리하여 어쩐지 내마음은 갑자기 반가워지나
 그러나 나는 조금 무서웁고 외로워진다
 그런데 참으로 그 殷이며 商 이며 越이며 衛 며 썸이며하는나라사람
 들의 이 후손들은
 얼마나 마음이 한가하고 게으른가
 더운물에 몸을 불키거나 때를 밀거나 하는것도 잊어벌이고
 제 배꼽을 들여다 보거나 남의 낮을 쳐다 보거나 하는것인데
 이러면서 그 무슨 제비의 춤이라는 燕巢湯이 맛도있는것과
 또 어늬바루 새악씨가 곱기도한것 같은것을 생각하는것일것인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人生이라
 든가 하는것을 정말 사랑할줄아는
 그 오래고 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좋고 우렐어진다
 그러나 나라가 서로 달은 사람들이
 글세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쪽발가벗고 있는것은
 어쩐지 조금 우수웁기도하다
 -시 <燥塘에서>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支那 나라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 이때 그는 ‘서로 나라
 가 달은 사람인데 다들 쪽발가벗고 가치 물에 몸을 녹히고 있는것’을 바라보며 ‘陶然
 明’과 ‘楊子’라는 사람을 상상한다. ‘나라가 서로 달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殷이며 商
 이며 越이며 衛며 썸이며하는나라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근
 원적인 인간애를 통해 이 차이를 상쇄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쪽발가벗
 은’ 몸을 통해 그는 ‘민족’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피식민지인들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
 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모습이 ‘쓸쓸한 일’이면서 ‘어쩐지 조금 우수웁기도’하다는 양가
 적 심정을 드러낸다. 희비가 교차되는 이러한 양가적인 심정을 통하여 그는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헤게모니에 의해 근원적인 인간애를 망각한 식민 주체의 존재방식²⁹¹⁾을 조소하였던 것이다.

이때 백석의 시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국언어에 의해 호명된 자아의 존재방식을 부정하고 근원적인 인간애를 통해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도 삶의 근원적인 연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네 집 현 살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채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디두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타를 하고 굴기고 하면서
마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 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
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느
끼는 것이었다.

291) 일본의 식민담론은 문화의 차이를 통해 민족적 차이를 소거하고 계몽의 기획이 담지하고 있었던 사해동포주의와 인류애, 자유애를 신화화함으로써 보편성으로서 아시아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들어 공동운명체로서의 아시아를 발명해내고, 아시아적인 인류애로서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다. 이때 백석의 시는 대동아공영권의 논리, 즉 식민담론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유린된 ‘인류애’를 부정하고 삶의 근원성으로서 ‘인간애’를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
 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
 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
 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 쫓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시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전문

이 시에서 시적자아는 피식민지인의 소외의 고독을 ‘어는 木手네 집 현 살을 간 한
 방’에서 쓸쓸히 견디고 있다. 비록 그는 가족과 모두 동떨어져 지내는 고독한 처지이
 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함으로써
 연대에 대한 희망을 통해 고독을 감내하는 것이다. 혼자 빈방에 누워 ‘소처럼 새김질’
 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적 화자의 내면에 아로새겨진 추억 속에서 그는 ‘새김
 질’을 하는 ‘소’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파시즘이라고 하
 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폭력 속에서 연대적 삶의 기억을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지켜
 나가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자성의 자아를 고수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더 크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삶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
 다. 현실의 ‘슬픔’과 자아의 ‘어리석음’을 초월하여 근원적인 삶을 성찰하려는 타자성
 의 자아를 통해 그의 시는 파시즘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굴하지 않고 ‘눈’을
 맞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성찰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

리지 않았던 것이다.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폭력 속에서 식민지적 타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주체 욕망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성찰적인 태도를 통해 현실의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던 타자성의 자아를 의미한다. 백석의 시를 침묵의 언어로서 인식하는 것은 그의 시가 제국주의적 주체의 폭력 속에서도 타자성의 자아를 통해 비폭력의 저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근대의 헤게모니에 의해 남과 북이 분단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백석의 시는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모더니즘과는 무관한 민속성과 토속성의 특질을 반영하면서 방언의 문학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백석 시를 모더니즘 문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시가 모더니즘의 개인성의 위기 속에서 타자성의 자아를 통하여 주체의 동일성 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침묵의 언어를 통하여 자연의 소리를 발굴하고 피식민지인의 거세된 목소리를 복원하였으며 제국 언어의 풍경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방언을 발굴함으로써 피식민지인의 얼굴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그는 파시즘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포섭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를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삶에 대한 성찰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탈식민의 저항으로서 상상적 타자성을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를 1930년대 모더니즘의 타자성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적 의의를 해명하였다. 이때 탈식민의 가능성으로서 상상적 타자성을 살피는 것은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신·자연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타자의 범주에는 동양·비서구적 타자·외국인·동성애자·여성은 물론 죽음·무의식·광기를 비롯하여 서구 동일성 사유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인식이 포함된다. 그런데 식민담론에서는 지배의 정당성을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이분법을 통해 구축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런데 제국주의는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 즉 근대주체의 논리를 이용해 식민담론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담론은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를 통해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관여하고 문화적 차이를 통해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식민담론은 타자의 범주를 제한하였는데, 이때 일본의 식민담론에서 이러한 타자는 일본·여성·문화인·근대의 주체에 반대되는 조선·비여성·야만인·비근대를 지칭하는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타자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식민지적 타자화의 문제를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탈식민의 관점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에 예속되지 않는 타자성이란 상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민공간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타자성이란 식민담론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탈식민의 타자성으로서 상상적 타자성을 연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전통적인 문학과는 전혀 다른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망 속에서 근대문학에 관한 천착을 의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 의해 수입된 모더니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더니즘의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모더니즘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낭만주의의 미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기원으로서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욕망 속에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모더니즘의 이러한 특성은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공간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문명의 논리를 이용해 문화의 위치에서 근대적 주체로서 자신을 표상하고 식민담론을 구축함으로써 식민지 영토확장과 같은 공간욕망과 식민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기원으로서 모더니즘 문학은 제국주의의 공간 욕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탈식민적 관점에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타자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타자화와 제국주의와 연관된 모더니즘의 근대적 공간성의 문제를 비판하고, 탈식민의 관점에서 모더니즘 문학의 상상적 타자성을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역사적 모더니즘과 미적 모더니즘이라는 모더니즘 연구에 대한 이원적인 방법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현실도피적이고 형식주의 미학이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더니즘을 역사적 기원을 통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적 의의를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성에 관한 천착이 식민지 경험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임을 추적하고 식민지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근대성 중심의 문학사 연구 방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적 타자화와 제국언어의 풍경에서 벗어나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언어관, 상상적 타자의 발견을 상상적 타자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명하였다.

이때 **김기림**은 시 뿐만 아니라, 시론과 수필, 문학비평 등 해박한 문학적 지식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식민지적 타자화라는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근대문학을 통해 주체성립을 염원하였다. 나아가 그는 탈식민의 거리감각을 통하여 식민지적 근대의 시·공간에서 소외된 타자의 위치에 예속되지 않고 식민지적 공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를 조망하였다. 시집 『태양의 풍속』에서 이러한 주체 성립의 의지는 식민지 현실의 ‘어둠’과 상반된 ‘태양’의 탄생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문명감수의 의지로서 ‘길’의 여정을 통해 세계 문명의 풍경을 조망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강’ 중심의 문명발달사가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제국주의의 문명 논리임을 인식하고 ‘바다’라고 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통해 근대를 조망함으로써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계에 확산되는 파시즘 전쟁을 목도하고 그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적 근대에서 벗어나 시간의 전망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에 의해 황폐화된 자아와 세계를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를 염원하였다.

그런데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성립을 염원하는 과정에서 그는 근대 문학적 주체로서 자신을 성립시키기 위해 근대문학적 타자로서, 전대의 셉티멘탈 로맨티시즘 문학과 편내용주의 문학을 부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문학이 미학적 범주로서 체계화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현실과 미학을 교환 가능한 범주로서 인식했던 김기림이 스스로를 근대문학의 주체로서 성립시키기 위해 전시대의 문학적 타자를 부정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문학의 대표적 기수였던 김기림에 의해 행해진 문학사 기술의 문제점은 모더니즘 뿐 아니라, 이후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김기림이 행했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점을 한국문학사에 남긴다. 그는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근대문학적 주체로서 성립시키기 위해 이분법적인 사고를 체계화하였는데 시대성에 주목해 전근대적인 문학(과거의 시)과 근대적인 문학(새로운 시)을 구분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근대성과 관련한 문학사 연구방법을 비판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학사 기술에서 근대문학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와 대립되는 문학적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근대문학이라는 주체로 표상해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 식민담론에 의해 유포된 근대에 관한 천착은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학사 연구에서 근대성에 관한 문제점을 남겼던 것이다. 이때 ‘새것 콤플렉스’로 대표되는 근대성에 관한 문제점을 김기림의 문학이 해석하게도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도시와 소비생활면에서 「쇼윈도」처럼 단편적으로 진열되었을 뿐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 출구를 찾아 고민했던 김기림은 탈식민의 거리감각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시집 『기상도』와 『바다와 나비』에는 이러한 탈식민의 거리감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시집 『기상도』에서 ‘기상도’라는 기후측량을 빌어, 세계사의 변동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기후를 조망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과시즘이라는 ‘颱風’을 소개하며,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나비’의 죽음을 통해 과시즘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고 식민지적 근대에 의해 황폐화된 자아와 세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였다. 그런

데 이때 김기림이 주장한 ‘민족’의 개념은 혈연중심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세계주의와 결합한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기림이 염원한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적 타자는 식민지 경험 속에서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민족의 용법 속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김기림이 제시한 ‘민족’은 식민지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탈식민의 타자성을 지향한 것으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시는 식민지적 타자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 성립을 염원하는 과정에서 사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국주의적 주체 사유를 비판하고 식민지적 근대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성립을 염원하는 김기림의 시는 ‘사변의 언어’로서 한계와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의 타자성으로 김기림의 시는 탈식민의 거리감과 사변의 언어, 상상적 타자로서 ‘민족’의 발견을 통해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에 천착했던 당대의 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식민의 타자성을 통해 모더니즘을 구현해나갔던 것이다.

이상은 식민담론을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학도로서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식민담론이 근대 주체의 정체성과 문명의 논리를 통해 문화의 위치에서 주체로 군림하려는 타자의 담론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에 의해 타자화된 피식민지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적 몸의 지형도를 발견하고 ‘탈신’ 욕망을 통해 식민공간에서 ‘탈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식민지인은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식민담론은 정체성 논리를 이용해 정체성에 관한 상상을 발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합리적 주체로서 표상했기 때문이다. 이상이 ‘거울’을 그의 시에 발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은 문학적 자의식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민화된 몸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벗어나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식민지적 타자의 소외의 위치에서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파시즘의 전쟁 욕망 속에서 소외된 죽음 욕망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죽음을 통해 소멸에 가까운 자아 부정으로 나아간 것은 이 때문이다. 식민담론이 타자의 담론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은 그에게 불운한 조감도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의 시 <鳥瞰圖> 연작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낸다. 즉 그는 식민화된 몸의 상황에서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 성적 욕망과 공격성-을 부정하기 위해 불화와 적의의 내면화된 몸으로서 자아를 부정해왔던 것이다. 그가 ‘형해(形骸)’에 가까운 자아 부정으로 나아간 것은 이 때문이다. 시 <烏瞰圖>에서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 의해 작동된 공포의 상황이 출구 없는 골목의 질주 상황처럼 동일한 상황임을 드러냄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가진 과시즘의 전쟁 욕망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죽음’이 ‘천사’로 인식된 것은 과시즘의 전쟁 욕망에서 벗어나 죽음을 욕망함으로써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에 대한 욕망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생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는 <종생기>에 이르는 문학적 여정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염원하였다.

그러나 식민담론은 봉건제도를 모방하고 자본주의와 공모하여 자아를 위협하는 날조된 표정, 즉 위조된 모습으로 그를 위협하는 ‘공포’의 ‘번신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식민담론은 ‘혈청’과 ‘문벌’의 교환- 시 <문벌門閥>-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식민질서와 ‘정조’와 ‘화폐’의 교환- 시 <백주白晝>-을 미끼로 ‘원가상환’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쾌락욕망을 통해 자아를 위협하였다.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실험실의 ‘실험동물’-시 <禁制>-처럼 인식했던 것은 합리적 주체를 가장한 식민담론의 비정상성과 야만성을 역으로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척각(隻脚)’과 ‘절름발이’의 존재방식과 ‘여왕봉’과 ‘웅봉(雄蜂)’의 존재방식을 통해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하고 반복과 모방을 통해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정형화된 정체성을 교란시켰다. 즉 ‘隻脚-외다리’와 ‘절름발이’의 소외의 존재방식을 모방함으로써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의 시선 속에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식민지인의 소외된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주체를 표상하는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폭로하였던 것이다. 이어 ‘여왕봉’과 ‘웅봉(雄蜂)’의 존재방식을 통해 그는 성적 은유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매춘부와 같은 모습으로 욕망하는 식민담론의 비정상성을 비판하고 성적 환유와 치환을 통하여 식민담론의 성적 은유를 교란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에 빗댄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의 윤리적 책임을 정당화하였다. “일본과 청 사이에 끼인 조선은 득의양양하게도 맘껏 욕구를 채우고도 지칠 줄 모르는 지나(支那) 남자에게도 아양을 떠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식민사관은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이상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매춘’의 소재와 ‘불구자’의 형상은 식민담론의 정형화된 성적 은유와 인종주의적 정형화 담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이상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들어 노동을 통해 피식민지인을 착취하고 식민지 수탈을 합법화하는 식민담론을 부정하기 위해, 식민지 지식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무능력과 비겁을 위장함으로써 자아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상의 시를 ‘차이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모방과 반복을 통해 식민담론의 동일화의 원리를 퇴행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시적 언술을 통해 식민담론의 정체성을 교란시켰던 것이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창작한 이상시의 이중언어의 문체와 어휘를 의도적으로 교란시켰던 비동일화-鳥瞰圖’를 ‘鳥瞰圖’로 표기한 것-의 언술은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담론 교란시키는 저항의 언어로서 ‘차이의 언어’를 의미한다.

그는 스스로를 야만인과 광인의 형상으로 표상함으로써 스스로를 주체로 내세우는 제국주의 담론을 조소하고, 제국주의의 내면화 과정 속에서 발명된 국민이라는 표어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나갔다. 천재에 가까운 문학적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통해 스스로를 비극적으로 구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종생기>에 이르는 이러한 주체 부정의 과정은 이성의 조화로운 세계를 붕괴시키고 이성에 의한 구상력의 무력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송고미를 체험케 한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탈경계의 영역을 드러냄으로써 송고미의 지점에서 이러한 체험은 합리적인 세계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해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죽음 욕망을 통해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이상의 시는 근대 주체라고 하는 합리성을 표방하는 식민담론의 시. 공간에서 벗어나 탈경계의 영역을 드러냄으로써 송고미를 체험케 하였던 것이다.

백석은 제국주의적 주체의 근대 풍경과 쾌락적인 근대 감각에 저항하여 탈식민의 서사를 통해 식민담론의 근대풍경에서 소외된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지향하였다. 이때 근대주체와 공모한 식민담론은 근대와 비근대, 중심과 주변, 새로운 것과 낙후된 것,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이분법을 강조하고 신감각을 내세워 근대풍경과 근대감각에 관한 천착을 초래하였다. 즉 식민담론은 근대 풍경을 통하여 전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소외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석의 시는 감각적인 근대풍경에서 벗어나 자연서사를 통하여 자연과 연대한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하였다.

이때 ‘청춘’과 ‘고독’, ‘연애’와 같은 감각적인 표상들을 통해 에로·그로 취향과 같은 근대 감각이 유행되었는데, 백석은 이러한 근대의 감각적 풍경을 부정하고 고독이나 슬픔의 근대적 감각과는 다른 인간의 근원적 정서를 지향하였다. 그의 시에 고독하지 않은 ‘외로움’의 정서와 어둡지 않은 ‘밤’의 서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그는 공포스럽지 않은 ‘무서움’과 슬프지 않은 ‘눈물’의 정서를 통해 ‘공포’와 ‘슬픔’의 감각적 근대 풍경에서 벗어나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석의 시는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상처럼 차이를 드러내는 시적 언술을 통해 세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연서사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회복함으로써 세계를 치유해나가고자 하였다. 시 <古夜>에서 ‘내빌눈’을 받아 ‘약눈’으로 ‘고별’과 ‘배앓이’를 치유하는 것은 근대 체험을 ‘공포’의 기억으로 수용했던 이상의 ‘병’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식민지적 타자화의 소외의 위치에서 시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존재하는 유년공간을 통하여 의미공간을 구축하고 나아가 제국주의적 주체 풍경에 편입되지 않는 변방체험을 통해 경험공간을 발견하였다. 시집 『南行詩抄』, 『咸州詩抄』, 『西行詩抄』의 여행시를 통하여 그는 제국주의적 주체 풍경에서 벗어나 ‘변방’을 발견하고 경험적 서사를 결합함으로써 식민담론의 식민지적 지형도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이 부재하는 변방의 삶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행복을 경험하였다. 이때 그는 삶의 일상성과 연대기적인 삶에서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유년공간과 경험공간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을 통해 삶의 연대기적인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제국주의적 인간형에 편입되지 않는 상상적 타자를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상적 타자를 통해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하고 과시즘의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성찰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시인으로서 소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백석의 시는 탈식민의 서사와 침묵의 언어를 통해 식민담론의 자기현존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연대기적인 삶의 근원성을 지향하고 피식민지의 소외된 위치에서 거세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하였다. 이때 백석의 시를 메를로퐁티의 침묵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주체와 타자를 양분하는 제국의 언어에 대해 그의 시가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넘어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복원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침묵의 언어로서 백석의 시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 자기현존의 목소리인 식민담론의 육성언어의 권위를 부정하고, 언문일치의 근대어와 일본어의 제국언어의 풍경 속에서

방언과 같이 소외된 피식민지인의 목소리를 발굴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에서 벗어나 삶의 생명성을 회복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타자성의 자아를 통해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석의 시는 민족이라는 근대의 헤게모니에 의해 남과 북이 분단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모더니즘과는 무관한 민속성과 토속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방언의 문학으로 이해되었다. 백석 시를 모더니즘 문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시가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고 타자성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에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국주의 팽창과 관련하여 심각한 자아의 위기를 경험한 1930년대 김기림, 이상, 백석의 세 시인을 중심으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상상적 타자성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은 탈식민 공간의 가능성과 상상적 타자의 발견, 그리고 모더니즘의 언어관을 통해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적 의의를 모색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국주의적 주체의 횡포 속에서 제국주의적 주체 욕망을 부정하고 상상적 타자성의 발견한 김기림, 이상, 백석의 시인들을 통하여 한국모더니즘시사에서 1930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전망을 통해 식민지 경험 후에도 계속되는 문화제국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주체의 횡포 속에서도 예속되지 않는 타자성의 발견을 통하여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기림, 『김기림전집』, 심설당, 1988.
이승훈 편, 『이상시전집』, 문학사상사, 1993.
송준 편, 『백석시전집』, 학영사, 1995.

2. 국내논문

- 김동근, 「1930년대 시의 담론체계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6.
김명인, 「1930년대 시의 구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5.
김병호, 「한국근대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1.
김란희, 「백석 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김지나, 「백석 시의 원전비평적 연구」, 서울여대 박사논문, 2005.
김지녀, 「이상 시의 아이러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신정, 「정지용 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김승희, 「이상시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1.
김용희, 「정지용 시의 어법과 이미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김유중, 「김기림의 과학적 시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김윤태, 「한국 모더니즘 시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김윤정, 「이상 시에 나타난 탈근대적 사유」, 서울대 석사 논문, 1999.
김윤정, 「김기림 문학의 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김은자, 「한국 현대시의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86.
김현호, 「이상시 연구-이상의 해체의식과 그의 시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2.
김창수,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집 이미지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1.
김창원,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아이러니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2.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의 글쓰기 방법연구-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2.
김행숙,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고명수,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세계인식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4.
고형진, 「1920-30년대 서사지형성과 시적 구조」, 고려대 박사논문, 1991.
나명순, 「백석 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류경동,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감각 지향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 문홍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분열양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1.
- 민병기,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심상체계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1.
- 박민영, 「1930년대 시의 상상력 연구」, 한림대 박사논문, 2004.
- 박순원, 「김기림 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 박현수, 「이상 시의 수사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박의상, 「만해시와 이상시의 아이러니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85.
- 박은미,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모티프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 박대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1.
- 배개화, 「1930년대 후반 전통 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서지영, 「한국 현대시의 산문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8.
- 서지라, 「김기림 시론 연구」, 대구 카톨릭대 석사논문, 2001.
- 심재희, 「1930년대 후반기 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7.
- 엄성원,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6.
- 엄성원,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비유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2.
- 유시욱, 「이상과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아실현의 문제」, 영남대 석사논문, 1978.
- 오동규, 「이상 시의 공간의식」, 중앙대 석사논문, 1994.
- 우정권, 「이상의 글쓰기 양상」,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염 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 이경수, 「한국 현대시의 반복 기법과 언술구조」, 고려대 박사 논문, 2002.
- 이상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8.
- 이성모, 「이상문학의 존재론적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7.
- 이윤경, 「이상 시의 변형체계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3.
- 이원도, 「이상 시의 타자적 자의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04.
- 이황직,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헌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1.
- 임영선, 「김기림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4.
- 장정렬, 「백석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1.
- 전미향, 「김기림 시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지연호, 「김기림 시론 연구」, 성균관대 석사 논문, 2003.
- 정경혜, 「김기림 시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정운선, 「한국 모더니즘 시 화자의 시각체계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4.
-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2.
- 최두석, 「한국 현대 리얼리즘 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주체의 욕망체계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최정례, 「백석 시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 최미숙, 「한국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학박사논문, 1997.
- 한경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내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2.
- 한세정, 「이상 시의 어법적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5.
- 황종연, 「한국 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3. 국내단행본

- 고 은, 『이상평전』, 민음사, 1974.
- 고명수, 『한국모더니즘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0.
- 고명철, 『비평의 잉겔볼』, 새미, 2002.
- 고미숙, 『나비와 천사』, 휴머니스트, 2006.
- 고형진, 『현대시의 서사지향성과 미적구조』, 시와시학사, 2003.
- 김명인, 『근대화 과정과 시적 대응, 시어의 풍경』,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 김윤식, 『이상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 김윤식, 『이중어 글쓰기와 역사성,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용직, 『한국근대문학론고』, 서울대출판부, 1985.
- 김용직,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4.
-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82.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의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8.
- 김헌선, 『한국현대시인연구』, 신아, 1988.
-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 비평사, 1988.
- 김주현, 『이상소설연구』, 소명출판, 1999.
- 김자야, 『내 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 권영민,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숲, 1999.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박혜숙, 『백석』,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박대일,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방민호,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모더니즘』, 신구문화사, 1996.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월인, 2003.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이선영,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이광호, 『미적근대성과 한국문화사』, 민음사, 2001.
 이승원,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이동순, 『백석시 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7.
 이승훈, 『이상 시연구』, 고려원, 1987.
 이승훈, 『모더니즘의 비판적 수용』, 작가, 2000.
 이경훈,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이은봉, 『한국현대시의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1993.
 임종국, 『이상전집』, 태성사, 1956.
 서인식, 차승기, 정종현 엮음, 『서인식 전집』 1. 역락, 2000.
 송 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3.
 신범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
 신주철, 『이상 시와 김수영 시의 아이러니』, 박이정, 2003.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정효구, 『백석』, 문학세계사, 1988.
 정순진, 『김기림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1.
 정순진, 『김기림』, 새미, 1999.
 최미숙, 『한국 모더니즘 시의 글쓰기 방식과 시 해석』, 소명출판, 2000.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박종철 출판사, 2004.
 한경희, 『한국현대시의 내면화 경향』, 역락, 2005.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83.

4. 학술지 및 잡지

고봉준, 「모더니즘의 초극과 동양정신」, 『한국시학연구』 13호, 2005, 8.
 고석규, 「반어에 대하여, 이상의 시와 반어적 의미」, 『문학사상』, 1997, 10.

- 구모룡, 「식민성 근대주의의 한 양상」, 『문학수첩』, 2005년 여름호.
- 구연식, 「다다이즘과 이상문학」, 『동아논총』 4, 1968. 4.
- 구인환, 「기법의 부정과 혁신」, 『국문학논문선』, 민중서관, 1977.
- 김영미, 「1910년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준비론과 양가성」, 『한국어문학』 제 86호, 2004, 12.
- 김상욱, 「이상의 날개 연구」,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9.
- 김상태, 「부정의 미학-이상의 문체론」, 『문학사상』, 1974, 4.
- 김시태, 「기교주의 논쟁고」, 『논문집』 8집, 제주대, 1976.
- 김열규, 「현대의 언어적 구제와 이상문학」, 『지성』, 1972, 2.
- 김인환, 「반어의 개념」, 『세계의 문학』 22호, 1981, 겨울.
- 김종길, 「무의미의 의미」, 『문학사상』, 1974, 4.
- 김종은, 「이상의 理想과 異常」, 『문학사상』, 1973, 7.
- 김준오, 「자아와 시간의식에 관한 소고」, 『어문학』, 33, 1975.
- 김 현, 「구체시로서의 이상시」, 『공간』, 1969, 1.
- 박상천, 「기상도 연구」, 『한국학논집』 6,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 박현수, 「이상 시학과 전원수첩의 수사학」, 『한국학보』 103, 2001, 6.
- 배호남, 「김기림의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16호, 2006, 8.
- 서영채, 「이상 소설의 수사학과 한국문학의 근대성」,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 서준섭, 「한국 근대 시인과 탈식민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제 13호, 한국시학회, 2005, 8.
- 서준섭, 「한국 현대문예비평사에 있어서의 시비평 이론 체계화 작업의 한 양상」, 『비교문학 및 비교문화』 제 5집, 한국비교문학회, 1980.
- 신주철, 「이상 시에 드러난 운명의 아이러니」, 『한국어문학연구』 16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2,9.
- 오형엽, 「미적 근대성, 이미지즘, 감각의 사용법」, 『파라 21』 제 6호, 2004년 여름호.
- 유종호, 「한국의 페시미즘」, 『현대문학』, 1961, 9월호.
- 이규동,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 『월간조선』, 1981. 6.
- 이기성,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텔지어」, 민족문학사학회 저, 『민족문학사연구』 22호, 2003.
- 이승훈, 「이상시의 기법분석」, 『한국학논집』 13, 한양대 한국학 연구소, 1988, 2.
- 이재복, 「이상 시에 나타난 다다이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 18, 2000, 12.

- 이창배, 「모더니스트로서 이상」, 『심상』 18, 1985.
- 장석원, 「이상 시의 과학과 多聲性」, 『이상리뷰』, 2003 하반기.
- 정귀영, 「이상문학의 초의식심리학」, 『현대문학』, 1973, 7-9월호.
- 정여울, 「근대 계몽기 ‘민족·국가’ 개념의 양가적 수사학」, 『민족담론과 한국근대문학』, 한국근대문학회 제 8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8.
- 정혜경, 「감각의 검열과 감각의 권력화-감각의 미궁」, 『과라 21』 제 6호, 2004 여름호.
- 조두영, 「이상 초기 작품의 정신분석」, 『신경정신의학』, 1977, 2.
- 이규동, 「이상의 정신세계와 작품」, 『월간조선』, 1981. 6.
- 조두영, 「이상의 인간사와 정신분석」, 『문학사상』, 1986, 11.
- 최재서, 「現代詩의 生理k 性格」, 『文學k 知性』, 인문사, 1974.
- 최정례, 「1930년대 시어, 한국어와 자연어의 구도」, 『한국시학연구』 제 13호, 한국시학회, 2005, 8.
- 최현주, 「신채호의 탈식민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7권 2003. 9.
- 추은희, 「쉬르레알리즘에 비쳐본 상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73, 7.
- 추은희, 「이상과 太宰治 문학의 비교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3. 9.
- 하정일,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과 이식논리」, 『한민족어문학』 제42호, 2003, 6.
-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한민족어문학』 제 43호, 2003, 12.
- 한지현, 「반어법의 성격과 작가의 서선」, 『국어국문학』 64, 1974, 9.
- 황도경, 「존재의 이중성과 문체의 이중성-이상소설의 문체」, 『현대소설연구』, 1994, 8.

5. 이론서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근대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윤리 21』. 사회평론, 2001.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 고부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 김용운, 『人間學으로서의 數學』, 보성문화사, 1988.
- 김상봉, 『도덕 교육의 파시즘』 도서출판 길, 2005.
- 김상환·홍준기,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2.

니켈 노드, 이택면 역, 『돈의 사회학』, 일신사, 1998.
 니코스 스탠고스 편, 성완경, 김안례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다니엘 벨, 오세철 역,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전망사, 1980.
 D. Harvey, 구동희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5.
 로제 카이와, 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리처니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리처디 브로디 저, 백한울 역, 『마인드 바이러스』, 동연, 2000.
 마크 릴라, 서유경 역, 『분별없는 열정』, 미토, 2002.
 모리스 블랑쇼,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모리스메를로 폰티, 김화자 역,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05.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베르트랑 오질비, 김석 역, 『라캉, 주체 개념의 형성』, 동문선 현대신서, 2002.
 볼프강벨슈, 심혜련 역, 『미학의 경계를 넘어』, 향연, 2005.
 스티븐 킨,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4.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수지 개블릭, 김유 역, 『모더니즘은 실패했는가』, 현대미학사, 1999.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스티븐 모튼 저, 이윤경 역, 『스피박넘기』, 엘피, 2005.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노명우 편, 『계몽의 변증법』, 살림, 2005.
 오오누키에미코, 『사쿠라가 지다』, 모멘토, 2004.
 유진 런,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 지성사, 2005.
 이선영 편,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6.
 이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3.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사, 1997.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자크 데리다 저,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G.H.R. 파킨슨 편, 김대웅 역, 『루카치 美學思想』, 문예출판사, 1999.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이삼출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장 뢰 낭시, 김예령 역, 『숭고에 대하여』, 문학과 지성사, 2005.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줌 톰린스, 강대인 역, 『문화제국주의』, 나남출판사, 1999.
 진중권, 『미학오딧세이』, 휴머니스트, 2003.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최종렬, 『타자들』, 백의, 1999.
- C. 카스토리아디스, 양운덕 역, 『사회의 상상적 제도』, 문예출판사, 1994.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 헬렌 조페, 박종연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 2002.
- 히로마쓰 와타루, 김항 역, 『근대초극론』, 민음사, 2003.
- 칼리네스쿠, 이영옥 역,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1993.
-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6. 국외서

- Michel Pecheux,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trans. Harbans Nagpal. London, Macmillian, 1982.
- Art Berman, 『Preface to Modernism』, University of Illinois and Press Urbana and Chicago, 1994.
- G.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y』, Hemel Hempstead: Harvest Wheatsheaf,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Other on 1930's Modernism Poetry

Cho, Hei Jin,
Department of Korean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try to understand the formation course of diverse subjects of modernism literature by studying the other of 1930's Korean modernism literature which came to incur the serious crisis of individuality in connection with imperialism expansion. Commonly, the concept of other includes special people, concept and recognition which are defined as the other which pushed to the outside of culture history and thought history of the West. After modern times, human beings made God and nature etc. as subject so as to call themselves by name as subject. Then, other in this case is defined as monster or outside people and savage to threaten the values of civilized society or the security of rational human being ego. And, the category of this other includes the people and recognition alienated from the equality speculation of the West including death, unconsciousness and insanity as well as the East, non-Western other, foreigner, homo-sexualist, and female.

Then, this issue of other in colonial discussion incurs the issue of colonial other by standing the justness of rule and underrule through dichotomy to be subject and other. So,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d to reconsider modernism literature by studying the formation course of subject of modernism poets through the concept of other to be imaginative other through getting out of the colonial other of colonial discussion. Furthermore, this groped for the possibility to get out of colony through the ego of other which is not incorporated into equality speculation, while making the issue of equality speculation which continues after colony experience as consciousness.

At that time, modernism poets such as Kim, Ki Lim, Lee, Sang, and Paik Suk in 1930s criticized the structural place of imperialism discussion and revealed their own specific subjective royal summons as poets respectively.

Kim, Ki Lim brought himself as subject in the actuality that ego was made into other by realizing the place of profound literary learning of the criticism of poems, essay, and literature criticism etc. as well as poem. In this course, he desired the time nature to be future which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time nature of imperialism. Then, through the prospect of timely utopia, his poem aimed at us of community nature and discovered imaginative other to be race. In this case, the discovery of race as imaginative other is what aimed at community nature as what combined with internationalism which is different from racialism centering around blood relation, and it is what kept the meaning of resistance against imperialistic subject.

Lee, Sang understood imperialism with structural method as an architecture student who studied architecture without reading

imperialism with actuality reading related to experience system. This structural reading to understand human being and social life with mathematical action, symbol, natural material, institution, and system was including ridicul and criticism against the absurd culture discussion of imperialism by excluding the idea, goal, and meaning etc. of world history and recognizing with the system of relations that there is not center. In this course, he understood imperialism as the discussion of other. And, he tried to escape from spatiality that this discussion of other rules. Then, this desire appeared as escape desire to try to get out of the body that the true character of other was engraved. Furthermore, he tried to escape from the space of colonial other through his own death by resisting imperialistic subject.

Continuously, Paik, Suk tried to restore the emotion of life of chronicle through nature narration by resisting the sensible pleasure of imperialistic subject and the modern landscape. And, he discovered imaginative space to be literature by establishing experience space through outer world experience to be travel. In this course, he discovered the ego of inner other without being incorporated into the desire of imperialistic subject by discovering imaginative other in his own specific inside. Futhermore, he overcame the individualism of modernism and resisted the desire of imperialistic subject by keeping royal summons as ethical ego through the ego of inner other.

Then, this effort of modernism poets who criticized the space desire of modernism subject of 1930s and who tried to grope for subject through the discovery of imaginative other with the prospect to get out of colony appeared as respectively different language viewpoint. Then, this is because a view of the world of modernism has relation with

respective language viewpoint in the form technique.

Kim, Ki Lim tried to bring about himself as subject without being subordinate to colony actuality to be making ego into other through speculative language. At that time, he chose the method of negation to be separation so as to negate the equality speculation of imperialistic subject. Then, in this course, his poetic language had speculative character.

Lee, Sang showed subject extinction to be close to skeleton by recognizing that colony discussion is the discussion of other and negating the desire of subject called by nature by other. In this course, he negated imperialistic subject desire through the language of difference which refuses the principle of capitalistic understanding and exchange. Continuously, he ridiculed the landscape of language imperialism by using writing strategy to disturb the authority of imperial language freely through the writing of double language of Japanese and Korean.

Continuously, to Paik, Suk, it was the course to restore the language of silence that Merlo Ponti said by getting out of the dichotomy boundary to be subject & other and modernism and non-modernism. The poem of Paik, Suk as the language of silence discovered dialect as local language by resisting the language imperialism of Japanese to insist on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nd aimed at the originality of human beings over the dichotomy of imperialistic subject.

Poets could keep royal summons as poets by resisting colonial other without being incorporated to the language imperialism of Japan through these respective language viewpoints.

By studying the other in the modernism literature of 1930s, this researcher discovered that this formation course of subject of modernism has the meaning as the possibility to get out of colony which resists the equality speculation of modernism subject. Through this, this researcher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modernism literature which gets out of colony by reflecting on the imperialistic feature of modernism subject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he violence of equality over existing evaluation to be the failed modernism imported from the West. Furthermore, this researcher recognizes the problems of culture imperialism to continue after colony experience also and tries to contribute toward the prospect of new subject to aim at mutual life and co-existence.